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 KTX

March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 완주

봄처럼 꽃처럼, 완주가 피워 내는 이야기  
지금 제철, 포항 구룡포 대게  
주인과 함께하는 여행, 경남관광두레





2021 Spring Collection  
**PARKLAND**



파크랜드를  
만나면  
일상은 여행이 된다

MARCH 2021

# KTX



# 058

▶ **테마 여행**

꽃처럼 봄처럼, 완주가 피워 내는 이야기

사진: 신규철

완주 소양고택



series;  
urban generation

# Contents

026



**전국 맛집 탐방** 봄 향기 가득 푸릇푸릇한 경기도 파주 플랜테리어 카페를 찾았다.

050



**사진이 그린 여행**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 제180호 김정희의 '세한도'를 감격적으로 만났다.

086



**이 계절 이 여행** 대게 살이 차오르는 계절에 경북 포항 구룡포항을 김훈 셰프와 다녀왔다.

122



**작가의 방** 욕망하는 삶, 그 안의 희망을 조각하는 권치규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 기법 —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Park Inbee*



EP-MAK1-E (베이지)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 프로 마사지사만의 따뜻한 세운을 담은 기술 온열 마사지봉 —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6

*Lee Jeong-eun*



EP-MAK1-K (블랙)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볼 에어백 —

2018 LPGA 마이어클래식 우승 | 유소연

*Yoo So-yeon*



EP-MAK1-C (아이보리)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6**  
선진안마기술집약체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MAK1



**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독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



**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



**온열 마사지봉**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



판매처 |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정한 판매점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3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코리아 서울 본점 (02)2942-8452 서울시 서초대로 254 오동원스퀘어 L1층 | 파나소닉 유통판매처 (02)267-84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 파나소닉 HM판매처 (02)755-845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7 2층 | 파나소닉 경인판매처 (050)755-8452 부산시 수영구 광안로 127 1층 | 파나소닉 동아판매처 (053)427-3794 대구시 북구 유흥로 45 2층 | 파나소닉 대관동판매처 (042)227-8452 대전시 서구계룡로 367번길 180 | 파나소닉 충청판매처 (053)424-8452 대구시 중구 영일로 55길 25 상가 102호 | 파나소닉 울진판매처 (053)235-0300 부산시중구 광복로 95-2 | 파나소닉 행정판매처 (050)633-8452 부산시 동구 차암로 10 | 파나소닉 HD 판매처 (062)522-2000 광주시 북구 광안로 24 | 파나소닉 제주 판매처 (064)757-8452 제주도 구림동 4길 3 2층 | 파나소닉 연안판매처 (041)522-845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영대로 209 2층

# Contents



040

**백년가게**  
울산의 백년가게는 어제의 전통을 오늘에 새기며 내일로 나아간다.



**BOOK IN BOOK**

주인이 주도하는 여행 프로그램, 경남의 관광두레 여덟 곳을 살펴보았다.



104

**슬로 여행**

옛 모습을 간직한 경북 군위 화본역에서 시를 닮은 시간을 보냈다.

**COVER STORY**



아원고택에 햇살이 비친다.  
전북 원주 오성한옥마을에  
봄날이 오고 있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  
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  
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021**

**인물 탐구**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 한국 최초  
여성 의사 박에스더 선생을 알아봤다.

**022**

**잡학 사전**

평생 함께할 반려동물 마음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앱을 소개한다.

**036**

**생활의 지혜**

모두의 관심을 끌 '인싸' 아이템만 있다면  
새 학기, 첫 출근이 두렵지 않다.

**038**

**에디터 자유 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영주에  
KTX-이음을 타고 가볍게 다녀왔다.

**080**

**여행자의 방**

전통과 미래를 품은 전북 완주  
한옥에서 고즈넉한 정취를 누렸다.

**134**

**문화 돋보기**

공중파 공개 코미디 무대를 잃은 희극인이  
유튜브에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다.

**142**

**도시와 예술**

폐공장에 예술이 깃들었다. 쇠락하던 도시  
프랑스 낭트가 예술 도시로 거듭났다.

**KORAIL INFORMATION**

- 156 한국철도 소식
- 162 시간표
- 172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74 열차 이용 안내
- 176 비상시 행동 매뉴얼

새로운 파사트의 젠틸한 진화

# NEW GENTLE. The new Passat GT

스마트한 비즈니스 세단을 원한다면 파사트GT를 만나보세요.  
폭스바겐 최초로 적용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DRIVE와  
지능형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LIGHT를 더해  
모든 면에서 젠틸하게 진화한 파사트GT. 가까운 전시장에서 경험해 보세요.



**[ 전시장 ]**

강남 대치 02-564-9800 강남 신사(City store) 02-516-0033 강북 미아 02-320-9630 동대문 02-2241-8888 마포 신촌 02-320-9600 목동 02-3660-9999 용산 한강대로 02-595-0070  
서초 02-588-3434 송파 02-6958-0800 화남(City store) 02-747-4300 부천 032-671-4700 분당 031-760-1800 수원 031-284-3030 구리 031-563-2292 안양 031-396-0801 입산 031-904-4400  
판교 031-696-0100 인천 032-471-6100 원주 033-737-6500 춘천 033-244-6400 천안 041-573-9993 청주 043-223-9944 대전 042-862-9944 전주 063-213-9500 순천 061-727-2345  
광주 062-351-9500 남대구 053-559-1600 대구 053-767-1900 남천 051-611-5500 동래 051-926-5500 해운대 051-995-5500 창원 055-245-7788 포항 054-249-5000 제주 064-744-9200

**[ 차종 및 표준 연비 ]**

Passat GT 2.0 TDI Premium MY21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03kg, 복합 CO<sub>2</sub> 배출량 126g/km, 복합연비 14.9km/ℓ (도심연비 13.4km/ℓ, 고속도로 연비 17.4km/ℓ), 2등급)  
Passat GT 2.0 TDI Prestige MY21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03kg, 복합 CO<sub>2</sub> 배출량 126g/km, 복합연비 14.9km/ℓ (도심연비 13.4km/ℓ, 고속도로 연비 17.4km/ℓ), 2등급)  
Passat GT 2.0 TDI Prestige 4Motion MY21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86kg, 복합 CO<sub>2</sub> 배출량 136g/km, 복합연비 14.0km/ℓ (도심연비 12.5km/ℓ, 고속도로 연비 16.3km/ℓ), 2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MARCH 2021**

2021년 3월호 제18권 제3호 통권(제204호) 2021년 3월 1일 발행

<b>발행인</b>	손병석(한국철도공사 사장)	
<b>편집</b>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진주영 swadjy@swadcom.co.kr 표다정 pdj123@swadcom.co.kr	
교열	오미경	
<b>디자인</b>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b>사진</b>	디렉터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실장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성우애드컴 사진 디렉터	김희진 khj1@swadcom.co.kr
<b>번역</b>	박경리(영어)	
<b>광고</b>	실장	강준호 joon@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ee_40@swadcom.co.kr
<b>온라인 마케팅</b>	부장	이정훈 guide@swadcom.co.kr
<b>제휴 마케팅</b>	(주)쓰뉴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b>제작 자원</b>	상무	박남규 blue@swadcom.co.kr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종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b>법률 자문</b>	김병철(문정중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b>애플리케이션 제작</b>	(주)굿초이스	
<b>인쇄</b>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세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후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세균수 1A등급은 기본,  
“체세포수까지”  
1등급!



# 곡선으로 오는 봄을

경북 군위 화본역에 다녀왔습니다. 옛 모습 간직한 아담한 역은 승강장에도 흰색 나무 표지판을 세워 두었습니다. 표지판 아래쪽에는 봉림과 우보가 궁서체로 쓰여 있어요.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한 기차는 우보역을 거쳐 화본역에 멈췄다가 봉림역을 향했지요. 이걸 과거지사입니다. 현재 중앙선은 화본역 이전이 탐리역, 이후가 신녕역이에요. 그 사이 우보역, 봉림역, 갑현역이 분주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누군가의 기억에만 남았습니다.

새삼스레 몇몇 노선의 역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청량리~부산 부전의 중앙선은 38개, 서울~부산의 경부선은 42개, 서울 용산~목포의 호남선은 34개, 용산~여수엑스포의 전라선은 29개, 부전~광주송정역의 경전선은 43개입니다. 서울~부산 구간에서 보통 10회 이하 정차하는 KTX보다는 훨씬 많지만, 우보역처럼 삭제된 역이 얼마나 될까요. 기차는 늘 '덕후'를 거느렸으니, 무슨 역 다음은 무슨 역, 무슨 역, 하고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요즘 덕후는 역 숫자가 줄어서 좀 편하려나요. 10년 뒤에는 목록이 더 간소해져 전체 노선을 암기하는 보람이 없어질지도요. 속도는 물론 고마운 존재입니다. 불가능한 일정이 가능해지고, 원래 가능한 일정에 여유를 선물해 주지요. 다만 그 중간에 지나쳐 버린 작은 역을 생각합니다. 직선으로 질주하는 노선이 생략한 수많은 곡선 어딘가에, 내가 보았더라면 평생 사랑할 풍경이 펼쳐졌을지 모릅니다. 조금 전 내가 스친 역에 인생의 화두 삼을 만한 사연과 그리운 사람이 있었을지도요. 작은 역이, 무궁화호 기차가 속삭입니다.

직선이 필요한 만큼 곡선도 필요하다고. 봄이 곡선처럼, 무궁화호처럼 다가옵니다. 주요 도시에 먼저 봄을 쥐여주지 않고, 어느 하나 봄에서 소외되는 곳 없도록 차근차근 남쪽부터 바다와 대지를 어루만지며 사려 깊게 올라옵니다. 3월호에는 완주, 포항, 고성과 거제, 군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은 곡선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세상은 특히 지난 세기부터 더욱 직선을 갖고 거기서 빠져 나온 부분을 도려내길 반복했지만, 지구는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곡선이었고 오랫동안 곡선의 날들을 살아왔기에 다행히 아직 곳곳이 곡선입니다. 잡지 안에서, 여행을 떠나서 이런 곡선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봄이 도착하네요. ☑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 완주에서 인생샷

조선 시대에 쌓은 위봉산성에서 인생 사진을 남긴다. 과거에 어진을 봉안할 목적으로 지은 위봉산성은 현재 숲이 무성한 산책로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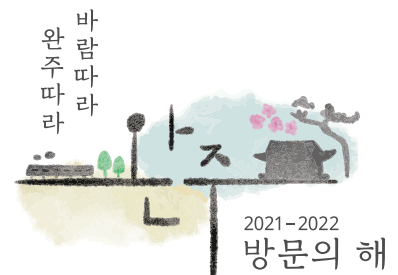


위봉산성



# 기억해 봄

## 청정자연을 품은 감성도시, 완주로 떠나는 여행



FASHION



**Point**  
캐주얼한 느낌을 선사하는  
아웃 포켓

### 가먼트다잉 린넨 셔츠

셔츠와 재킷,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셔츠는 실용성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헨리코튼의 '가먼트다잉 린넨 셔츠'은 옷을 봉제한 후 염색하는 가먼트다잉 기법을 적용해 색감이 자연스럽다. 신축성이 우수한 린넨 면 스판 소재가 편안함을, 나무 질감의 헨리코튼 로고 버튼이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헨리코튼 1588-7667

FASHION



**Point**  
가민코리아의  
태양광 충전 기술  
'파워 글라스' 탑재

### 인스טי트 솔라 에디션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최적화된 GPS 스마트 워치로 나침반과 기압 고도계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수심 100미터에서도 방수가 된다.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 태양광 충전이지만 시계 디스플레이 일부가 그늘에 가려져도 계속 충전되는 기능도 눈에 띈다. 가민코리아 02-2141-5855





**Point**  
장거리 워킹에  
최적화된 기능성 밑창

### 해파랑 T-1500 BOA

아이더에서 '가볍게 멀리 떠나다'라는 테마로 출시한 '해파랑 T-1500 BOA'는 여행자를 위한 신발이다. 방수와 방풍에 효과적인 고어텍스 원단과 탄성력이 좋은 카본 웨이브를 내부에 사용해 착화감이 뛰어나다. 발목과 발등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아이더만의 보아 다이얼 시스템을 장착해 신고 벗기도 편하다. **아이더 1644-7781**



**Point**  
피부에 광채와 수분을 채우는  
에센스

### 순백미인RX 화이트 토너·에센스·크림

환절기에는 피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자연 한방 화장품 명가 생그린의 미백 전문 라인 '순백미인RX'는 미백 집중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생그린에서 개발한 원료인 관중 뿌리 추출물이 기미와 잡티를 유발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열수 추출과 진공 증발 단계를 거쳐 얻은 이화·매화 추출물이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가꾼다. **생그린 080-977-9000**



**Point**  
공기 청정도에 따라  
LED 컬러 변경

### 공기청정기 RAP-M300H13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찾는 이가 많다. 린나이코리아에서 출시한 '공기청정기 RAP-M300H13'은 양방향 2단계 필터가 큰 먼지는 물론이고 보푸라기와 미세먼지, 유해 가스, 담배 냄새, 생활 악취까지 강력하게 흡수한다. 소등 시 조도 센서가 취침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스마트한 공기청정기다. 린나이코리아 1544-3651



Good morning  
&  
Good night.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 하얀 세면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끝난 저녁엔 피로를 씻어내는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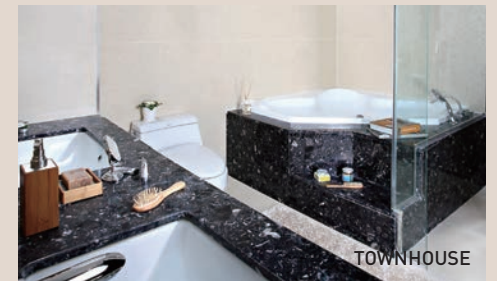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LEEHYUN BATH



HOTEL



RESORT



TOWNHOUSE



APARTMENT



OFFICETEL

#### '시스템욕실(System Bathroom)'이란?

욕실의 모든 구성부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여 현장설치/완성하는 건식 공법

TPR방수판 열융착공법 열가소성수지를 열융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욕실의 다양한 형상 및 크기에 적용 가능  
PU복합판넬 접착성이 우수한 PU와 타일을 일체화시켜 방수, 단열, 치음, 방균 성능이 뛰어난 벽판넬  
천장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 세련미와 편안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욕실 천장

TEL. 02-923-3855~7

#### 건식 욕실 시공의 장점

습식공법의 방수성능 저하 해결, 공간간 비간섭, 인력수급문제 등 해소,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격조있는 고품격 욕실 구현

#### 특허 및 인증 현황

기술연구소 인정서,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관련 특허 21건, 디자인 32건 보유



관광 정보가 가득한 #KTX매거진  
군산 맛집 픽해 두었다!  
#한국철도공사 #여행 #기차여행



기차 타면 필수 정독하는,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책 #KTX매거진 진정한  
기차 여행 친구죠~#춘천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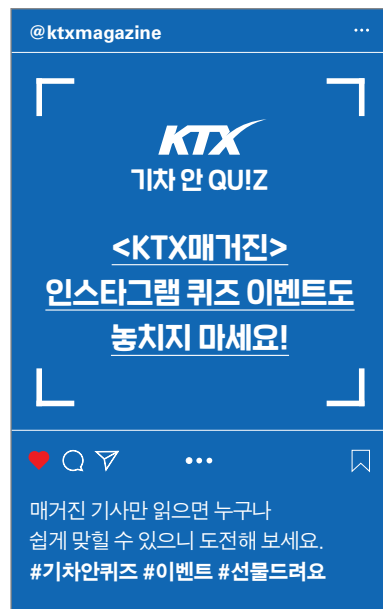


딸기가 맛있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KTX매거진 덕분에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왔음을 느껴요.

## #KTX매거진

- #SNS에서 #찾은
  -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 정리. 표다정

SNS 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코즈메틱 브랜드 델라비에의  
'셀레니티스 오일밤 클렌징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거진 기사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기차안퀴즈 #이벤트 #선물드려요



이제 KTX-이음 타고 본가에 갈 수 있다?  
#안동가는기차 #KTX-이음  
#KTX매거진



술에 진심인 사람, 바로 접니다.  
술에 진심인 조성주 셰프님의 팁도 놓칠 수  
없네요. #KTX매거진 #술에진심

## Panasonic

### '집콕족' 깔끔한 생활 도우미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깨끗한 환경은 필수다.  
파나소닉코리아의 스마트 청소기  
라인업을 소개한다.



#### 무거운 청소기는 이제 안녕!

초경량 무선 청소기 MC-WDD91 짧은 시  
간 사용해도 청소기 무게는 손목에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MC-WDD91은 본체 무게가 1킬로  
그램에 불과한 초경량으로, 청소하는 동안 손목  
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청소하도록 돕는다. 무게뿐 아니  
라 기능도 훌륭하다.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먼  
지 감지 기술을 구현하는 스마트 먼지 센서를 내  
장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꽃가루, 진드  
기 등을 실시간 감지해 표시하고, 감지된 먼지  
양에 따라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청소 효  
율을 높인다. 고성능 전동 흡입구는 마루·장판·대  
리석·타일 등 어떠한 바닥 유형에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V자형 고속 롤러 브러시를 탑재해 잘  
없어지지 않는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컬러는 미드나잇 블루, 스페이스 실버 두 가지.

프로모션



#### 청소기 하나로 모든 청소 해결

멀티 무선 진공청소기 MC-SD787 청소기 한 번 돌렸을 뿐인데 온 집 안이 반짝거린다. 멀  
티 무선 진공청소기 MC-SD787은 청소 만능 해결사다. 진공청소기에 물걸레 청소 기능을 탑  
재한 데다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청소 마니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도록 설계했기 때문.  
전동 흡입구가 벽에 닿으면 자동으로 커버가 열리는 기술을 적용해 브러시가 놓치지 쉬운 모서리  
의 먼지까지 완벽하게 흡입한다. 본체 무게 또한 1.15킬로그램으로 초경량이다. 물걸레 청소는  
일회용 물티슈를 청소기에 장착하는 것으로 준비 끝. 물티슈를 사용하니 매번 세척할 필요가 없  
어 편리하고, 물걸레 헤드가 1분에 600~800회 고속 회전해 이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각기 다른 뚜렷한 개성을 지닌 파나소닉코리아 청소기는 제품 특징에 따  
라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만족시킨다. 지난해 10월 한국 청소  
기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파나소닉코리아는 초경량 무선 청소기 MC-  
WDD91과 물걸레 로봇 청소기 MC-WMD85를 선보인 이후 12월에는 진  
공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하는 멀티 무선 진공청소기 MC-SD787  
을 출시했다. 파나소닉코리아의 세 가지 청소기를 소개한다.

####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물걸레 로봇 청소기 MC-WMD85 군더더  
기 없이 콤팩트한 디자인의 MC-WMD85는  
원형 로봇 청소기가 닿지 못하는 벽면과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청소한다. 본체 높이가 8센티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청소하기 어려운 침대  
나 소파 아래 공간까지 완벽하게 닦는다. 파나소  
닉의 스마트한 기술력이 집약된 것도 이 청소기  
의 장점. SLAM 알고리즘에 기반해 스스로 청  
소 경로를 계획하고 위치를 실시간 인식해 닦지  
않은 구간을 최소화한다. 적외선 센서와 추락 방  
지 센서를 갖춰 장애물이 앞에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회전하고, 계단이 나타나면 알아서 되  
돌아간다. 또 MC-WMD85는 편의에 따라 걸  
레나 물티슈를 장착할 수 있는데, 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것은 물론 청소하는 도중 걸레 면이 자  
동으로 회전해 바닥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덕  
분에 더 깨끗하게 한다.

※ 파나소닉 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테마여행] 이은지

원주군청관광마케팅팀장

첫 통화부터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친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잡지 경험이 쌓인 지금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과 함께하는 취재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쯤 안다. 그래서 전북 완주 취재가 즐거울 거라고 예상했다. 완주는 기대 이상이었다. 아원고택, 소양고택, 위봉산성, 삼례읍... 다 아름다웠다. 아원고택 취재 중에 "제가 완주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라고 독백하듯 말했다. 팀장님은 완주가 더 알려지길 바라면서 웃었고, 나도 그러길 바라면서 웃었다. 여행지마다 팀장님께 받은 목록 속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다. 미리 섭외하신 것이고, 그 덕에 편하게 취재할 수 있었다. 김규보



[이계절이여행] 김재환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번 호 '이 계절이 여행' 촬영의 관건은 대계였다. 현지에서 값비싼 대계를 맛보고 서울로 가져와 요리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취재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런 와중에 조합장님이 선뜻 손을 내밀어 주셨다. 취재 당일 귀한 시간을 쪼개 촬영지인 구룡포수협수산물판매장에 방문해 수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마음도 전하셨다. 수협이 잘돼야 어민이 잘살고, 어민이 잘살아야 수협이 살아남는다며 합리적 가격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져, 비록 날씨를 쌀쌀해도 가슴은 따스했다. 조합장님이 계셔서 봄날을 미리 만났다. 이내경



[책속부록] 황보경

경남관광두레혁신센터매니저

지역민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이라니. 듣는 순간 감탄이 나왔다. 이런 관광두레를 어떤 곳에서 어떻게 풀어 소개할까? 함께 고민한 사람이 바로 매니저님이다. 여덟 곳 중 두 곳을 직접 취재할 계획과 일정을 먼저 조율해서 1차 감동. 나머지 관광두레는 전화로 인터뷰해야겠다고 말하니 여섯 곳에 에디터가 전화할 거라고 미리 싸이 이야기하셨다고. + 코로나19로 거제 근포마을에서 문어버거를 만들기 어렵다는 비보에 "제가 만들어 볼까요?"라고 말씀하신 거 잊을 수 있나! 문어버거 먹을 수 있는 날 함께 내려가요! 표다정



[슬로여행] 남재은

화본역장

역에 들어가자 역장님이 환하게 맞아 주신다. 영화하나 나올 법한 장면을 현실에서 마주치니 찡했다. 열차 승차객보다 역을 구경하러 온 여행객이 더 많은 경북 군위 화본역. 역만으로도 넘 예뻐서 방문 가치 100퍼센트지만, 통표나 일부기 등 옛 철도 물품을 전시해 재미를 더한다. "이게 뭐예요?" 물으면 역장님은 시범과 함께 대답해 주셨다. 대합실에 튀어나온 부분은 굴뚝의 흔적이고, 그 앞에 난로가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에는 마음이 울렁울렁해졌다. 추운 날 사람들이 난롯가에서 불을 쬐는 풍경이, 아름다운 시 '사평역에서'가 떠올랐다. 알고 보는 화본역은 최고 예뻐다. + 디자이너 보영 씨, 모델 해 줘서 고마워요. 김현정



박에스더, Esther Kim Pak  
김정동, 金鼎童  
1877~1910

# 한국 최초 여성 의사 박에스더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 짧은 생애에도 굵직한 발자국을 남긴 박에스더 선생을 소개한다.

글. 김현정

격변의 구한말은 무수한 '최초'의 시기였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겨나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니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졌겠고,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용기 내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디뎠다. 최초 여성 학교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유학을 다녀와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어 최초의 여성 병원에서 진료한 박에스더, 본명 김정동 선생의 삶은 걸음걸음이 최초였다. 그가 밟은 발자국만큼 세상이 판단하는 여성의 영역이 넓어졌다.

1877년 3월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 뜻을 따라 1886년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한다.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보내 입을 하나 덜고, 교육도 시키려는 의도였다. 처음엔 파란 눈의 선생님 스크랜턴 부인이 자신을 난로에 집어넣을까 무서워했으나 스승의 따스한 성품에 이내 마음을 열고 친해진다. 당시 이화학당에 함께 있던 시설이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 남녀유별 사상 때문에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안타까워하여 스크랜턴 부인이 미국에 여성 의사를 요청해 설립한 병원이다. 소녀 점동은 이곳에서 통역을 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다.

바늘로 살을 찌르고 칼로 썰는 행위가 치료라고? 통역은 해도 치료 자체는 질색하던 그는 어느 날 구순구개열 환자가 수술 끝에 회복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평생 '언청이'라 놀림당할 아이를 의술이 구했다. 이제 점동은 의사를 꿈꾼다. '비혼'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 열일곱에 결혼하고, 선교사에게 간청해 유학길에 오른 그는 남편 성에 세례명을 붙인 박에스더로서

의대를 졸업하고 1900년 귀국한다. 고된 유학 생활에 남편을 폐결핵으로 잃는 큰 비극을 겪은 뒤였다. 그에게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연간 3000건 이상 환자를 보았다. 여성이라 외출이 자유롭지 않거나 거동하기 힘든 환자 왕진도 1년에 180여 건을 나갔다. 휴일이라는 호사는 반납했다. 여성 환자를 남성 의료인이 진찰하는 건 상상도 못 하던 시대, 그가 돌볼 환자는 너무 많았고 선생의 가슴은 뜨거웠다.

1905년, 과로가 겹쳐 스물아홉에 폐결핵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선생은 조금 나왔다 싶으면 환자에게 달려가길 반복하다 결국 1910년 4월, 불과 서른넷에 세상을 떠난다. 여성이 무슨 공부냐는, 왜 의사가 되려느냐는, 어떻게 수술을 집도하느냐는 말을, 자고로 여성의 역할은 무엇무엇이라 규정짓는 말을 선생은 넘어섰다. 그 같은 선각자 덕에 여성이, 사회가 여기까지 왔다. 소녀도 꿈꾸는 사회. 아직 갈 길은 저만치다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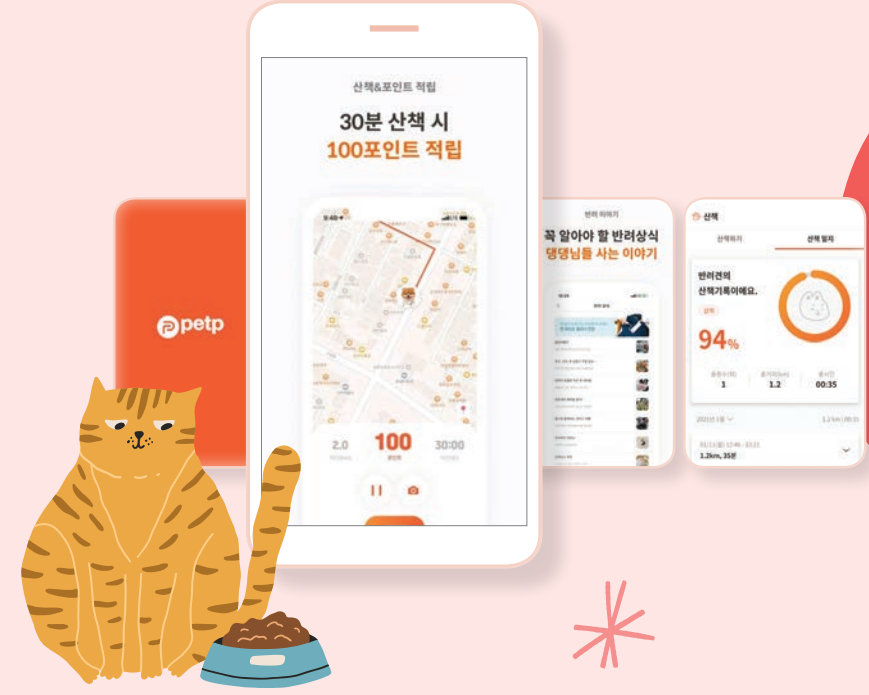


© 이화학당 이계절이여행

# 1400만 집사와 반려동물을 위한 앱

사랑은 이해다.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모았다.

글. 이내경



## 핏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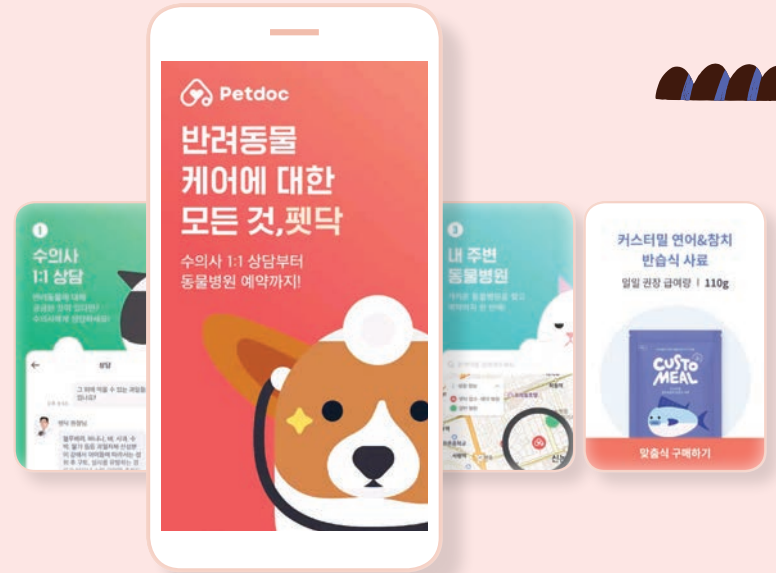
반려동물과 추억을 쌓고 포인트도 적립한다. '핏피'는 30분 이상 산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0포인트를 선물한다. 밖에 나가기 전 '산책하기' 버튼을 누르면 곧, 앞서가니 뒤서거나 하다가 멋진 풍경에선 잠시 쉬면서 사진을 남긴다. 산책 일지에는 그날의 경로와 시간이 자동 기록돼 지역을 되새기기에도 좋다. 포인트는 앱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핏닥

"사료를 먹지 않아요." "우리 고양이가 분리 불안 증상인가요?" 이쯤에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집사는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동물병원에 가기도 애매하고 치료비도 부담스럽다. '핏닥'은 이런 반려인에게 허준 같은 존재. 수의사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진행하고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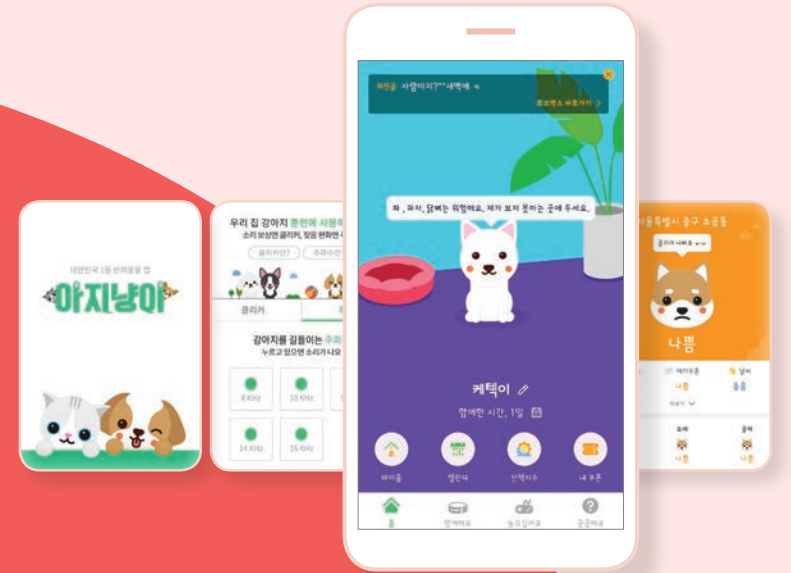
## 하트독

좋은 것만 먹이고 보여 주고 싶은 반려인의 마음을 아는 앱이다. '하트독'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전국 음식점, 카페, 숙소, 관광지 등을 모아 소개한다. 가장 유용한 정보는 각 장소의 '애견 정책'. 입장 장소가 실내인지 테라스인지와 허용하는 몸집 크기,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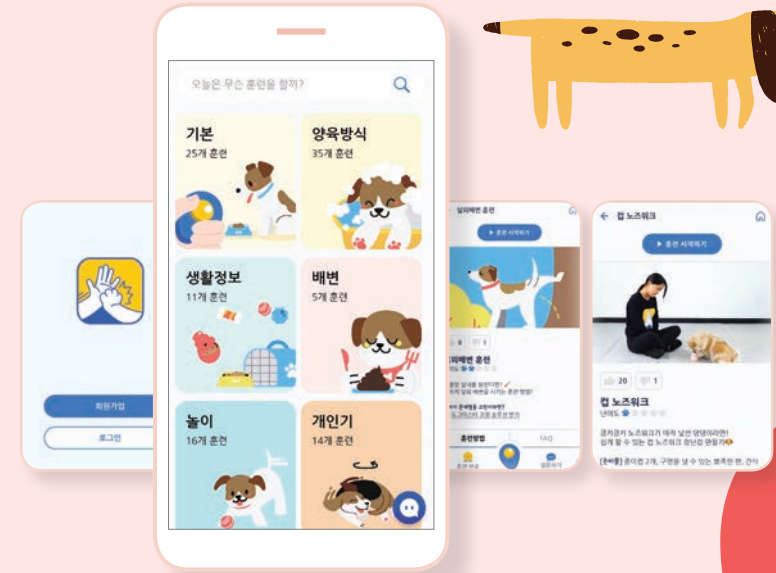
## 아지냥이

우리 '댕댕이'가 휴대전화 속으로 쏙. 내 반려동물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캐릭터가 앱을 실행하는 순간 달려 나온다. 산책하기, 양치하기 등을 하며 알찬 하루를 보내게 돕는 '데일리 미션', 시간별로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하는 '뮤직박스', 건강·양육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전문가 상담 기능 등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 준다.



## 도그마스터

'개통령' 강형욱 동물 훈련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반려견을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운다. '도그마스터'는 100가지가 넘는 훈련법을 단계별 반복 재생하는 영상 콘텐츠나 일러스트로 게시해 초보 반려인도 따라 하기 쉽다. 강아지를 훈련할 때 칭찬 도구로 활용하는 딸깍 소리가 나는 클릭어 기능도 탑재했다.





## 너 때문에 '민초'

달콤하고 시원한 민트초코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정리. 표다정 사진. 이철



# Mint chocolate



### 허쉬 | 민트크림 샌드위치 쿠키

김현정 냄새부터 진입 장벽 작렬. 입으로는 초콜릿 쿠키를 씹고 있는데 코로는 민트 냄새가 올라오는 인지 부조화에 어지러워요. ☆ / 김규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민트에 초코를 더하면 맛있게 된다. 구태여 증명할 필요 없는 자연 발생적인 진리들이다. ★★★★★ / 이내경 미리 밝힙니다. 저는 '민초단'입니다. 고로 이번 '에디터 체험기'는 행복이고요, 감사입니다. ★★★★★ / 진주영 허쉬사의 쿠키답게 미쓰에이의 2013년 노래 '허시(Hush)'가 절로 재생된다.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 ★★ / 표다정 체험기 아이템을 촬영해 주신 이철 실장님이 하나 달라고 하시더니 한 입 먹고 속... 민트 맛있는데 왜 그러시지? 하면서 저도 반 조각 남겼습니다. ★★



### 맥심 카누 | 민트초코 라떼

김현정 믹스커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누까지 이르기 있기, 없기? 내 사랑 카누 커피에 치약을 탄 만행... 부르르... 또르르... ☆ / 김규보 커피, 코코아, 페퍼민트가 맛 폭풍을 일으킨 뒤엔 애뜻한 그리움 같은 잔향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진득하게 맴돈다. ★★★★★ / 이내경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민초단' 멤버로 영원히 남겠습니다. 민트초코 만세! 민트초코 라떼 만만세! ★★★★★☆ / 진주영 처음엔 좀 겁먹었다. 초록색 커피를 마시게 될까 봐. 다행히 일반 믹스커피 색에 향과 맛도 '민초' 초보자에게 적당. ★★☆☆ / 표다정 민고 먹는 카누 아니겠어요? 민트초코 라떼까지 맛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고야~ 이런 스위트함은 처음이야! 공유량 민트초코섬에 살, 아니, 가고 싶다. ★★★★★



### 길림양행 | 민트초코아몬드

김현정 이런 음식이 나오다니, 세상은 넓고 입맛은 다양하구려. 허허허(이쯤에서 초월). "선배는 하나만 드세요" 말한 주영 씨, 넘나 착한 분. ☆ / 김규보 민트색을 두른 아몬드가 초코까지 풀어 내는 모습에 가슴이 따듯해졌다. 그런가 하면 아몬드가 밥알인 듯해 민초뎀밥 아이디어도 떠올려 보았다. ★★★★★ / 이내경 여러 개 먹으면 후회한다고 하나만 먹으라고 했는데, 왜죠? 하나 더 주세요 ㅎㅎ 입안 가득한 민트의 잔향 굿~ ★★★★★☆ / 진주영 전지현 언니가 광고하기 전부터 길림양행 아몬드를 사랑했어요. 민트초코 대신에 군옥수수 맛 많이 먹을게요. ★ / 표다정 쟁여 놓고 먹는 아몬드 과자인데 이걸... 길림양행이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마음, 그 마음만은 잘 알겠다. ★



### 배스킨라빈스 | 아이스크림 오레오 샌드 민트쿠키

김현정 초콜릿 샌드 쪽이 참 맛있네요. 아주 진해요. 그 덕분에 버렸습니 다. 이제 네 제품 다 먹었다. 만세. ★ / 김규보 이토록 두꺼운 민트 아이스크림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 고된 일상을 견디며 살아간다. 최소한 내일까지 행복할 만한 웅장한 양이다. ★★★★★ / 이내경 괜한 우려였다. 커다란 크기에 어떻게 다 먹나 했는데 그 격정은 0.00001 초 만에 사라졌다. '순식'했다는 뜻^^ ★★★★★ / 진주영 '맛잘알' '참입맛'의 상징, '반민초파' 대원으로서 말하건대, 아이스크림에 포개진 오레오 쿠키가 내 미각을 살렸다. ★★☆☆ / 표다정 부드럽게 부서질 줄 알았는데 이가 나갈 뻔했다. 냉동실에서 꺼내고 약 5분 후에 먹으면 신세계가! 내 입으로 다 드루와 드루와! ★★★★★

# 초록초록한 식물 카페

봄 향기가 피어오르는 경기도 파주 플랜테리어 카페를 찾았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 Andterrace



## 앤드테라스

☞ 우유 생크림 몽블랑 8500원 아보카도 쉬림프 오픈 샌드위치 1만 4000원 감바스 알 아히오 2만원  
📍 파주시 오도로 91 ☎ 031-937-8612 📷 @cafe\_andterrace

이름 그대로 테라스가 전하는 여유에 행복한 무엇을 덤으로 선사하는 카페다. 일산의 1호점에 이어 지난해 8월 5290제곱미터(약 1600평) 규모로 문을 연 이곳은 건물 중심부를 2층까지 개방하고 창을 크게 내 자연광이 건물 내부에 쏟아진다. 그 한가운데 자리한 정원에는 나무와 식물 70여 종이 자란다. 파릇파릇 생기를 뽐내는 모습을 살피며 걸으니 여행하는 기분이다. 식물 인테리어와 더불어 이곳의 인기 비결은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 유기농 밀가루에 프랑스산 앵커 버터나 이즈니 버터 등을 사용해 풍미가 가득한 빵을 매일 굽는다. 브런치 메뉴 중 아보카도 쉬림프 오픈 샌드위치는 갓 구운 빵과 새우, 아보카도, 채소 등을 올려 먹도록 푸짐히 내고, 품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마늘, 새우, 버섯을 볶은 감바스 알 아히오를 바게트를 곁들여 든든하다.





**볼콘**

☞ 무화과 호밀 감빵뉴 4800원 청굴티&에이드·한라봉티&에이드(아이스) 6500원  
 ☞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98-10 ☎ 031-946-8875 @vollkorn\_smile

정성을 담아 구운 빵이 푸릇한 기운에 더욱 건강하게 보인다. 빵 진열대 너머 중정에 심은 대나무와 주변 화분이 뿜어내는 싱그러움 덕분이다. 독일어로 호밀을 뜻하는 '볼콘(vollkorn)'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호밀을 주재료로 유기농 밀, 동물성 생크림, 천연 버터를 넣어 빵 50~60종을 당일 생산해 판매한다. 소트닝, 식품 첨가제는 들이지조차 않는다. 건포도 천연 발효종을 활용한 반죽을 18시간 정도 저온 숙성한 감빵뉴는 겉은 딱딱해도 음미할수록 고소해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로 사랑받는다. 여기엔 볼콘만의 스페셜티 블렌딩 원두를 내린 커피나 제주에서 가져온 청을 곁들인 청굴티&에이드, 한라봉티&에이드가 잘 어울린다. 카페인에 민감한 이를 위해 디카페인 커피도 준비했다. 메뉴뿐 아니라 그날 팔리지 않은 빵은 지역 복지관이나 푸드뱅크에 바로 기부하는 운영 철학도 착하다.







Ardium

## 아르디움 카페

☞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 5000원 콜롬비아·르완다 4000원 사케라토 4000원  
📍 파주시 회동길 337-20 ☎ 031-955-1521 @cafe\_ard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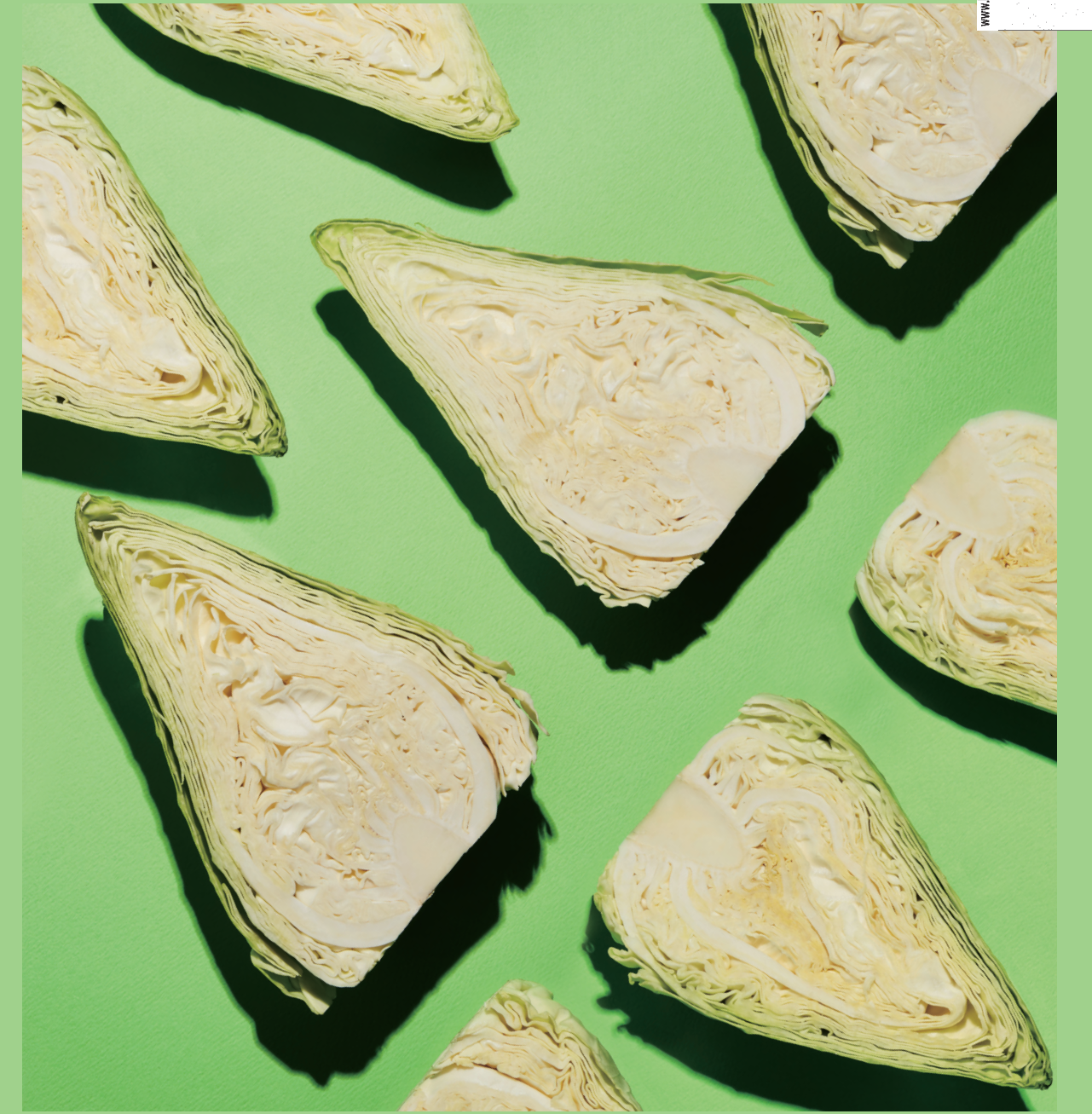
파주 출판도시에 '아르디움 카페'의 온실이 온기를 퍼뜨린다. 사시사철 레몬 향이 향긋한 월마, 여름이면 고개를 드는 빨간 수송이 꽃처럼 보이는 병솔나무 등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온실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바뀐 도시인에게 휴식을 선물한다. 디자인 문구 회사 아르디움이 운영하는 이곳은 온실 오른쪽 건물은 로스팅 카페로, 왼쪽 건물은 회사에서 제작하는 문구·목공 제품 등을 전시한 갤러리로 꾸며 볼거리가 다채롭다. 2층 규모의 카페에 들어서니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긴다. 뛰어난 품질로 이름난 커피리브레의 콜롬비아산 원두를 베이스로 에티오피아산과 르완다산을 2주마다 직접 블렌딩한 커피는 산미가 적당하면서 고소하고 깔끔해 단골이 많다. 특히 전복 고창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달콤 쌉싸름한 사케라토는 봄날에 후회 없는 메뉴다.

## 고깔양배추

씹을수록 단맛 나는  
원뿔 모양의 신기한 양배추다.

글. 표다정 사진. 이철

갓 찢 양배추를 한 김 식혀 입에 넣는다. 적당히 아삭하니 잘 익었고, 달짝지근한 맛이 감돈다. 도마에 앞을 펼쳐 다진 돼지고기, 밥, 양파 등을 넣고 감싼다.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전분 입힌 양배추를 굽는다. 양배추가 노릇해지면 사워크림을 넣고 한소끔 끓인다. 따뜻한 크림과 촉촉한 양배추를 속을 든든하게 하는 사워크림양배추롤이 완성됐다.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 방울양배추와 고깔양배추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원뿔 모양의 고깔양배추는 독일이 원산지로 한국에서는 약 5년 전 재배하기 시작했다. 딱 찬 속처럼 효능도 뛰어난데, 비타민 U와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기 잘되며 위를 보호하는 성질을 지녔다. ☑



LASHEVAN

토티넘 핫스퍼  
투룸 팬티로  
교체 완료!



TOTTENHAM  
HOTSPUR



QR코드 인증 하시고  
KTX특가로 구매하세요!



LASHEVAN

나 방성훈!  
편안한 투룸으로  
이사했다.

라쉬반은 방이 두개!!  
답답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하세요!



QR코드 인증 하시고  
KTX특가로 구매하세요!

# GOOD SPACE



무중력 같은 편안한 착용감

그곳의 땀, 습기, 냄새 완벽 케어

나무로 만든 친환경 섬유 텐셀™

미,중,일 등 42개국 등록 완료



QR코드 인증 하시고  
KTX특가로 구매하세요!

1회용 마스크 일 78억개

## 지구인은 살리지만, 지구는 죽어 갑니다.



겉감 초극세사, 안감 인견 사용

하루종일 착용해도  
아프지 않은 귀등

에어 포켓 프레임 [특허]  
코 눌림없이 편안하게

겉감 발수 코팅, 안감 스피드업 가공 [특허]



- 30회 세탁 후에도 항균도 99% 유지합니다.
- 입 냄새를 제거해 언제나 상쾌합니다.
- 트렌드 한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스피드업 가공으로  
습기를 제거해 언제나 쾌적합니다.

발수 코팅 가공으로  
물방울을 완벽히 차단해 안전합니다.



물이 닿았을 때  
문양이 나타남

안감(레이온)



겉감(초극세사)



QR코드 인증 하시고  
KTX특가로 구매하세요!



# 새 학기, 첫 출근 '인싸' 아이템

입학과 입사의 첫 순간이 무섭지 않다. 모두의 관심을 잡아 끌 이 제품만 있다면.

글. 김규보

↑ **153 러브(LOVE)**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얼굴보다 손이 먼저 주목받고 싶다면 탁월한 선택이다. 표면을 양극 처리하는 아노다이징 기법을 적용하고 부분 도금해 고급스러운 이 볼펜을 못 본 척하기 위해서는 굳이 용기를 내야 할 것이기에. 보디엔 'LOVE [ ]'가 적혔는데 ' [ ]'에 들어갈 문구는 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내 이름. 더 사랑받고 보다 주목받고 싶으니까. 모나미 1544-2884



↑ **인싸 캐릭터 뒤꿈치 자수 양말** | 몸이 차가워졌는가? 이 양말을 신고 걸어 보자. 호기심과 부러움이 뒤섞인 눈빛이 계속 발목을 덥혀 몸도 따듯해진다. 종류가 열 가지나 돼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날마다 관심을 끌어 모은다. 착용 가능한 최대 발 사이즈가 250밀리미터라는 게 아쉽다 생각 말고, 그보다 큰 발엔 캐릭터 부위만 잘라 다른 양말 발목에 붙이자. '인싸'는 그런 기백도 있어야 한다. 고운발 010-9592-6666



← **픽스** | 방긋한 얼굴 모양이 빛을 내는 가방을 메고 첫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 문을 연다. 아직 낯설어도 앞으로 친해져야 할 동지들이 앞다퉁 다가와 말한다. "넌 힙한 사람이구나. 친구가 되어 줄래?" 줄을 서시길. 스마트폰 앱에서 그린 이미지를 LED 불빛으로 구현하는 힙한 가방이다. 수백 가지 이미지와 움직이는 캐릭터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테트리스 게임, 스톱워치도 된다. 새치기하지 마시길. 픽스코리아 02-518-9464



↑ **에이블 데스크 전용 브러시** | 물론, 청소한다고 청순해질 내 책상이 아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책상과 칸막이 사이, 키보드 등 먼지를 닦기 까다로운 부분을 구석구석 쓸어 낸다. 그레이, 블루, 옐로 색상이 저마다 예쁘다. 물기 제거에도 효과적인 브러시는 얼마든 교체하도록 설계했다. 내 책상 먼지를 다 치우려면 브러시 한두 개로는 부족하고, 제조 회사를 통째로 사야 한다. 라이프랜드 010-2807-5212

← **아이리버 미니언즈 칫솔 살균기** | 건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UVC LED 램프가 살균력을 극대화한 이 제품은 한 번 충전하면 70회 살균하는 배터리를 내장해 휴대 기능 역시 극대화했다. 깨끗한 칫솔로 구취 없는 입안의 전제 조건은 충족했고, 문제는 양치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양치질을 안 하는데 칫솔 살균기가 무슨 소용...이 아니라, 이리 귀여운데 어찌 양치질을 안 하겠어요! 드림어스컴퍼니 1577-5557



← **이지드로잉 1060 PLUS** | 강의실에서 눈에 띄는 무언가를 사용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재미는 즐거운 학창 생활의 필수 요소다. 온라인 수업이 많아 자랑하기 힘든 서글픈 세상. 실용성이 라도 확실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필기해야 하는 대목에선 프린트할 것 없이 컴퓨터와 연결한 이 태블릿에 쓴다. 펜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압력 또한 정밀해 그래픽 작업에도 빼어난 실력을 발휘한다. 블루트리 070-5080-2746

→ **리얼 생선 청어 펜슬 케이스** | 교실과 강의실을 바다로 만들어 주는 아이디어 필통이다. 입에서 꼬리까지 25센티미터, 배 아랫부분에서 등까지 9.5센티미터 길이로 영락없는 등 푸른 생선이다. 물고기를 맛나게 먹고자 배를 열어 내장을 제거하는 느낌으로 필통 지퍼를 열고 필기구를 꺼내 공부할 준비를 마친다. 그런데 어떡하나. 필기구를 담을수록 토실토실 살이 오르는 너란 필통. 공부해야 하는데 공복감을 느낀다. 도매토피아 1566-6779





## 가볍게 영주 나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경북 영주.  
KTX-이음으로 빠르고 편하게 돌아왔다.

글. 김현정 사진. 박정우

### 부석사

고려 시대인 1376년에 중수했다고 기록했으니,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뜻이다. 긴 세월을 건너온 무량수전의 고아한 아름다움은 방문객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다.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갈라지는 봉황산에 자리 잡은 입지 덕분에 앞마당에서 바라보이는 능선의 물결 또한 감동의 파도를 일으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는 눈 두는 모든 곳 이 미의 극치다. 문의 054-633-3464



### 선비촌

선비의 고장 영주 곳곳에 흩어진 고택 열두 채를 정확히 실측하고 정성스럽게 재현했다. 하나하나가 영주에서도 존경받는 선비들의 집이다. 유서 깊은 집의 '모사본'으로 마을을 조성한 예는 영주가 처음이다. 이름이 마을이니만큼 집 사이사이에 강학당, 대장간, 저잣거리를 배치해 옛사람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다양한 체험은 물론 숙박이 가능해 고즈넉한 마을에서 묵어가는 것도 좋다. 문의 054-638-6444



### 소수서원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제대로 공부를 해 보자고 민간이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 가운데 최초의 서원이 소수서원이다. 소나무 숲을 지나 서원에 들면 진리를 구하겠다 이 공간에 모여 글 읽고 담소하고 휴식하던 유생의 모습이 떠오른다. 서원 옆, 죽계천 물 흐르는 소리가 귀를 씻어 준다. 문의 054-639-7691



원주중앙 © 영주중앙

### INFORMATION

지난 1월 5일 KTX-이음이 개통하면서 서울과 영주가 확 가까워졌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영주까지 소요 시간은 불과 1시간 40여 분. 명실상부 일일생활권이다. 과거에도 철도 거점 도시로서 철도와 함께 발전해 온 영주는 KTX-이음 개통을 맞아 여행객이 더욱 편하게 영주를 누리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코앞이다!

## 1Hour 영주

### 서울에서 영주까지 1시간대 도착!

KTX는 영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의지를 이어 더 빠른 교통은 물론 도시성장, 문화융성, 수익증대, 산업발전, 생활향상에 이르기까지 더 큰 미래로 달려가는 혁신의 첫 단추입니다.



서울에서 영주까지 코...앞?



# 매일 깊어지는 정성, 백년가게

손님에게 더 나은 맛과 전통의 깊이를 선사하려 노력하는 울산의 백년가게를 찾았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취재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번가 테일러

내 옷처럼 정성껏 짓는 맞춤 정장



손에 진 주름만큼 긴 세월이 지났어도 옷본을 뜨고 원단에 옮겨 그리는 움직임은 건실하다. 1960년, 테일러의 길을 걷겠다 결심한 열네 살 아이의 손동작과 지금 손동작에서 달라진 건 저 주름뿐. 내 옷을 짓는다는 정성 어린 마음이 작업대 앞에 선 홍성재 대표의 몸가짐을 똑바르게 한다. 1977년 '1번가 테일러'를 연 그는 "맞춤 정장은 추풍령 이남에서 최고"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다. 남다른 호기심과 성실한 자세가 발군의 실력을 일궈다. 1988년엔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양복 연맹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명예를 누리기도 했다. 직원 스물여덟 명을 거느릴 정도로 번창하던 가게는 기성복이 대중화되며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입으면 품격이 되고 벗으면 작품이 되는' 이 집만의 정장은 한결같다. 아직도 기술 경진 대회마다 참가해 트렌드를 익히는 일흔다섯 명장의 노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 울산시 남구 월평로 175  
☎ 052-245-7747  
🛒 제품마다 다름

### 백년 시리즈 울산 편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객의 사랑을 받아 온 점포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공식 인증한 점포이며, '백년소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인 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숙련 기술 기반 소공인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추천 링크로 이동합니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직접 추천해 주세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 신사동왕족발

족발 한 그릇에 온 마음을 담는 곳



냉동이 아닌 생족발을 잘 쓰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기를 조달하는 것. 미리 삶는 대신 시간대별 손님 수를 예상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삶아 좋은 육질을 유지하는 게 두 번째다. 모두 '신사동왕족발'이 1988년 개업 당시부터 해 온 일이다. 개업 전, 지인 가게에서 꼬박 3개월을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일하며 족발 만드는 법을 배운 임주현 대표는 이후에도 그 열성을 이어 갔다.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매일 배추겉절이를 무치거나 새벽 시장에 가는 건 기본이고, 마음을 담아야 맛있다는 믿음에 요리하는 순간엔 정신을 오직 음식에 집중한다. 임 대표가 수행하듯 공들여 만든 족발을 입에 넣자 아들이 들한 살이 진한 맛을 낸다. 어머니를 닮은 이승연 씨의 열성까지 더해 가니, 내일 이곳에서 내놓는 족발은 더욱 맛있을 것이다.



📍 울산시 중구 구교로 255  
☎ 052-294-1895  
🍽 족발·보쌈·냉채족발(대) 4만 6000원



### 활진복어요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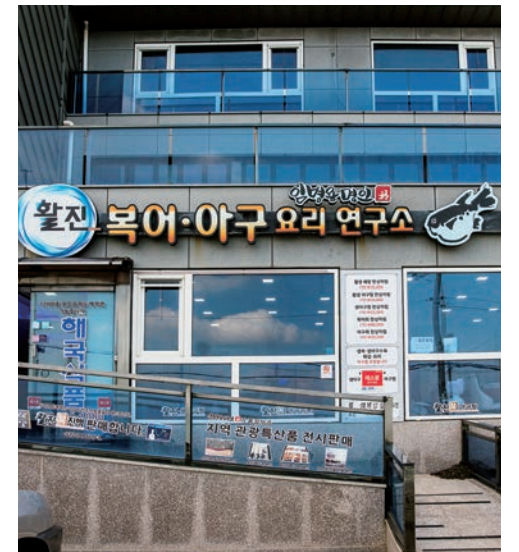
복어 요리를 향한 열정이 깃든 맛



식당 이름에 그냥 '연구소'를 붙였을까. 임병용 대표는 한식·양식·복어 조리능 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듬해인 1998년, 인생을 뒤바꾼 결정을 한다. 가족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담보 잡아 가게 문을 연 것이다. 이후 그는 식당 대표로는 남다른 길을 걸었다. 맛에 만족하지 못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일곱 번이나 국을 끓여 낸 이야기가 그렇다. 울산광역시 요리 직종 최고장인과 복어조리기능장이 되고 느릅나무뿌리를 이용한 복어즙 제조 방법 등을 특허 등록하는 동안 그는 손꼽히는 복어 대가의 명성을 쌓았다. 복어로만 우리는 복국과 활어만 쓰는 회엔 정직이 곧 맛이라는 신념이 어려 있다. 활진복진액을 개발해 제품화한 것도 복어 연구의 결실 중 하나다. 오늘도 그는 복어와 느릅나무껍질, 가시오가피 등을 조합해 가며 좋은 음식, 좋은 제품을 궁리하고 있다.



📍 울산시 동구 주전해안길 136  
☎ 052-234-1080  
🍽 복탕 한상차림(1인) 3만 5000원 복어회코스(1인) 6만원





**연양한우불고기**

39년 노하우와 성실로 빛은 연양불고기



1982년, 아무 기술 없이 젊음 하나만 믿고 식당을 인수해 요리책을 끼고 살다시피 하며 연양불고기를 공부했다. 다들 그러겠거니 여겨 간장과 된장을 수년간 묵히고 매주도 띄워 조리에 썼다. 손님이 판매를 요청해도 음식에 활용하는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두 물렸다. 처음엔 다섯 개이던 장독이 점점 늘어 열다섯 개가 된 지금, 이기숙 대표는 젊음은 사라졌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연양불고기에 대한 자신감을 원동력 삼아 미래 100년을 향해 달리는 중이다. 새끼 두 마리를 낳은 최상급 암소에 직접 담근 장, 39년 노하우를 가미한 이곳 연양불고기는 입에 착 감기는 식감과 짙은 향이 일품이다. 일손을 돕는 아들딸과 함께 레시피에 행복을 보태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 울산시 울주군 연양읍 현양길 87-3

☎ 052-262-0376

🍽 연양불고기(1인) 2만 2000원 특수 부위(1인) 3만원



**강남횃집**

단 하나의 메뉴 '최고의 맛'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 식당에 메뉴판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 한효진·이희교 대표 부부가 메뉴를 추천하는 모습, 다 먹은 손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또 오겠다 인사하는 모습. '강남횃집'이 오픈한 1988년 이후 술하게 반복된 장면이다. 대표 부부는 과메기, 도다리, 아귀 등을 가장 신선한 것만 써 손님상에 올린다. 저마다 제철이 다른 데다 같은 해산물이어도 더 나은 품질이 있기에, 최상의 맛만 건네겠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메뉴판을 만들지 않았다. 충남 서산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농사짓는 형제에게 공급받는 식재료와 직접 탄 앵두, 복분자, 매실로 장만하는 반찬 역시 강남횃집의 자랑이다. 손님이 행복해하는 게 마냥 좋아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 부부의 유일한 메뉴는 '최고의 맛'이다.

📍 울산시 남구 삼산로77번길 18

☎ 052-267-1780

🍽 회정식(1인) 3만 5000원



구본웅, '인형이 있는 정물', 캔버스에 유채, 71.4×89.4cm, 1937,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인형이 있는 정물> 구본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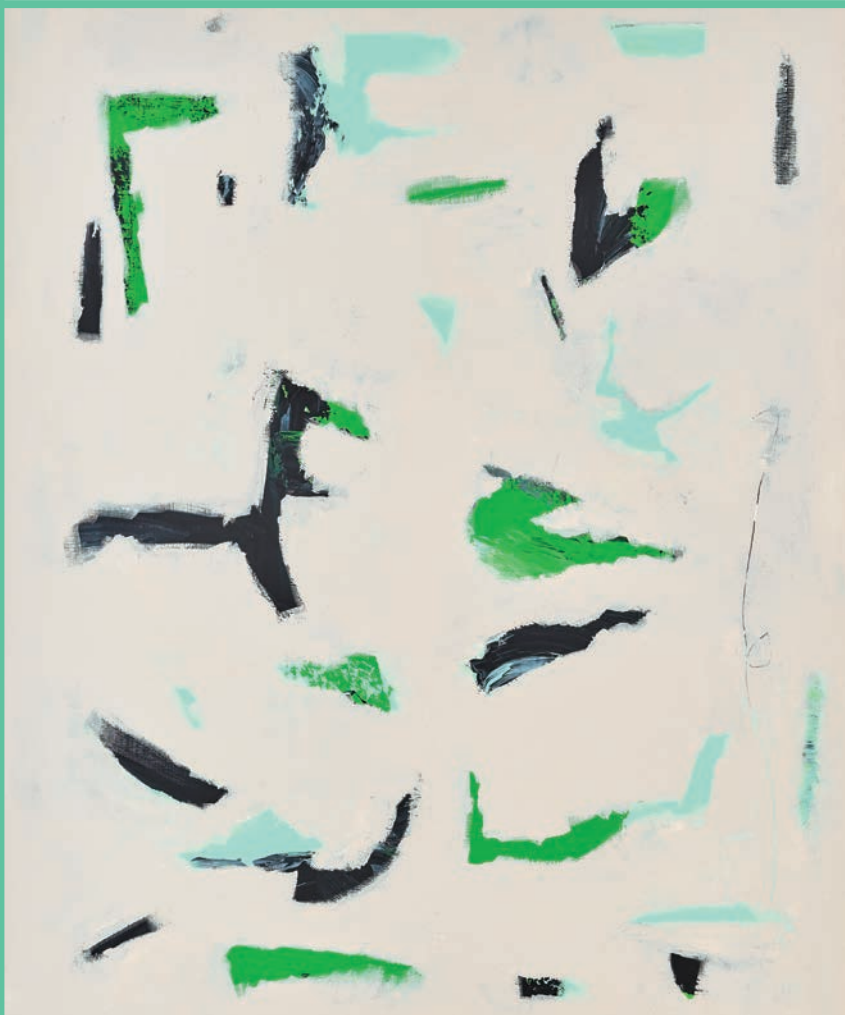
글. 김규보

죽마고우인 시인 이상이 그랬듯, 자신의 분야인 미술계에서 전위적 활동을 펼친 구본웅. 일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해 모더니즘을 추구하던 1937년이 작품을 그렸다. 그는 당시 프랑스에서 혁신의 선봉에 선 작품을 소개하기로 유명한 미술 잡지 <카이에다르(Cahiers d'Art)>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대담하게 포즈를 취한 인형을 작품 중앙에 두었다. 여기에 배경을 검게 칠하고 붓질을 거칠게 하였으며 원근감을 과감하게 생략한 기법으로 예술가로서 정체성과 나아가고자 한 방향을 드러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구본웅이 야수파에 주목하는 한편, 그와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자 궁리했다는 사실을 엿본다. 나아가 시대의 틀을 깨거나 새 길을 열려는 시도와 노력이 다음 시대를 이끄는 축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전, 5월 30일까지. 문의 02-2022-0600



03.13~04.23



<What are you doing  
the rest of your life?>

### 전시

2007년 정규 앨범 <스타일 뮤직(Style Music)>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로 기획, 프로듀싱, 작사, 작곡 분야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 온 MY Q(마이 큐)가 회화 작가로 돌아왔다. 회화 작가로 변신한 시점은 2019년 전국 투어를 하던 때다. 매번 비슷한 디자인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던 MY Q는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고민했다. 무대만 한 크기의 원단에 글씨와 그림을 채우고, 그것을 배경 삼아 노래했다. 그 활동으로 내면의 큰 울림과 행복을 느꼈다는 작가는 음악 한 곡을 완성하듯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덧입혀 나갔는데, 이 작업을 스스로 'Dub Da(뉘다)'라고 규정한다. 이번 개인전은 크게 네 가지 시리즈로 나뉜다. '뉴 노멀(New normal)'에서는 세상을 향한 질문을 패턴과 기호로 풀어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전시 제목이자 작가가 던진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로 향한다.

장소 서울 이길이구 갤러리 문의 02-6203-2015



© 이길이구 갤러리 2GIL29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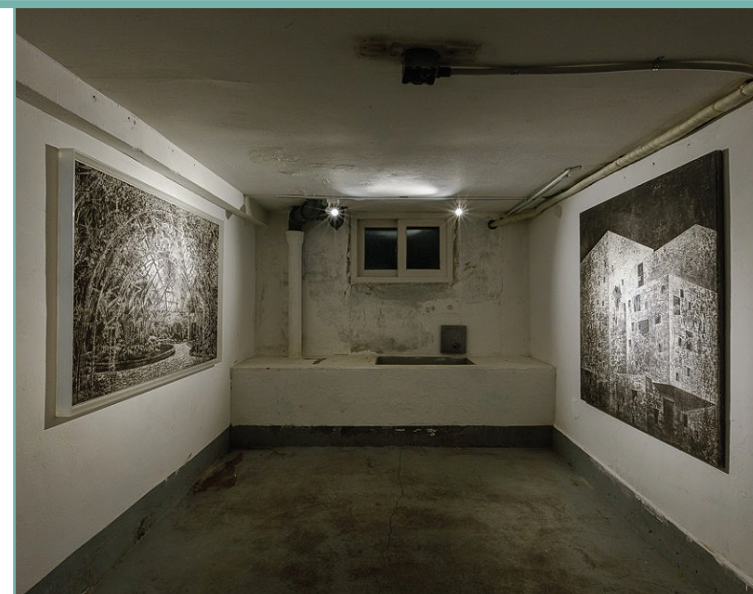
## <공유지: Common Land>

### 전시

지난 1월 오픈한 복합 문화 공간 라드(LAD)는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2층 구옥을 개조한 것이다. 개관을 기념해 자연을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 온 김유정·구기정 작가의 작품을 모아 전시를 마련했다. 김유정 작가는 인간 생존에 중요한 요소인 물이 공급되는 주방과 욕실 등 주거 공간을 틸란드시아로 뒤덮은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구기정 작가는 고해상도 카메라, 매크로렌즈, 3D 기술, 피그먼트 프린트를 활용한 세밀하고 사실적인 영상 작업으로 자연을 형상화했다.

장소 서울 라드(LAD) 문의 02-6081-2150

© 김유정, '온기 Warmth', 프레임스코 회벽에 스크래치, 2016



01.22~03.14

© 김유정, '빈그늘 장식지-물의 시원1', 틸란드시아, 그림, 주방의 여러 오브제, 2021





전시

### <나무, 물고기, 달>

소원을 이루어 주는 존재가 등장하는 설화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이다. 소녀와 소년, 순례자, 사슴과 물고기가 소원나무를 찾아 나선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얻는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사유하도록 이끈다. 소리꾼이 쌓아 올리는 화성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장소 서울 국립극장 문의 02-2280-4114

03.11~21



전시



Joehyun Gallery



### <권대섭 개인전>

보름달 같다. 조선 시대 백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권대섭 작가의 백자 향아리가 그렇다. 그는 1년에 10회 내외로 가마에 불을 때고, 한 번에 4개씩만 굽는다. 40개 중 작품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신작 11점을 부산에서 만난다. 작품 감상을 위해 빛을 차단한 전시장은 오롯이 백자에 집중하게 한다.

장소 부산 조현화랑 문의 051-747-8853

01.14~03.28



전시

### <첫 번째 10년>

2011년 5월 26일 대구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올해는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 건립 준비부터 개관 이후 지금까지 서사를 엿보는 아카이브 전시를 준비했다. 그동안 대구미술관은 작품 1541점을 수집하고, 전시 105회를 기획하며 관람객과 소통했다. 그 발자취가 담긴 기록으로 앞으로의 10년을 헤아린다.

장소 대구미술관 문의 053-803-7900

02.23~06.27



전시

### <슈만 & 베토벤>

경기필하모닉이 2021년 '헤리티지 시리즈 1'을 처음 선보인다. 2019년 9월부터 경기필하모닉을 이끈 마시모 자네티의 지휘 아래 슈만의 첼로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한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가 함께한다. 23일에는 같은 레퍼토리의 공연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장소 수원 경기아트센터 문의 031-230-3440

03.21, 23



축제

### 홍성남당항새조개 온라인 축제

쫄깃한 맛이 일품인 새조개가 제철이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축제로 전환했다. 공식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새조개, 바지락, 배추와 무, 팽이버섯 등을 담은 키트를 판매한다. 집에서 편하게 새조개 사부사부를 즐길 수 있다.

주소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com

문의 041-634-0104

01.23~03.31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ravel

058  
꽃처럼 봄처럼, 전북 완주

086  
대게가 한창인 포항 구룡포항

104  
옛 모습 간직한 화본역 느린 여행



사진: 이규연

군위 화본역과 기념 입장권



세  
한 歲寒

그래, 바로 여기  
나의 집일세

제주에서 태어나 중국, 일본, 한반도를 오갔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마침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글. 이영란 사진. 신규철 취재 및 자료 협조. 국립중앙박물관

去年以晚學大雲二書寄來今年又以  
 蒲研文編寄來此皆非世之常有難之  
 千万里之遠積有年而得之非一時之  
 事也且世之酒之唯權利之是趨為之  
 費心費力如此而不以歸之權利乃歸  
 之海外蕪草枯槁之人如世之趨權利  
 者太史公云以權利合者權利盡而交  
 跡君忘世之酒之中一人其有起並自  
 拔於酒之權利之外不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耶孔子曰歲寒然後知  
 松柏之後凋松柏是毋四時而不凋者  
 歲寒以前一松柏也歲寒以後一松柏  
 也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今君之於  
 我由前而無加焉由後而無損焉然由  
 前之君無可稱由後之君亦可見稱於  
 聖人也耶聖人之特稱非徒為後凋之  
 貞操勁節而已矣有所感發於歲寒之  
 時者也烏乎西京淳厚之世以汲鄭之  
 賢賓客与之感衰如下邳樹門迫切之  
 極矣悲夫阮堂老人書



세한과 송백의 지조

세찬 파도가 쉽 없이 밀려오는 섬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은 황량한 땅  
 허름하고 텅 빈 적거지를 위협하는 바람 소리, 그 너머  
 거친 종이와 마주한 완당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인다.  
 몇 번이고 반복되던 긴 한숨의 끝.  
 불현듯 힘차게 움직이는 붓끝에서  
 진한 먹으로 소나무, 측백나무가 좌우로 거친 가지를 뻗는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송백의 마음이  
 세계 최고 문인화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INFORMATION

『세한도』 특별 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세한도』를 비롯해 『평안감사향연도』 등 18점을 전시하는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 평안平安>을 진행한다. 1부 『세한歲寒-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 2부 『평안平安-어느 봄날의 기억』으로 나눈 특별전은 세계적 문화유산 『세한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기증한 이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게 한다. 4월 4일까지. 문의 02-2077-9000

岁寒与松柏之气魄

数丈之高的巨浪,疯狂地涌上小島, 刺骨的寒冷仿佛要冻僵整个荒凉的大地, 寒风袭上适居地土阶茅屋的角落。面对着粗糙的笔墨纸砚, 阮堂老人背影是如此的寂寞。老人一段长吁短叹之后蓦然举笔, 洒脱飘逸地挥起了含满墨汁的毛笔, 侧柏与松树的枝叶在笔锋下起舞, 舒畅而自由地伸展。四季常青, 历严冬而不衰, 松柏树象征坚强不屈, 也象征秋史先生自己孤傲耿直的品格。如今松柏以巧夺天工的文人画, 重现在世人的眼前。

歲寒と松柏の志操

絶えず荒波が打ちつける島  
 厳しい寒さに凍てつくような荒廢地  
 流刑先の侘しい家屋に吹き荒れる風の音、その先に粗紙にひとり向き合う阮堂老人の後ろ姿が見える。  
 長い溜息を幾度となく繰り返したのち、突如、力強く動き出した濃墨の筆先から  
 松とコノテ柏の木が左右に荒々しく枝を伸ばす。  
 真冬の厳しさにも耐え抜く松柏の心が  
 世界最高の文人画へと誕生する瞬間だ。

『歲寒圖』 観覧案内 国立中央博物館は特別展 <冬去春来——岁寒平安> 特別展, 展示秋史金正喜の岁寒图等18幅作品。第一幕主题为『岁寒图』, 第二幕为『平安——某个春天的回忆』。展览日期为4月4日截止。

『歲寒圖』 観覧案内 国立中央博物館は特別展 <冬去春来——岁寒平安> 特別展, 展示秋史金正喜(キム・ジョンヒ)の作品『歲寒圖』など計18点を公開中。第1部は『歲寒圖』を中心に、第2部『平安-ある春の日の記憶』では『平安監司饗宴図』などを展示する。期間は4月4日ま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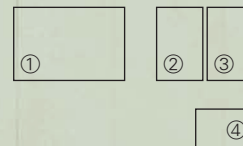


### 19세기 동아시아 학술과 문화의 결정체 '세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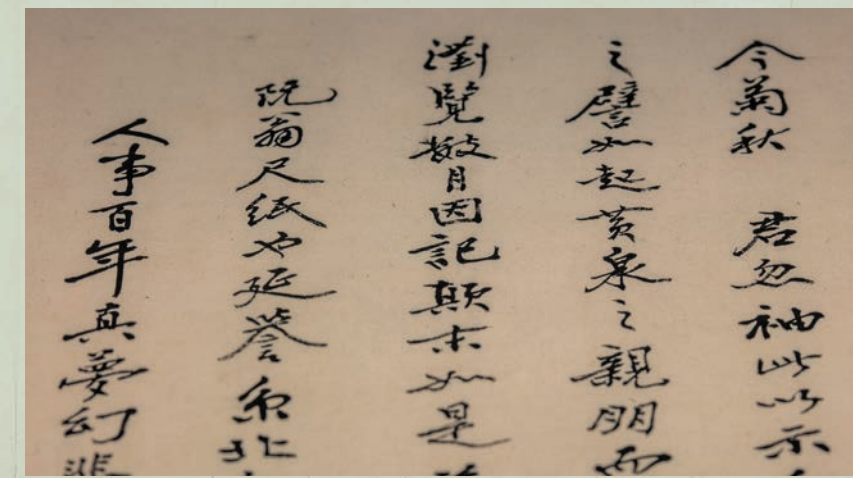
국보 제180호 '세한도'는 19세기 조선의 대표 문인이자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안정된 삶을 살던 김정희는 55세 때 견제 세력에게 밀려 제주도로 유배를 간다.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 8년 4개월. 힘들고 외로운 그 시기를 버티게 해 준 힘은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곁을 지켜 준 지인들이었다. 김정희는 의리를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 선물했다.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예술혼으로 승화시켜 완성한 '세한도'는 한·중·일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国宝第180号‘岁寒图’是代表朝鲜时代的文人，也是著名书法家金正喜的作品。他出身于名门望族，但55岁被政敌诬害流配到济州岛，而在他患难之时其弟子李尚迪却对恩师不离不弃，恪守信义，‘岁寒图’是秋史送给李尚迪的礼物，作者将自身的处境与痛苦升华为艺术，作品既是秋史先生的魂之所在，也是韩国最伟大的遗产。

国宝第180号『歳寒図』は、朝鮮を代表する文人であり書芸家の金正喜の作品だ。名高い名家出身だったが、55歳の時に突然勢力争いに巻き込まれて済州島に流罪となり、故郷を去る。辛い時期を支え、弟子として義理を貫いた李尚迪(イ・サンジョク)に贈った『歳寒図』は、苦しみを芸術に昇華させた人類の偉大な遺産だ。



- ①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옥으로 만든 꽃이를 부착한 '세한도' 두루마리.
- ② 19세기 중반 허련이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그린 '완당 선생 초상'.
- ③ 이상적인 난초 그림의 경지에 오른 작품 '불이선란도'에는 15개의 인장이 찍혀 있다. 5개는 김정희 것이고, 10개는 이후 전래되며 소장자들이 찍은 것이다.
- ④ '세한도' 옆에 감상문을 남긴 16인 중 오세창은 일본에서 돌아온 '세한도'를 보고 "황천에 있는 친구를 일시켜 악수하는 것과 같다"라며 기쁨과 슬픔이 한량없음을 표현했다.



# 문화 기증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한도’를 기증한 손창근 선생의 차남,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만났다.

정리. 이영란

- 부친 손창근(92세) 선생께서 ‘세한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황은 어떠신지요?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서화 304점을 기증하셨을 때 ‘손 아무개’로 해 달라고 하신 것처럼 ‘세한도’ 기증도 언론에 크게 노출되는 걸 꺼리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용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 176년간 한·중·일 세 나라를 오간 ‘세한도’의 마지막 안식처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호암, 호림, 간송 처럼 재단이나 박물관을 설립해 수집품을 영구 보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친께서는 박물관 운영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더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세한도’를 특별히 아끼셨기에 그 가치를 잘 아는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자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 부친께서는 2005년부터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셨을 뿐 아니라 용인에 있는 숲 약 660만 제곱미터(200만여 평)도 기부해 ‘석포 숲 공원’을 조성하셨습니다. 조부 손세기 선생도 1973년 서강대학교에 200여 점을 기증하셨는데, 두 분의 나눔을 통한 가르침이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금전적 기부보다는 문화를 통한 정신적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희 가문은 개성 상인의 후예입니다. 근면과 검소를 실천해 부를 쌓지만, 가치 있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문의 전통을 두 분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 부친께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셨지요. 2004년 문화유산 정부 포상을 시작한 이래 첫 사례인데, 자녀로서 기쁘셨겠어요. ‘세한도’를 포함해 어렵게 수집한 작품들이 저희 가문을 떠나게 되어 아쉬울 것 같다며 위로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제 지인 대부분은 기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조부와 부친께서 50여 년간 간직한 작품이기에 두 분 뜻대로 모두의 품에 안겨 드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1844년 제주에서 탄생한 ‘세한도’는 김정희의 제자 이상적을 따라 중국에 갔고, 그 후 일본 수집가의 손을 거쳐 1970년대에야 조부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세한도’ 스스로 자신을 맡길 만한 지기로 조부와 부친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대륙과 바다를 넘나들다 전쟁 당시 일본 도쿄에서 폭격당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부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세한도’의 험난했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한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 가문을 찾아 준 ‘세한도’에 크게 감사해야겠지요.
- 끝으로 이번 ‘세한도’ 전시를 찾는 관람객,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예술혼과 벗들과의 교류를 통해 승화시킨 김정희 선생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 ‘세한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에게 ‘세한도’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원동력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



김정희 필 세한도

오  
다  
자

봄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평안  
Memorable  
Moments

2021  
04  
04

세한  
Wintry  
Days

2020  
11  
24

지  
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한  
겨  
울

After Every Winter Comes Spring



평안도 사원도

동쪽의 위봉산과 중남산에서  
서쪽의 만경강과 만경평야까지,  
전북 완주가 꽃피운 이야기를 들었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 Wanju

꽃처럼 봄처럼,  
완주



QR코드를 스캔하면  
소양고택 등 완주의  
주요 여행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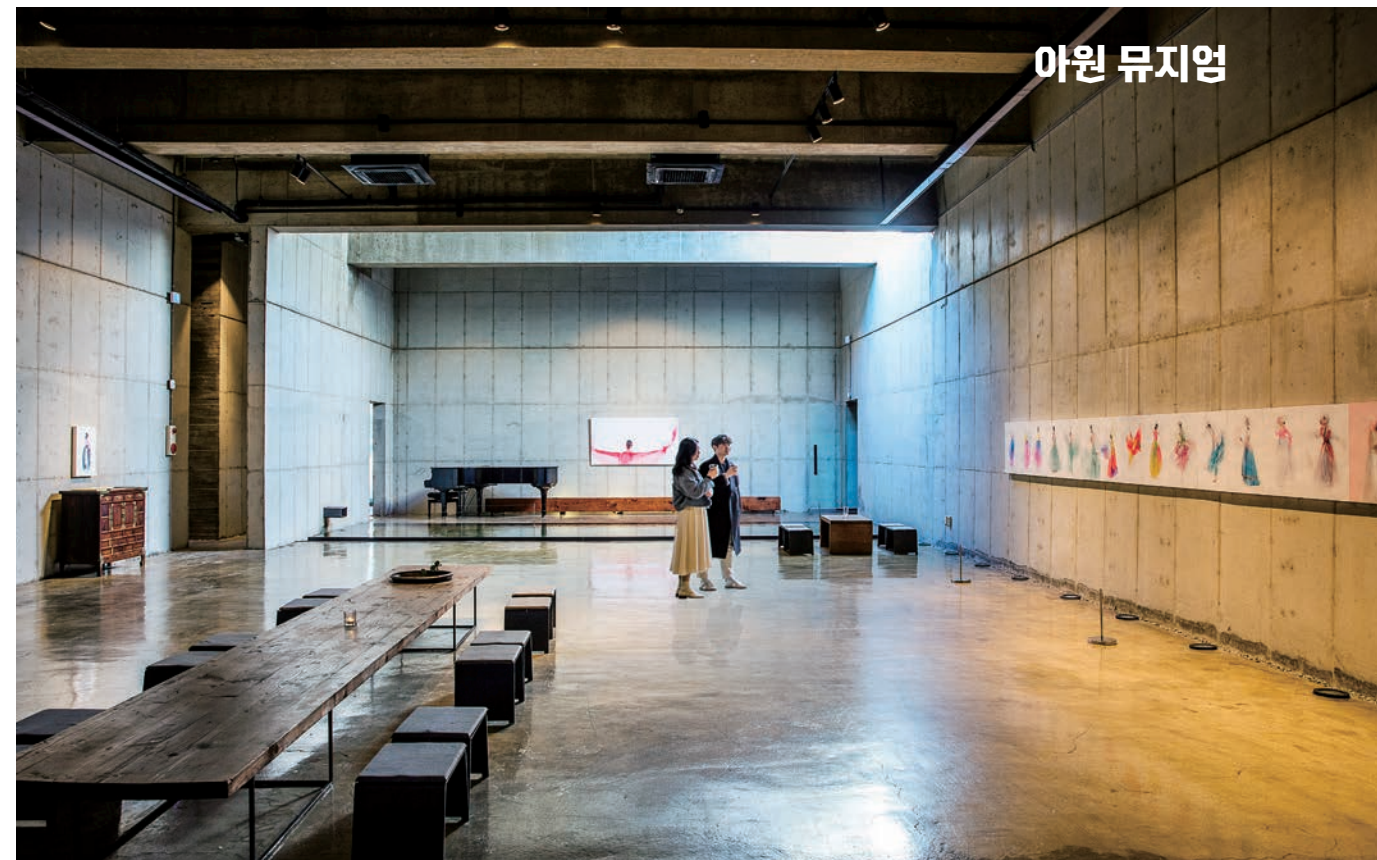
## 한옥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로운 아원고택은 독특한 정취로 시선을 잡아끈다.

여기는 위봉산과 중남산이 에워싼 산골이다. 골짜기가 깊어 씨를 뿌리고 작물을 거둬들일 땅은 찾기 힘들다. 산세는 수려하나 외진 까닭에 두 발로 이동하던 과거엔 드나들 이유가 드물었다. 조선 시대에 위봉산성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모여들 일은 더욱 없었겠다. 산성은 1675년에 쌓았다. 350여 년 전에 일꾼들이 조성한 오성마을은 현대에 이르러 많은 이가 떠나 소슬한 공간이 되었다. 세월을 통과하는 대부분이 그렇듯, 결국 마을이 스러졌대도 별다른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0년대 초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마을을 가꾸어 나갔다. 주민은 한옥을 짓고 길을 정비했으며 지자체는 그들을 지원했다. 희미해지던 마을이 한옥 스킴세 채가 정취를 자아내는 오성한옥마을로 선명하게 거듭났다. 한옥 용마루의 윤곽이 중남산 능선과 착실하게 조화하는 이곳은 사람처럼 굳건하다. 꺾였다고 움츠러드는 대신에 곡절을 딛고 일어난 이의 걸음걸이 같은 풍경을 보여 준다. 들여다볼수록 그윽한 오성한옥마을과 함께 전복 완주를 견고 있다. 깊은 골짜기에도 봄이 오고, 개화를 준비해 온 망울들은 앞을 연다. 지금, 완주가 그러하다.

In this deep valley, surrounded by Wibongsan Mountain and Jongnamsan Mountain, it is hard to find land to sow seeds and grow crops. Despite its spectacular scenery, the area was too remote for people to visit in the past, when most traveled on foot. It would have attracted far fewer visitors if not for Wibongsanseong Fortress, which was built in 1675 during the Joseon dynasty. Oseong Village, formed by workers about 350 years ago, gradually lost its inhabitants, but saw an interesting change of fate in the early 2010s. The remaining villagers and the local government joined hands to revive the village, and transformed it into Oseong Hanok Village as we know it today. The *yongmaru* (ridge beam) of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is in perfect harmony with the ridge of Jongnamsan Mountain. The ups and downs in the landscape are like the unyielding spirit of one who does not succumb to failure, but gets back up to try again.



아원고택 1층 아원 뮤지엄에선 매년 두세 차례 초대전을 개최한다. 열린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작품을 비추며 영감 가득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원 뮤지엄





아원 뮤지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대숲을 지나 2층에 오르면 종남산이 바라보이는 아원고택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3-241-8195

전통이 생기로운 곳, 오성한옥마을

오성한옥마을 동편에는 아원고택이 자리한다. 세계가 열광하는 방탄소년단이 2019년 화보 촬영을 한 뒤에 인기 여행지로 부상했다. 팬에겐 성지가 됐고, 방탄소년단을 잘 모른대도 사진을 본 누구는 “아, 거기” 하게 될 만큼 유명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아원고택은 철이 지나 시들해지는 유행을 뿌리 삼고 자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다. 한옥이라는 대지에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양분으로 성장한, 부드러운 동시에 단단한 나무다. 가슴에 담겨 잊히지 않을 아원고택만의 광경을 입구에서부터 만난다. 높이 솟은 노출 콘크리트 외벽 위로 한옥 처마 선이 보인다. 직선으로 뻗은 1층 벽과 2층의 한옥 곡선이 땅과 하늘인 양 어우러지는 모습에 감탄사가 터진다. 전혀 다른 둘을 어떻게 포갠기에 이리 멋스러운 정경이 완성된 걸까. 한 사람만 오가도록 좁게 설계해 절로 입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통로를 걸어, 갤러리인 1층 아원 뮤지엄에 닿는다. 열린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 한편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사방을 메운다. 한옥 아래에 위치한다고는 믿기 어려운 모던한 공간이다.

Oseong Hanok Village, Alive With Tradition

To the east of Oseong Hanok Village is Awon Museum and Hotel, which rose to fame after being chosen as a shooting location by BTS in 2019. Being a place of historical significance, Awon Museum and Hotel is not just a trend that comes and goes. The house is a blend of both traditional and modern aesthetics, and radiates a gentle sturdiness. From the entrance, you can see the beautiful eaves rising above the exposed concrete wall. The straight lines and elegant curves of *hanok* come together like land and sky. The two completely different elements fall in unison, complementing each other. Sunlight floods in from the open ceiling of the first-floor Awon Museum, and the sound of flowing water echoes in the air. The modern space is not what you'd expect to find in a *hanok*. Awon Museum calms you with the sounds of tranquility, offering an escape from the ur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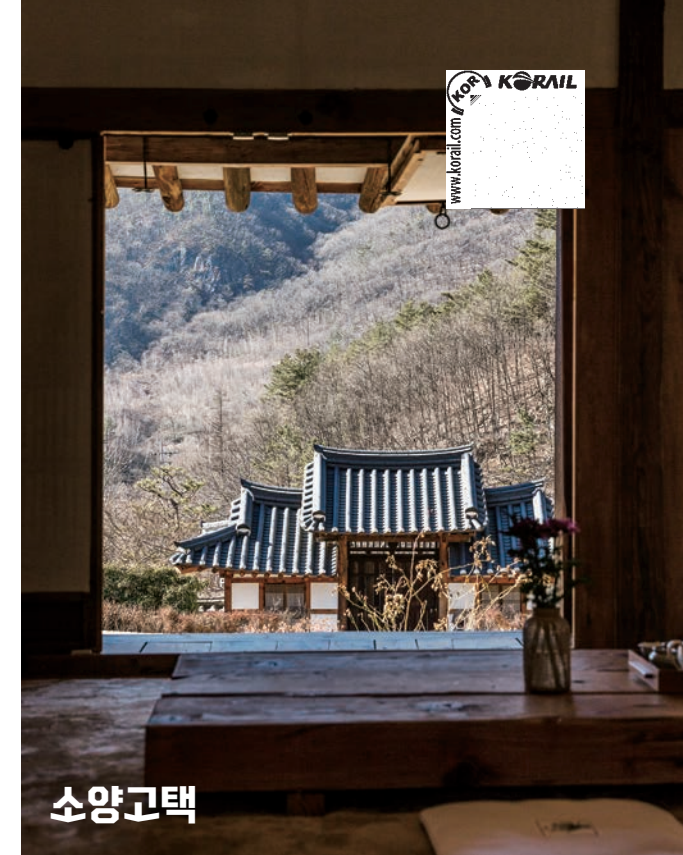
## 솟을대문을 타고 넘어와 마당에 놓여지는 종남산의 운치를 오래 누린다.

갤러리에서 햇살과 물에 귀를 기울인다. 술한 소음에 둘러싸여 고요의 의미를 머리로 읽기만 하는 이에게 아원 뮤지엄은 고요가 들리는 경험을 선사한다. 달힌 내부에 있되, 차츰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되며 어느 때에는 하늘이 떠오르고 강이 어린다. 내면에 자연을 끌어와 펼쳐 내는 아원 뮤지엄의 다음은 2층 한옥으로 이어지는 대숲이다.

갑작스레 트인 시야로 바람과 빛줄기가 몰려든다. 조금 전까지 상상 속에 존재하던 자연이 삽시에 눈앞에서 하늘거린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숲길의 여운이 길게 드리우는 것을 느낀다. 아원고택을 지은 전해갑 대표는 이곳 숲이 마음에 들어 자리를 정하고 경남 진주와 전북 정읍에서 각각 250년, 150년 역사의 고택을 고스란히 옮겨 왔다. 대개 한옥은 남향이나 아원고택은 종남산을 정면에서 바라보도록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숙소이기도 한 한옥에선 어디에서든 수려한 산세를 조망한다. 종남산을 그린 그림의 액자 같은 한옥을 매만진다. 대청은 정갈하고 기둥은 결이 곱다. 비가 오는 날엔 습기를 없애려 수십 번 쓸고 닦는 정성이 아원고택을 한층 감동스럽게 만든다. 오성한 옥마을의 또 다른 풍경인 소양고택도 마찬가지다.

noise and congestion that many have grown accustomed to. As you immerse yourself in the moment, you will be able to conjure up images of nature. A lush bamboo grove outside the museum leads to the second floor. What you have imagined just a few seconds ago—sun, wind, and light—is now right before your very eyes. The house is actually a reconstruction of a 250-year-old house from Jinju,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a 150-year-old house from Jeongeup, Jeollabuk-do Province. While most traditional Korean houses are designed to face the south, Awon Museum and Hotel faces Jongnamsan Mountain. Those who stay overnight in the hotel can enjoy amazing views from their rooms. On rainy days, the house is swept and cleaned dozens of times to prevent it from becoming overly damp.


Soyang Gotaek Hanok Stay was reconstructed from traditional houses that were facing demolition in Gochang, Jeollabuk-do Province,



소양고택

소양고택은 철거 직전인 전북 고창 한옥의 솟을대문과 사랑채, 전남 무안 한옥의 안채를 가져와 세웠다. 책방과 카페도 운영한다. 문의 063-243-5222



A photograph taken from inside a stone structure, looking out through a large, semi-circular stone archway. The archway is constructed from large, weathered grey stone blocks. Beyond the arch, a dirt path leads to a stone wall. In the distance, a mountain range with sparse, brownish trees is visible under a clear blue sky. The foreground shows a stone-paved floor.

숲에 파묻힌 위봉산성은 풍요로운 광경을 내보인다.  
흙에 석문 사이로 산자락이 한눈에 잡힌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삼례역까지 3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KTX를 이용할  
경우 익산역이 가깝다.



이문희 대표는 철거하기 직전인 전북 고창 한옥의 솥을대문과 사랑채, 전남 무안 한옥의 안채를 가져와 소양고택을 세웠다. 원래 한옥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수백 년간 집을 지킨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사명을 더해 소양고택을 곡진히 보전한다.

물론, 관리가 녹록하진 않다. ‘플리커책방’과 ‘두베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이 대표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소양고택은 찬연하다. 솥을대문을 타고 넘어와 마당에 늘어지는 종남산의 운치를 누린다. 여기에 고택이 놓인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오성한옥 마을에서 개화를 준비해 온 망울이 있을 연다. 완주에 봄이 오고 있다.

#### 완주의 풍요로운 광경, 위봉산성

오성한옥마을의 연원을 찾아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위봉산성에 도착했다. 산성은 전북 전주로 가는 길목을 틀어막아 조선 태조의 어진과 실록을 안치한 경기전을 보호하고 유사시엔 경기전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쌓았다.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고려했을 테지만, 왕조 존속이 긴요한 목적이었

and Muan, Jeollanam-do Province. Lee Munhui, the owner of the house, is especially fond of *hanok*. She feels it is her calling to preserve the legacy of Soyang Gotaek, and does her best to maintain it in the best condition possible. Looking at how well-managed the house is, you would not know that Lee also runs a bookstore and a cafe, which by themselves keep her hands full. The splendid view of Jongnamsan Mountain is a constant reminder of how the house could not have a better location. Here, the signs of spring are clearly in the air.

#### Wanju's Mighty Fortress

Wibongsanseong Fortress is about five minutes away by car from Oseong Hanok Village. The fortress was built to block off roads heading to Gyeonggijeon in Jeonju, Jeollabuk-do Province, where the portrait of Taejo is enshrined. It was not only intended to protect the people,

#### 위봉산성

다. 현재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나 모든 시대는 나름의 과제를 성실히 완수하며 나아가고, 위봉산성은 자신의 시대를 묵묵히 드러낼 뿐이다. 어진을 봉안할 행궁을 갖춘 총길이 8.5킬로미터의 장대하던 산성은 곳곳이 허물어져 성벽 일부와 전주 쪽으로 낸 서문만 남았다. 서문 또한 문루는 온데간데 없고 윗부분을 둥글게 만든 홍예 석문이 적요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자 전주 판관 민영승은 태조 어진을 위봉산성으로 옮겨 봉안한다. 외세의 난을 피하려 백성을 모아 올린 위봉산성은 역설적이게도 폭압을 견디다 못한 백성이 들고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그 역사가 서린 산성은 오늘날 무성한 숲에 파묻혀 풍요로운 광경을 내보인다.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이 고즈넉하고, 슬쩍 고개만 돌리면 울창한 산자락이 한눈에 잡힌다. 원등산 자락과 위봉산으로 나뉘어 기슭을 오르는 성벽조차 아름답다. 산골곡에 맞춰 건축한 성벽을 내리밟아 나간다. 굽은 선을 그리는 길이 요동치는 듯 생생하고, 저기쯤 오성한옥마을은 여전히 종남산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역사가 흐른다.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완주 삼례읍으로 이동한다. 만

but also to maintain the royal lineage. The parts of the 8.5-kilometer-long fortress still standing today are the stone walls and the west gate facing Jeonju. The gate is missing the original gatehouse, and has only the stone archway. In 1894, Min Yeong-seung, the assist prefect of Jeonju, relocated the portrait of Taejo to Wibongsanseong Fortress following the collapse of Jeonju Fortress in a rebellion led by peasants. Originally built to protect the people, Wibongsanseong Fortress had ironically turned into a stage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walls are built to follow the mountain slope, and make for a quiet, peaceful walk with impressive views. Some distance away, Oseong Hanok Village sits facing Jongnamsan Mountain. History continues to resonate in the present. Next on the itinerary is Samnye-eup, in the upper region of Mangyeonggang River. Since a long time ago, the town has been known for its warm climate and fertile soil. These ideal

##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거점이던 삼례 양곡 창고가 완주 예술의 거점인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변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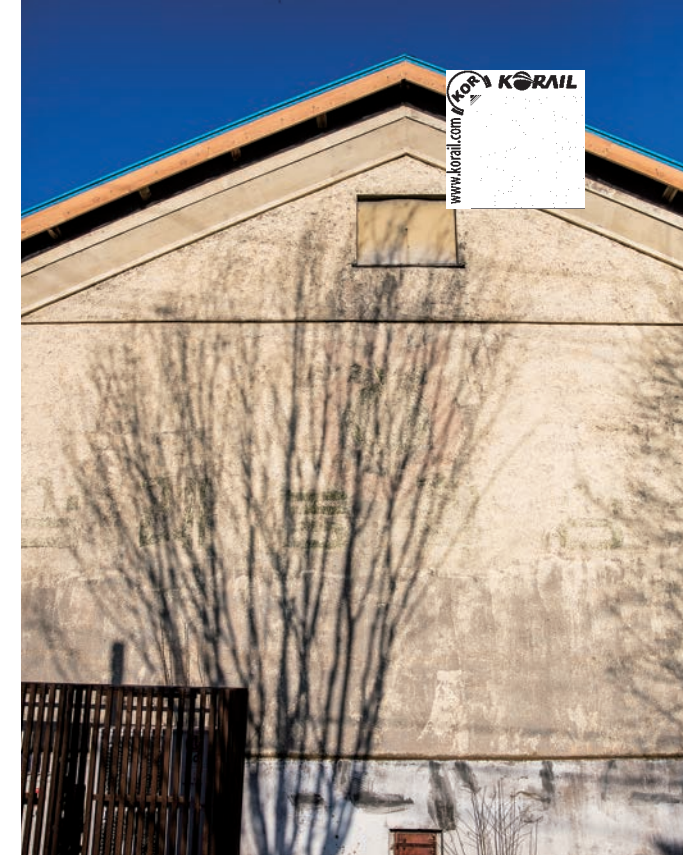
경강을 낀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해 예부터 넉넉한 땅이었다. 20세기 초, 한반도를 침범한 일제가 이런 삼례를 놔둘 리 없었다. 일제는 삼례 일대를 수탈 거점으로 삼았다. 현재의 삼례역인 보통역은 전북 군산으로 가는 수송 철도의 기점이었고, 만조 때 바닷물이 삼례에 밀려오면 배를 들어 곡식을 수북하게 담아 가져가기도 했다. 그 혹독한 세월의 흔적 중 하나가 삼례 양곡 창고. 해방 이후에도 운영되다 저장 기술이 발전해 쓸모를 잃고 2010년에 문을 닫았다.

기억은 무엇일까. 잊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삼례 양곡 창고는 2013년에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미술관, 극장, 문화 카페, 공방이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완주의 문화 예술 거점이 됐다. 내부를 채우는 것은 변화했지만 외관은 거의 그대로다. 우마차가 통행하도록 경사로를 붙인 출입문, 쌓이 썩는 걸 막으려 나무를 박아 바람길을 낸 벽 등을 남겨 두었다. 빼거덕대는 문을 여닫으며 여기저기 둘러보는 동안 옛일과 앞일이 전부 선연해진다. 이르면 3월, 삼례문화예술촌은 재정비를 끝내고 새롭게 돌아온다. 어제를 기억하기에 완주의 내일은 더 반짝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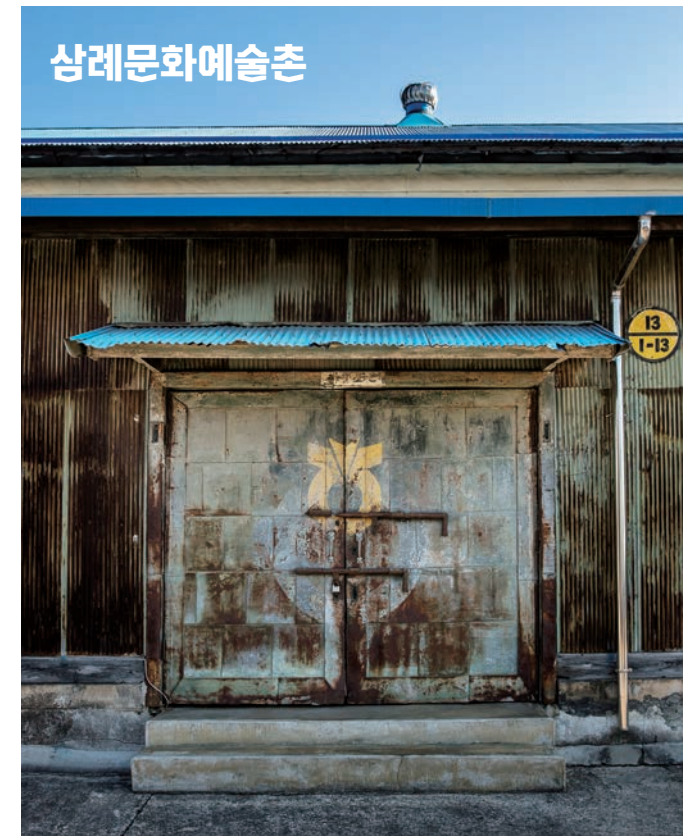
conditions caused Samnye-eup to be heavily exploit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One reminder of this painful past is Samnye Granary. It continued to be in business after Korea's liberation, and closed in 2010 when granaries became defunct due to advancements in grain storage technology.

In 2013, Samnye Granary was reborn as Samnye Culture Art Village. The museums, theaters, cultural cafes, and workshops have boosted its reputation as a must-visit for connoisseurs and art lovers. What fills the village is different from the past, but the exterior is almost the same as the olden days.

At the entrance, the ramp for horse-drawn carts still remains. You can expect to find interesting bits and pieces of history throughout the village. This year, Samnye Culture Art Village will reopen to visitors as early as March. Wanju will shine brighter tomorrow because it preserves the memories of yesterday.



2013년에 개관한 삼례문화예술촌은 미술관, 극장, 공방이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르면 3월에 재정비를 끝내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문의 070-8915-8121



헌책 10만 권이 차곡차곡 놓인 삼레책마을을 걷는다.  
완주의 내일을 빛어 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다.

완주의 오늘을 담은 삼례책마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도로를 건너니 바로 삼례책마을이다. 이 역시 양곡 창고를 활용한 건물로 책마을 센터, 북하우스, 한국문헌아카이브, 북갤러리가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겨우 몇 분 전에 삼례문화예술촌을 거닐었는데, 문자가 넘실거리는 책의 바다를 유영한다. 문화와 예술에 책까지, 별 품을 들이지 않고 모두 향유하는 공간이 고맙다. 삼례책마을의 중심인 북하우스에 들어서 빼곡한 책들에 인사를 건넨다. 박대현 관장은 1999년에 설립한 강원도 영월의 영월 책박물관을 2013년에 삼례로 이전했다. 고서 연구가와 수집가가 순례하듯 드나드는 서점 '호산방' 주인장으로서 고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해 온 그에게 삼례책마을은 마지막 도전이었다. 북하우스 한편에 호산방을 꾸리고 나머지 서가엔 수십 년 된 학술지를 비롯해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헌책 10만 권을 차곡차곡 꽂았다. 주민 10여 명이 수집한 책을 자신만의 공간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서점 협동조합 시스템도 고안했다. '한성책방'(문성준), '더불어숲'(이숙례), '오두막'(박대선)··· 책장에 달린 서점 명패를 읽는다. 각자 고르고 내어놓는 서적엔 저마다 삶의 이야기가 어렸을 게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책들 사이를 걷는다. 1층 북 카페에서 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 수탈한 양식을 보관하던 창고는 이제 완주의 오늘을 담은 중이다.



Samnye Book City, Finding Value in the Old

Just across the road from Samnye Culture Art Village is Samnye Book City. An old granary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transformed into the four complexes, including the Book House. With its vast selection of arts and books, the town of Samnye is a rich source of inspiration and creativity. Park Dae-heon, the owner of Hosanbang Rare Books, moved Yeongwol Book Museum from Yeongwol in Gangwon-do Province to Samnye in 2013. He formed Samnye Book City under a visionary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old books. Park opened Hosanbang Rare Books in one corner of the Book House, and stocked the other shelves with 100,000 old books, covering various topics from literature to history. He also came up with the co-op bookstore system, which gives residents a space to exhibit and sell their own collection. The carefully curated books by each resident show a different personality. The book cafe on the first floor is filled with the rustling sound of pages turning. Today, knowledge has taken the place of rice in this former granary.



삼례책마을은 책마을센터, 북하우스, 한국문헌아카이브, 북갤러리 등 네 동으로 구성된다. 북하우스 한편에서 고서점 호산방도 만난다. 문의 063-291-7820



## 꽃, 바람, 봄 그리고 완주

완주에선 해가 저물 때 비비정에 가야 한다. 비비정은 1573년에 건립해 1998년에 복원한 정자다. 쉬어가는 기러기 떼가 장관이어서 ‘비비낙안(飛飛落雁)’이라 불렀다. 낮은 언덕을 올라 비비정에 다다른다. 유유했던 만경강과 가없는 곳으로 달리는 평원이 이루어 헤아리기 힘든 안식을 안긴다. 서쪽에선 땅에 닿은 해가 남은 모든 걸 사르기 시작한다. 노을 번진 하늘이 붉게 물든다. 만경강 가장자리로 내려와 강바람을 맞는다.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았지만 이다음 계절을 당겨 오는 기분 좋은 바람이다. 겨울이 끝났다. 곧 망울들이 터지며 만발의 축제가 열린다. 완주의 꽃은 무척 예쁠 것이다. 움츠러드는 대신에 곡절을 딛고 일어난 이의 걸음걸이 같은 풍경일 테니까. 완주는 그러한 곳이니까. ☒

## Ushering in the Spring Season

If traveling in Wanju, a visit to Bibijeong around sunset is highly recommended. Built in 1573, and restored in 1998, the pavilion sit on a gentle slope. The sun has touched the horizon, and is just starting to dye the sky in shades of red and orange. A gentle breeze is blowing off the nearby Mangyeonggang River. It exudes a slight warmth, as though signaling the start of the coming spring. Winter has drawn to a close, and soon, new life will be blossoming all around. The flowers in Wanju are bound to be beautifully resolute, sharing the same unyielding spirit and determination of its people, just as we have witnessed throughout history. ☒

**일몰 무렵 만경강 변으로  
나가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  
완주에 봄을 당겨 오는  
기분 좋은 바람이다.**





## 완주의 또 다른 볼거리



###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

이 정도면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스럽다. 아이를 위한 체험장인 어뮤즈월드, 기념품 가게와 미술관이 들어선 아트플랫폼,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별빛동산, 문화를 가미한 스낵카페 등 오감이 즐거운 시설이 곳곳에 자리했으니 말이다. 2004년부터 방치된 제지 공장을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019년 문을 열었다. 공장 굴뚝이었던 33미터 높이 빨간 등대에서선 밤마다 불빛 쇼가 펼쳐진다. 문의 063-245-2456



### 비비정예술열차

철교를 달리는 열차를 촬영하고 싶으나 말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다. 완주에선 원하는 구도를 느긋하게 찾아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한다. 비비정예술열차 덕분이다. 전라선이 직선화되고 열차가 다니지 않는 만경강철교에 객차 네 량을 올려 두었다. 포토스팟인 것은 기본이고 1호차는 레스토랑, 2호차는 아트 스푼, 3~4호차는 카페와 테라스로 꾸며 그 자체로 훌륭한 여행지다. 문의 063-211-7788



###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금수강산이 좋아도 술이 없으면 적막강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만족스러워하겠다. 당연히 전시하는 유물도 흡족할 만큼 많다. 무려 5만여 점. 누룩 분쇄기같이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도구와 우리 술의 황금기라 일컫는 조선 시대의 술 관련 역사 전시물이 박물관을 메웠다. 전통주 빚기, 하우스 맥주 만들기 비롯해 술지킴이 쿠키·누룩 피자·막걸리 발효빵 만들기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문의 063-290-3847

## 완주의 맛있는 먹거리



### 비비정농가레스토랑

주인과 출항민이 힘을 합쳐 만든 착한 맛집이다. 비비정마을에서 생산하는 식재료를 구매해 육회비빔밥, 갈치조림, 아귀탕, 불고기주물럭, 버섯전골을 요리하며 수익금은 지역에 환원한다. 직원 역시 마을 어르신들을 채용해 ‘내마을을 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낸다. 이사장은 사단법인비비정 회원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4대 이사장인 박인환씨 또한 전임들처럼 회원의 뜻을 모아 마당을 예식장으로 무료 대여해 준다. 문의 063-291-8609



### 기양초

손님이 밀려들면 대강 만들게 될까 싶어 2006년 오픈 당시부터 지금껏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믿음직스러운 식당이다. 오직 건강한 음식을 선사하겠다는 신념을 우직하게 지키는 전해룡·전영자 대표 부부는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고 다슬기 부추 돌솥밥, 부추전, 닭 부추 백숙을 조리한다. 부부가 새우, 오징어, 멸치를 아낌없이 써서 담근 3년 숙성 액젓을 가미한 이 집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의 맛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문의 063-247-6667



### 원조화심두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완주 대표 식당으로, 권영선 씨가 60여 년 전에 지역 특산물인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팔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인근을 오가던 손님이 많다는 입소문을 내 명성을 쌓은 식당은 유회제나 소포제 같은 화학첨가물 대신에 천연 간수만 고집한다. 직접 재배한 콩을 주재료로 해물 국물과 바지락을 조합한 화심순두부가 단연 인기 메뉴. 곱빼기인 듯 푸짐하지만 한 그릇 딱딱 비울 만큼 맛이 훌륭하다. 문의 063-243-8952

전국  
우수 숙소  
완주



## 한옥에 깃든 전통과 미래

전북 완주 곳곳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과거와 내일을 함께 만났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한국관광 품질인증  
KOREA QUALITY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취재: 함포, 한국관광공사

080 081

## 마음이 환해지는 숲속 한옥 녹운재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깝고 먼 산과 담장 너머 숲의 정취에 감싸인다. 소리가 사라진 사위에서 따듯한 기운이 흘러들어 마음을 쓰다듬는다. 대문을 닫으며 주변을 살핀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잎이 녹색 구름 같다. 홀로 세상을 누리는 듯 아늑한, 온 세상이 안아 주는 듯 포근한 ‘녹운재’ 풍경이다. 정숙이 대표는 20대 중반까지 살았던 한옥이 그리워 동생과 함께 오성한옥마을 언덕에 터를 잡았다. 흙을 파내 평평하게 만들면 공간이 보다 넓어지겠으나, 땅을 훼손하지 않으려 경사를 그대로 둔 채 2단 회랑으로 나운채와 운아채를 이었다. 손님이 편히 쉬도록 모든 방에 황토를 발랐고, 나운채엔 세 면이 트인 누를 내 한옥 안에서 녹운재 풍경을 감상하도록 했다. 사군자 작가인 대표 자매는 한지 등불, 자수 작품을 곳곳에 놓았다. 누에 앉아 녹색 구름 같은 숲과 작품을 번갈아 바라본다. 마음에 쌓인 수선한 것들이 툭툭 떨어진다. 무엇을 보탬 필요 없이 완벽한 힐링이다.

### INFORMATION

주소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18 문의 010-4450-6565

홈페이지 [www.nocwoonjae.co.kr](http://www.nocwoonjae.co.kr)

주변 여행지 한옥 스텝세 채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오성한옥마을



### 숙소의 보물 1호



### 대표 자매의 어머니가 제작한 정장 커버

녹운재의 자수 작품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다. 대표 자매의 어머니가 만든 정장 커버다. 60여 년 전 결혼하며 직접 수놓은 것으로 오랜 세월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다.





## 한옥에서 만나는 한지의 모든 것 대승한지마을 한옥전통문화체험관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선다. 원등산 자락에서 날아온 새벽바람이 청명한 소리를 남기고 맞은편 산등성을 넘어간다. 동산 아래 늘어선 들을 따라 봄이 익어 가는 대승한지마을을 걷는다. 방금 스친 바람처럼 맑은 경관이 내내 따라온다. 자그마한 천, 마을을 휘도는 길... '대승한지마을 한옥전통문화체험관'에 묵길 잘했다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다. 최고 한지로 손꼽히는 고려지의 본산인 대승한지마을은 2015년에 한옥 숙소를 지었다. 화장실, 와이파이, 시스템 에어컨 등 현대식 설비를 두루 갖춘 객실 8개에 50명을 수용하는 세미나실, 농구장, 테니스장을 갖추었다. 이뿐 아니라 마을이 모두 즐길 거리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지 공예품 전시를 둘러본 뒤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승지관, 한지 의상과 공예품을 들여다보고 건조장을 구경하는 한지생활사 전시관을 포함한 시설들이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장한다.

### INFORMATION

주소 완주군 소양면 복은길 18 문의 063-242-1001  
홈페이지 [www.hanjivil.com](http://www.hanjivil.com)  
주변 여행지 위봉산성과 위봉폭포가 장관인 위봉산



숙소의  
보물 1호

### 한지 체험 프로그램

대승한지마을은 한지 체험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다. 고려지 원산지답게 전통 한지, 한지 액자, 한지 고무신, 연필꽂이 만들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한지 제조 과정을 직접 살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전통과예절 교육의장 행복드림한옥

두억행복드림마을에서 밀양 박씨 규정공파 재실로 쓰던 공간은 제사를 드리는 날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을 닫았다. 100년을 훌쩍 넘긴 한옥과 너른 마당, 명당으로 일컫는 경치가 조화로운 곳이다. 소수 인원이 1년에 하루 이틀만 방문하고 마는 게 안타깝다는 말이 나온대도 이상하지 않았다. 실제 문중은 곰곰이 생각했고, 역사와 운치가 깊은 한옥을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구성원의 뜻을 모아 2010년 무렵 숙소로 개방했다. 문중을 대신해 숙소를 관리하는 박종배 대표는 선조의 숨결이 생생한 장소이기에 '행복드림한옥'을 극진히 관리한다. 왓자지껄한 숙소이기보다 전통의 가치를 새기는 숙소이길 바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교육이 목적인 손님을 먼저 받는다. 과거 시험 체험을 비롯해 예절 교육 프로그램, 인근 밀양 박씨 유적이나 숲을 해설사와 돌아보는 걷기 프로그램을 마을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유다. 최근 객실을 단장하는 공사를 마쳐 더 안락한 시간을 보낼수 있다.

### INFORMATION

주소 완주군 용진읍 봉서안길 181-21  
문의 063-247-0050  
주변 여행지 완주에서 가장 많은 13종의 문화재를 보유한 송광사



### 숙소의 보물 1호



밀양 박씨 역사를 담은 사진  
봉서재와 세미나동 곳곳엔 과거 이곳에서 제사를 올리는 모습 등 갖가지 문중 행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걸렸다. 행복드림한옥의 보물인 동시에 손님에게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진귀한 볼거리다.



# 대게

## 구룡포의 참맛

대게 살이 차오르는 계절이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으로 김훈 셰프와 미식 여행을 다녀왔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달랑달랑.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중매인의 손짓이 은밀하고도 바쁘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포항 구룡포 앞바다는 생기가 가득하다. 청년 경제학도가 요리사라는 꿈을 안고 연고 없는 외국으로 훌쩍 떠난 것처럼. 호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출발한 4년의 여정은 영국 런던 미쉐린 1스타 '더 클럽 클럽',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쉐린 3스타 '퀸스'에 이르러서야 김훈이라는 이름 뒤에 셰프라는 이름을 나란히 붙게 했다. 70여 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를 맛보며 실력을 키운 김훈 셰프는 현재 서울 이태원동과 연남동에 타이 레스토랑 '쌈(ssap)'을 운영 중이다. 한국에 돌아온 후 2년 동안 오너 셰프이자 2만 6500 팔로어의 '먹스타그램머'로 활동하면서 쉽 없이 달려온 그가 대게 살이 여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산지로 미식 여행을 떠났다. 코로나19 시대, 생산지에서 주문한 재료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사한 요리를 구상해 볼 계획이다.

대게가 한창인 구룡포항

이 모습을 보려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한국 대게 최대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에 도착한 김훈 셰프가 바다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저 멀리 독도 근해에서 5박 6일간 조업을 마친 대게잡이 배가 항구로 들어온다. 풍어일까. 구룡포수협 잡어 위판장에 중매인이 하나둘 모여들고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배가 정박하자 수많은 선원이 대게가 가득 담긴 상자를 일사불란하게 위판장으로 옮기는 동시에 크기와 살이 여문 정도에 따라 바닥에 나열한다. 어부의 손놀림이 날래다. 도시 사람 눈에는 그 게가 그 게인데 대게를 잡고 보는 순간 상품성을 가늠해 분류한다. 하얀 배를 보인 채 드러누운 대게가 기다란 다리와 집게를 힘차게 움직인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대나무처럼 곧은 다리 때문에 대게다. 품질의 척도가 배라서 뒤집어 정렬한다. 껍질이 단단하면서 노르스름할수록 살이 짙어 있는데, 이를 박달대게라고 부른다. 박달대게 중에서도 유달리 크고 다리 10개가 모두 성한 것에는 한쪽 집게발에 푸른 완장을 채워 준다. 이 구역에서 최고 등급이라는 뜻. 가장 비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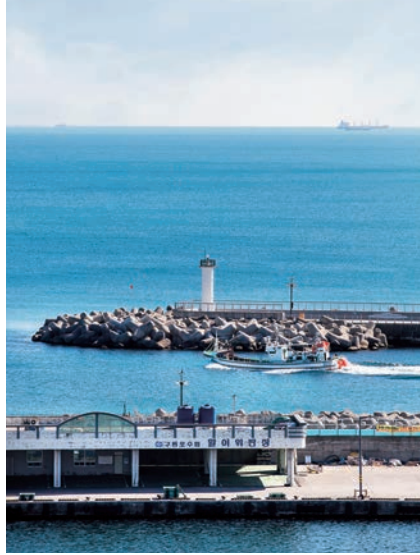
몸값을 자랑한다. 그 사이 위판장 한편에선 문어 몇 마리를 입찰하는 작은 경매가 열렸다. “가까이에서 봐야겠어요.” 한마디 남기고 사라진 김훈 셰프가 돌아와 신난 목소리로 말한다. “경매하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진짜 바다에 왔네요.” 딸랑딸랑.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번호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쓴 중매인이 경매사를 보고 줄을 맞추어 선다. 마치 대게를 가운데 두고 대치한 형국이다. “야문 거 야문 거~ 들~ 마리당” 박달대게 두 마리를 입찰하겠다는 뜻. 경매사가 대게 등급과 수를 알리자마자 중매인들의 손짓이 은밀하고도 바빠진다. 수신호로 경매를 진행하기에 중매인 모두 앞섰을 들어 가격을 제시하는 손이 보이지 않게 가린다.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 순식간에 낙찰되었는지 다음 열로, 그다음 열로 경매가 숨 가쁘게 진행된다. 오전 9시에 열린 경매가 늦게 끝날 때는 오후 한두 시까지 이어진다. 한참을 보아도 지루하지 않은 삶의 현장이다.

산지에서 직배송하는 싱싱한 대게

요리할 대게를 구매하고 맛볼 겸 항구에서 10분 거리인 ‘구룡포수협수산물판매장’으로 향한다.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낙찰한 대게를 바로 가져와 신선하다. 무엇보다 킬로그램당 시가를 표시해 두고 정찰제로 판매해 믿을 만하다. 요리에 사용할 대게를 고르는 김훈 셰프가 신중하다. 대게가 택배로 오는 동안 혹시 맛이 변할까 우려하는 눈치다. 옆에서 대게를 보여 주던 직원이 이야기한다. “박달대게는 살이 껍질에 찬 정도를 뜻하는 수율이 높아서 며칠 지나도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가정집에는 대게를 썰 만한 커다란 찜기가 없어 저희가 찌서 보내기도 해요.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서 찌니 먹기 더 편하죠.” 김훈 셰프 낯빛이 한결 편해진다. “한류성 어종인 대게는 온도에 민감해서 꼭 죽은 후에 찌시고요. 산 채로 넣으면 대게가 다리를 끊고 몸도 뒤틀어 맛있는 내장이 쏟아져요.” “그럼 큰 걸로 할게요. 요리 완성도도 더욱 높을 테니까요. 이제 맛도 한번 볼까요?” 2층이 식당이다. 20분 동안 찌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대게가 식탁에 올라온 후부터 식사를 마칠 때까지 김훈 셰프가 조용하다. 긴 침묵으로 대게 맛은 입증.

구룡포수협수산물판매장에서는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낙찰받아 가져온 대게, 문어, 가리비 등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다. 산지의 신선함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택배로 배송도 해 준다. 문의 054-276-1111





## 구룡포항은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수탈의 현장. 바닷바람은 여전히 서늘하건만, 구룡포 앞바다에 반짝이는 햇별은 따스하다.

### 발걸음 붙잡는 항구 풍경

배가 두둑하니 걸음이 여유로워진다. 여행을 좋아하는 김훈 셰프가 포항까지 와서 서울로 그냥 돌아갈 리 만무하다. 2019년 화제를 모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구룡포 거리를 가 보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포스터를 촬영한 계단에서 내려다본 구룡포항 풍경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구룡포 앞바다는 예부터 고래, 과메기, 오징어, 대게가 풍부한 어장이었다. 한적해도 인심은 넉넉하던 어촌이 급격히 변화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1923년 동해 최대 어업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항구를 만들면서 자리 잡은 일본인이 거리에 병원, 백화점, 요리점, 여관 등을 세워 상권을 형성했다. 우리 자원을 내어 주어야 했던 가슴 아픈 수탈 현장이다. 해방 후 스러져 가던 이곳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보존하고자 2011년 포항시가 나섰다. 그 시절 일본인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여 주는 이 거리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동시에 전한다. “처음에는 색다른 경치에 즐거웠는데, 알고 나니 숙연해지네요. 구룡포항의 속살을 둘러본 기분이에요.”

이대로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한 곳 더 들르기로 했다. 포항 사람도 잘 모른다는 주민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바로 구룡포 주상절리. 질푸른 바다에 검은 돌들이 조각품처럼 해변에 널렸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바다에 잠기는 부분에는 하얀 물빛이 남아 흑백의 조화가 멋스럽다. 가까이에서 보니 파도치는 물결을 걸걸이 새긴 듯하다. 실제로 이곳의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용암이 그대로 굳어 분출 지점과 장면을 연상케 해 특별하다. 여행 막바지에 김훈 셰프가 소감을 전한다. “사실 이런 형태의 주상절리가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경험한 게 많네요. 지역 이름으로만 만나던 해산물을 산지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며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원래도 귀한 대게가 더욱 값지게 느껴져요. 그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해 볼게요.” 마지막 다짐하는 말이 믿음직스럽다. 이제 그가 만든 대게 요리에는 구룡포의 애환과 활력이 깃들 테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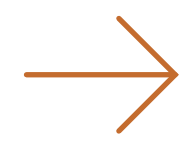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구룡포수협 위판장과  
항구 인근 풍경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게 찐 물로 라면을 끓이면 국물 맛이 더욱 시원해져요. 해장에도 좋지요.”



## Recipe



### 김훈 셰프의 구룡포 대게 요리 #1 뽕암대게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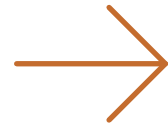
#### 재료

대게 1마리, 대게 찐 물 300밀리터, 뽕암 라면 1봉지, 코코넛 밀크 100밀리터, 고추기름 20밀리터, 토마토 1/4개, 달걀 2개, 붕 어묵 2개, 숙주·적양파·고수·라임 적당량

#### 만들기

- 1 ..... 달걀은 노른자만 분리하고 토마토, 붕 어묵, 고수, 라임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2 ..... 대게에 닿지 않을 정도로 찜기에 물을 붓고 20분 정도 찌다가 5분간 뽕을 들인다. 대게를 찌고 남은 물은 따로 둔다.
- 3 ..... 2의 대게 찐 물이 끓으면 뽕암 라면을 넣는다.
- 4 ..... 3에 대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넣고 익히다가 숙주를 올려 데치고 코코넛 밀크, 고추기름을 첨가한다.
- 5 ..... 그릇에 담고 토마토, 달걀노른자, 붕 어묵, 적양파, 고수, 라임을 곱명으로 올린다.

Recipe



김훈 셰프의 구룡포 대게 요리 #2

# 부팻뽕커리

**재료**

대게 1마리, 대게 찌든 물 400밀리터, 양파 1/2개, 마늘 2쪽, 코코넛 밀크 100밀리터, 달걀 3개, 홍고추 1개, 고추기름 15밀리터, 고수 20그램, 샬롯 튀김 30그램, 쪽파·식용유 적당량

**커리 소스 재료**

커리 가루 15그램, 설탕 5그램, 간장 15밀리터, 굴소스 10밀리터, 고추장 10그램, 후춧가루 약간

**만들기**

- 1 ..... 분량의 재료를 한데 섞어 커리 소스를 만들고, 재료는 알맞게 손질한다.
- 2 ..... 양파와 마늘을 식용유에 볶다가 커리 소스를 넣고 다시 볶는다.
- 3 ..... 2에 대게를 넣고 소스가 배도록 골고루 볶다가 대게 찌든 물을 붓는다.
- 4 ..... 미리 풀어놓은 달걀, 코코넛 밀크를 붓고 달걀이 익도록 저은 후 홍고추와 쪽파를 썰어 넣고 다시 한번 볶는다.
- 5 ..... 4를 접시에 담은 후 고추기름을 두르고 고수, 샬롯 튀김을 뿌려 완성한다.

“대게 특유의 향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커리의 특색을 배가합니다.”





# 다시 찾는 폐교

닫아걸었던 문이 열렸다. 문화 공간으로 돌아온 전국의 폐교를 소개한다.

글. 표다정



## 춘천\_오월학교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목수인 최상희 대표는 '이곳이면 아이들이 맘껏 뛰 놀고 소리치며 자연을 벗 삼을 수 있겠다' 싶었다. 1년 동안 폐교를 쓸고 닦아 카페와 레스토랑, 숙소는 물론 목공소인 오월나무창작소 같은 아이와 어른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세면대, 가로등, 조명까지 직접 제작해 곳곳에서 따뜻한 정성이 느껴진다. 문의 033-253-2111



## 신안\_세계화석광물박물관

전남 신안 지도 출신인 박윤철 씨가 평생 모은 화석과 광물을 지역 발전을 위해 기증했는데 그 수가 2100여 점에 달한다. 이것을 전시한 곳이 안좌도 '세계화석광물박물관'이다. 화석관과 광물관, 수장고로 나뉘며 전시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화석을 만난다. 어두운 데에서 빛나는 형광 광물은 볼수록 매력적이다. 문의 061-262-0230



## 당진\_아미미술관

봄이 오면 꽃잎이 흩날리고 여름이 되면 덩굴로 뒤덮이는, 사계절 내내 사람이 북적이는 '아미미술관'은 얼마 전까지 폐교였다. '아미'라는 이름을 붙여 미술관으로 오픈한 지 10년 되었다. 이를 기념해 그림책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고정순·김선진·조미자 작가를 초대해 <그림+책> 전시가 3월 31일까지 펼쳐진다. 문의 041-353-1555



## 창원\_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

구암중학교 체육관이 창원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거쳐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독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층 복합 도서 문화 공간에는 높이 10미터 천장까지 약 10만 권의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다. 책 사이로 울려 퍼지는 음악 공연, 인문학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산지혜의바다'를 더욱 알차게 한다. 문의 055-252-3860



## 찰랑이는 머릿결을 위한 완벽한 선택!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도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 하나면 머릿결은 물론 두피, 피부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 나노이™와 더블 미네랄로 매끄러운 머릿결 완성

건강한 두피에서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자란다. 나노 입자와 더블 미네랄 이온을 공급하는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은 피부를 한층 탱탱하게 만들고 모발을 아름답게 가꾼다. 더블 미네랄이란 두 개의 아연 전극에서 생성된 미네랄 이온을 말한다. 나노 입자와 더블 미네랄 이온은 모발은 물론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 큐티클을 단단하게 닫아 자외선에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한다.

### 특수 모드 기능으로 모발, 두피, 피부를 한번에 관리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의 다양한 기능은 모발, 두피, 피부를 일상에서 손쉽게 케어하게 돕는다. 약 50도 온도로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보송보송하게 말리는 두피 케어 모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보습감을 선사하는 스킨 케어 모드, 모발에 윤기를 더하는 고온·저온 교대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특히 센서가 주변 온도를 측정해 바람 온도를 알맞게 바꾸는 스마트 온도 조절 모드는 사용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젖은 머리카락을 두피 자극 없이 말리는 데 효과적이다.

### 인체 공학적 설계와 실용적인 디자인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은 관리하기도 간편하다. 화장지로 닦을 수 있는 방진 사양의 필터,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바람 온도를 조절하는 멀티 모드, 부드럽게 조작되는 슬라이딩 스위치, 원하는 공간에 보관하기 쉽도록 접히는 손잡이 등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색상은 핑크 한 가지이며, 가격은 17만 9000원이다.

구입 문의 02-542-8452

# 얇은 시간을 관통하는 내공 깊은 경치

경남 거창 우두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열반의 경지에 이른 풍경을 보았다.

글. 신준범 사진. 주민욱(이상 월간 <산> 기자) 진행. 김규보

거창



졸린 눈이 뜨였다. 별이 잘 드는 너른 들판 뒤로 카리스마 넘치는 바위 산줄기가 뻗었다. 바위 능선의 변주를 눈에 담는 것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토록 잘 생긴 산일 줄 몰랐던 것. 불끈 솟은 능선엔 강함과 부드러움이 묘하게 어우러져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이 들떠 올랐다. 특 건드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고백해 버릴 것 같은 순진한 사내가 산에 들고 있었다. 명분으로 보아서 3월 산행지로 우두산만 한 산이 없다. 신축년 흰소의 해, 산세가 소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우두산은 새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산행지로 제격이다.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를 기점으로 마장재로 올라 정상과 의상봉을 거쳐 원점 회귀할 계획이다.

## 능선마다 밀려오는 파노라마

산 입구가 지나치게 깔끔하다. 지하부터 지상까지 층층이 나뉜 주차장과 말끔하게 지은 관리사무소. 거창군 관계자임을 알리는 형광 조끼를 입은 이들이 삼엄하게 입구를 지킨다. 행여 산행이 금지되었나 싶어 물어보니, 체온 체크와 명부 작성을 한 뒤 산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익숙한 손길로 배낭을 메는 청춘 남녀는 연세산악회 재학생 최동혁·최수연 씨다. 최신 휴양림 시설이 눈에 띈다. 거창군에서 큰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다. 자연휴양림과 숲치유센터를 결합한 시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텍 길을 따라 마장재 방향에 든다. 해발 500미터에서 주 능선 850미터까지 고도를 높이는 길, 별떡 선 산세와 달리 산길은 완만하다. 계단이 늘어나자 눈앞에 다가서는 우두산 최고 명물, Y자형 구름다리다. 구름다리 세 개를 연결한 알파벳 Y 모양의 출렁다리로 우두산을 대변에 전국 명소로 끌어올렸다. 바위산 지능선을 연결한 붉은 난간의 구름다리는 그 모습 자체로 경이로워 누구든 사진을 찍게 한다. 바위산의 화려한 산세와 독특한 다리 모습이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을 내어 준다.



멀리 가조면 들판이 손바닥만 하게 드러나고, 코로나19가 수그러지면 색다른 경치를 즐기려는 이들로 인기를 끌 것 같다. 계곡을 따라 난 산길을 꾸역꾸역 오르자, 이윽고 소나무와 억새가 성성한 주 능선이다. 경치가 터진 곳이 많아 참고 오른 뒤 맛보는 열매가 더욱 달콤하다. 가야 할 능선 길, 어지간한 국립공원은 명함도 못 내밀 수려한 암릉 줄기가 어서 오라 손짓한다. 놀이공원에 입장한 듯, 행복한 능선 종주의 시작. 능선을 오르내릴 때마다 섭섭잡게 펼쳐지는 새로운 파노라마에 걸음걸음이 즐겁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놀라운 바위 거인이 늘어나고 저마다 한 세상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은밀히 힘을 과시한다. 거친 산세에 비해 산길은 의외로 잘되어 있다. 위험

\* '건강 여행'은 월간 <산>과 제휴한 칼럼으로 '봄꽃 산행'을 재편집했습니다.



## 작은 역에서는 느리게

글. 김현정 사진. 이규열

경북 군위 화본역은 시름, 낭만을 닮았다.  
여행한 모든 순간이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았다.



# 작은 역에서는 느리게

글. 김현정 사진. 이규열

경북 군위 화본역은 시름, 낭만을 닮았다.  
여행한 모든 순간이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았다.



기차에서 내리자 납작한 승강장 옆으로 그림엽서 같은 역이 서 있고, 먼 데서 산이 너울거린다. 높은 것은 하늘뿐, 시야를 휘방하는 건물이 없다. 몇 시간 전 출발한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여행자를 고요하고 예쁜 세상에 옮겨다 놓은 기차는 우렁찬 소리로 인사하며 제 갈 길을 떠난다. 아, 여행을 왔다. 소실점 저 어디쯤에서 아스라해지는 기차길, 옛 모습을 간직한 작은 역.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모르고 우연히 들른 사람이라도, 내가 이런 곳을 보고 싶어 했구나 감탄할 만한 풍경이 펼쳐진다. 팔공산, 조림산, 매봉산 등이 꽃잎처럼 겹겹이 감싼 가운데 피어난 경북 군위 화본역이다.

어여쁜 옛 모습을 간직한 기차역, 화본역

오늘날 눈에는 귀여울지언정 중앙선 화본역은 한국 여러 기차역과 마찬가지로 빛나는 왕년을 지냈다. 중앙선 개통을 앞둔 1938년 12월 1일 한 신문은 시승을 한 뒤 “놀란 주민들은 낮이 빠진 듯이 괴물을 바라보고서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사 속 괴물은 당연히 기차다. 목적지가 어디든 절대다수가 걸어서 이동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 속도가 말이던 시절, 수많은 인원을 태우고 시속 50킬로미터로 달리는 기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뾰족한 삼각 박공지붕이 정겨운 화본역은 1936년 완공하고 1938년 문을 연다. 대구·경주 등 큰 고장이 성큼 가까워졌고, 매달 2·7일 영천에 장이 서는 날에는 열차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차가 도시 간 경계를 넘나드는 거의 유일한 발이었으니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 1970년대 화본역 승하차객은 연간 평균 14만 명을 헤아렸다. 과거에도 예쁘기로 이름났는지, 1954년 전국 기차역 미화 작업에서 1등에 오르기도 했다. 역무원들이 지계에 흠을 저 날라 화단을 가꾼 결과였다고 한다. 화본역은 화본리의 번영과 영광을 대표했다.

승객은 줄었으나 장소는 기억한다. 화본역 조그만 대합실은 여전히 승객을 맞는 ‘현직 대합실’이자 추억 저장소다. 드르륵 옆으로 여는 나무문에 격자무늬의 나무 천장, 딱딱한 나무 의자가 친근하고 한쪽 벽에는 옛 사진을 게시해 두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군위 화본역까지 3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한 명씩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곡선의 인체 구조도 고려하지 않은 이 ‘불친절한’ 나무 의자의 다정함을 생각한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가 고단한 몸을 쉬었을 것인가.





군위는 <삼국유사>를 쓴 승려 일연의 고장이다. 화본역과 함께 번영한 화본마을은 <삼국유사>를 테마로 곳곳을 단장해 놓았다.



전국에 20여 개 남은 급수탑 중 하나가 화본역에 있다. 급수탑 내부를 공개하는데, 예술 작품을 설치해 볼거리를 더한다.





었다. 파란색 비둘기호에 탑승하려 커다란 짐을 이고 지고 들고 끌고 가는 사람들 모습에 마음이 찡하다. 우리의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 손주 먹이겠다고 종종걸음치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다.

벽을 따라 죽 둘러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한 명씩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곡선의 인체 구조도 고려하지 않은 이 '불친절한' 의자의 다정함을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이가 고단한 몸을 쉬었을 것이며, 반가운 이를 만나 안부를 물었을 것이며, 타지로 공부하러 또는 돈 벌러 떠나는 가족을 배웅하고 눈물을 닦았을 것인가. 이 의자가 그런 의자다. 저 밖의 승강장이 그런 승강장이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 광재구 시인의 아름다운 시 '사평역에서'가 떠오른다. 대도시 거대한 역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정서. 예전 모습 그대로인 역에는 다양한 인생의 기쁘고 슬픈 이야기, 만남과 헤어짐, 떠남과 귀환의 애뜻하고 풍부한 서사가 녹아 있다.

철길을 가로질러 급수탑에 들어가는 경험 또한 화본역이 준비한 선물이다. 1930년대 말에 지은 높이 25미터, 지름 5미터의 대형 급수탑은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는 데 필수인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1967년 증기기관차가 은퇴하고 전국 대부분 급수탑을 허물어 이제 남은 게 20여 개, 화본역 급수탑은 내부를 공개하는 점이 특별하다. 전설의 동물 기린상과 나비 떼, <삼국유사>를 팔 밑에 받치고 밖을 내다보는 소녀상 등 작품을 설치해 볼거리를 더한다.



이제 기차는 들성들성 다니나 역에는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대합실에 비치한 역무원 모자를 쓰고 사진 찍는 사람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을로 나선다. <삼국유사>를 쓴 승려 일연의 고장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화본마을은 <삼국유사>를 테마로 집과 담벼락을 꾸몄다. 어느 집 담에는 주민을 새겼고, 어느 집은 기다란 용 조형물이 담을 넘어 대문 위까지 박력 넘치게 이어진다. 문 앞은 초등학교 교실 칠판에는 누가 누가 왔다 간다, 누구야 사랑한다는 여행객의 낙서가 미소를 자아낸다. 좁은 골목은 구석구석 한결같이 깨끗하다. 서로 미루지 않고 스스로 단장해 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착한 얼굴을 마주한 듯했다.

나만의 숲을 찾아, <리틀 포레스트> 혜원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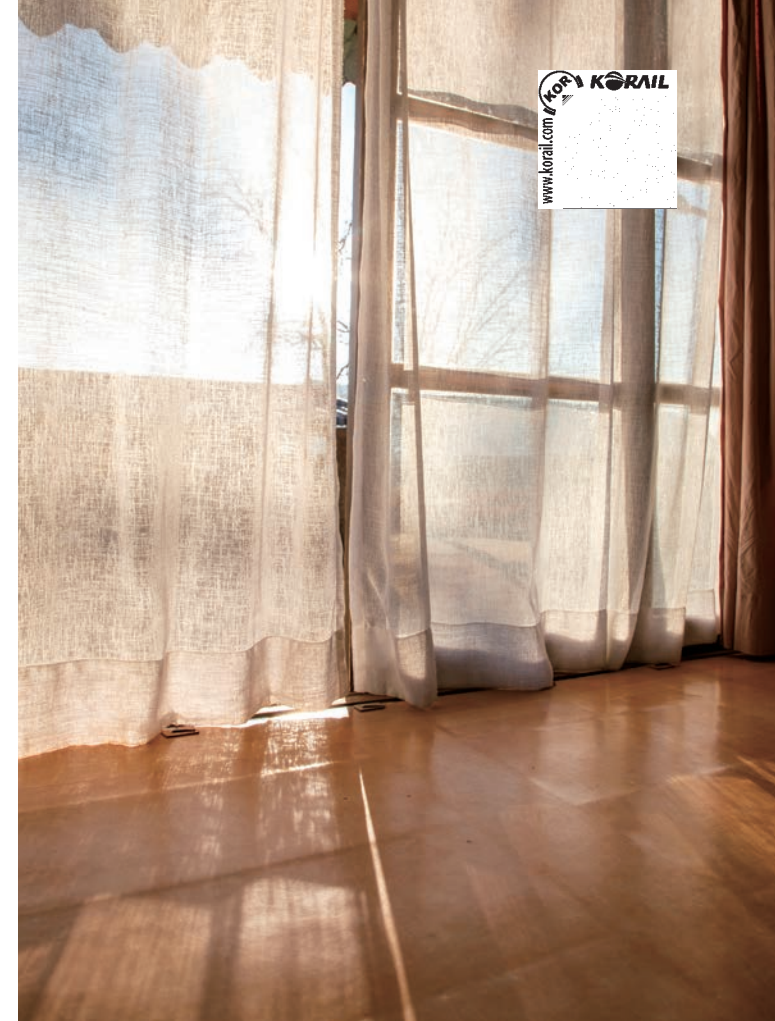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화본역과 영화 <리틀 포레스트>  
혜원의 집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본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혜원의 집'이 있다. 지친 청춘이 서울을 떠나고 향시골에서 나만의 요리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 주인공 혜원도 어쩌면 무궁화호를 타고 화본역에 내렸을지 모른다. "배고파서",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향에 돌아온 그는 땅속 배추를 캐 국을 끓이고 감을 따 곱감을 만들고 감자빵을 굽는다.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면서도 손에 흙 묻힐 일은 커녕 흙과 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볼 틈도 없이 끼니라고는 대충 옥여넣기가 다반사인 관객에게 영화는

혜원의 집 마당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나선 길,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간지러워 웃음이 나온다.  
오늘 이 순간을 나의 작은 숲에 저장한다.





물었다. 안녕하냐고, 괜찮으냐고. 사느라 힘을 소진해 요리조차 귀찮은 관객에게 영화는 속삭였다. 그래도 잠시만, 지금 당신이 어려운 거 알지만 일단 잘 먹고 잠시만 쉬자고.

이런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제작진이 3개월여 전국을 뒤흔 끝에 선택한 촬영지가 군위 우보면 미성리다. 자연과 호흡하고, 자연에서 땀 흘리고, 가끔은 자연의 매운맛도 보고, 그렇게 자연을 만끽할 만한 곳이다. 낮은 산이 뒤를 안아주고, 앞에는 얇은 개울 건너 논밭이 펼쳐진다. 혜원에게 초대받은 양 신발 벗고 들어가서 집을 구경한다. 부엌에는 재료를 담은 병까지 세심하게 놓아두어 영화 장면을 연상케 한다.

마루에 앉아 혜원의 움직임을 그린다. 공들여 요리하고, 꼭꼭 씹어 먹고, 친구를 불러 음식을 나누고, 장작을 패고, 처마에 감을 매달고, 밭에 감자를 심은 그 행동들. 사계절 비슷비슷한 메뉴를 파는 편의점과 달리 자연은 그 철에만 가능한 재료를 내놓는다. 자연을 밥상에 불러오는 데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나 어차피 삶이란 크고 작은 노력의 연속. 혜원은 대량생산해 남 눈에 그럴싸하게 진열한 음식 말고, 나만의 요리 같은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혜원의 '리틀 포레스트'였다. 아, 나는 뭘 하고 있지? 내 숲은 뭐지?

마당의 자전거가 눈에 띈다. 누구나 이용하도록 비치한 자전거에 올라 논길을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촬영한 혜원의 집은 누구나 방문하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 촬영 당시 현장을 보존·재현해 영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을 선사한다.

누비니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간지러워 웃음이 나온다. 봄이 코앞에 다가온 계절, 눈발은 햇볕을 양껏 쬐고 저쪽으로는 기차가 지나간다. 완벽한 그림이다. 오늘 이 순간을 나의 작은 숲에 저장한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질문하는 삶은 질문하기 전의 삶과는 다른 길로 이끌 터다.

#### 작은 역이 선물하는 봄별 같은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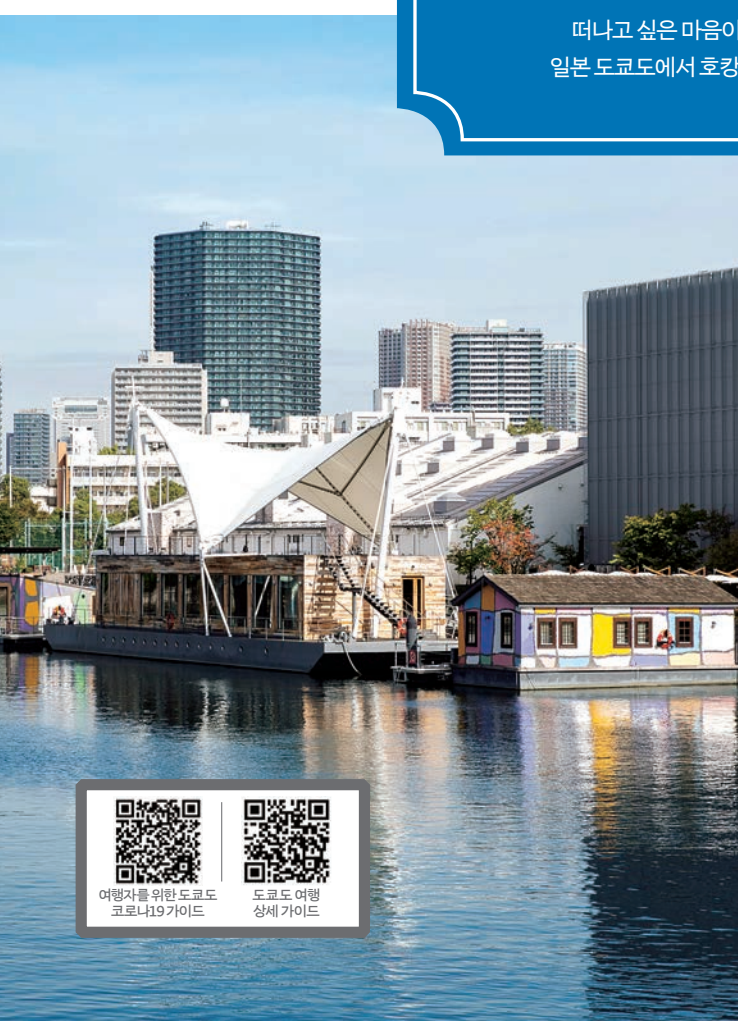
하루 치 임무를 마친 해가 능선 밑을 향하는 즈음, 다시 화본역 승강장에 선다. 승강장 중앙과 철길 옆에 심어 놓은 나무도, 역명을 궁서체로 표기한 흰 표지판도, 세월과 함께 낡아가는 칠 벗어진 벤치도 사랑스럽다. 수많은 시와 소설이 노래한 바로 그 기차와 기차역이 여기 있다. 대도시 으리으리한 역이 잃어버린 장면을 화본역 덕분에 추억한다. 심지어 어느 장면은 현재진행형이다. 친절함 역장님은 열차가 설 때마다 챙겨서 손님을 마중하고 배웅한다. “몇 호차에 타세요?” “4호차예요.” “4호차는 저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음에 봄별이 드는 듯 따스해진다. 청량리행 기차는 출발하고 몇 분 뒤 혜원의 집을 지나간다. 차창 밖으로 혜원의 집이 보이자 군위에 아는 친구가 생긴 기분이다. 고향이 아닌데 고향 같다. 하루 여행인데 그새 정이 들었다. ☑

프로모션



## 쉬고 싶은 날에는 호캉스 호강

떠나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오른 요즘  
일본 도쿄도에서 호캉스를 즐길 호텔을 찾았다.



여행자를 위한 도쿄도  
코로나19 가이드



도쿄도 여행  
심세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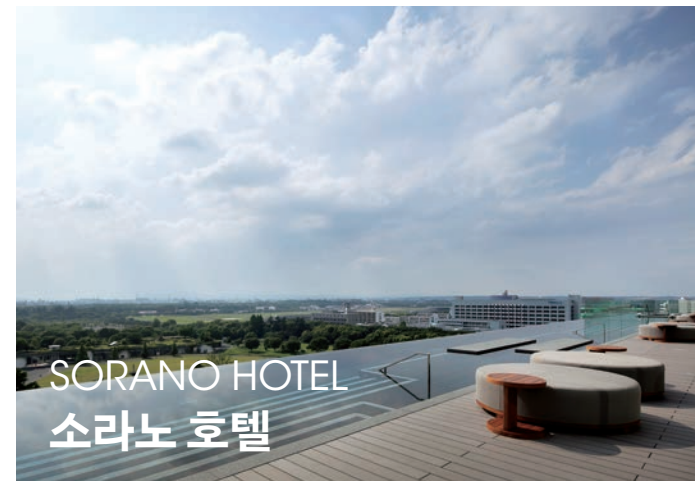
## Hotel Chinzanso Tokyo 호텔 진잔소 도쿄

도쿄 중심부라 믿기 어려울 만큼 푸른 자연에 둘러싸인 '호텔 진잔소 도쿄'는 실제로 오랜 역사를 지닌 정원에 자리 잡고 있다. 예부터 동백을 비롯해 다양한 꽃과 나무가 우거져 '동백 산'이라 부르던 언덕 지형을 그대로 살려 건물을 짓고 정원을 가꾸었다. 유서 깊은 정원에는 히로시마현에서 옮겨 온 삼총탑, 수령 500년의 신목, 경신탑, 나한석, 칠복신 등 수많은 유적이 자연의 역사의 향기를 더한다. 입지가 좋은 호텔은 뷰 또한 으뜸이다. 도쿄 동과 도쿄타워가 바라보이는 시티 뷰, 물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가든 뷰 가운데 어느 쪽을 골라도 만족스럽다. 호텔이 마련한 두 가지 특별한 행사는 꼭 주목해야 한다. 먼저 '도쿄 운해'. 드넓은 정원에 안개를 조성해 나무들이 마치 바다에 뜬 섬처럼 몽환적 느낌을 자아낸다. 하루에 몇 분씩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해



선보이는 안개는 날씨가 태양의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2008년 시작한 '천 가지 빛의 라이트 업' 프로그램 또한 12년 만에 리뉴얼했다. 1000여 개 등이 밤의 정원을 그윽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밝혀 눈길을 사로잡는다. 정원 내 가옥을 개조한 석식 요리 레스토랑,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테라스 카페 등 다양한 맛집도 매력 포인트. 머무르는 시간이 그대로 여행이고 힐링이 된다.

[www.hotel-chinzanso-tokyo.com](http://www.hotel-chinzanso-tokyo.com)



## SORANO HOTEL 소라노 호텔

도쿄도 내 다치카와시의 3.9헥타르(약 1만 1800평) 대규모 복합 시설 '그린 스프링스'. 35개 이상의 쇼핑 시설과 미술관 등이 모인 단지 내에 '소라노 호텔'이 2020년 6월 8일 오픈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생각하여 계획한 마을은 그 안에서 휴식과 사색, 일상과 문화 예술 향유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호텔 앞이 공원이라 81개 전체 객실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가장 작은 방 크기가 52제곱미터(15.73평)라는 점에서 이 호텔의 넉넉함이 느껴진다. 자연에 안긴 듯 편안한 호텔은 세계 최고 품질의 형가리산 마더 화이트 구스 침구까지 갖추어 "폭 자고 싶어 소라노 호텔에 묵는다"라고 재방문하는 손님이 많다. 최상층인 11층 인피니티 풀은 여행자의 로망을 현실에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면 너머 하늘이 무한히 펼쳐지는 풀이 인생 사진



을 약속한다. 10층의 인도어 스파도 꼭 경험해야 한다. 고온의 수증기가 답답해 스파를 선호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빗방울의 10만~2만 분의 1 크기인 초미립자 스팀을 분사, 내부가 쾌적하면서도 시원하게 땀을 배출해 주는 나노미스트 사우나도 있다. 로컬 재료를 사용한 레스토랑은 정갈한 미식의 정수라 할 만하다. 미용과 건강,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 호텔에서 심신이 진정한 웰빙을 누리다.

[www.soranohotel.com](http://www.soranohotel.com)



PETALS TOKYO  
페탈스 도쿄

운하 위 작은 배에서 낭만을 즐긴다. 전통과 현대 문화가 만나는 시나가와주쿠 지역에 인접한 '페탈스 도쿄'는 덴노즈 운하에 떠 있는 수상 호텔이다. 운하 걸을 거니는 것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할 뷰를 이 호텔에 머물면서 바라본다. '페탈스(petals)'는 꽃잎이라는 뜻. 운하에 살포시 들어앉은 색색의 배가 마치 연꽃 같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곳은 강과 바다의 교차로인 호텔 위치처럼 도쿄와 세계를, 도시와 자연을 이어 준다. 네 척 배는 서로 다른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했는데, 모든 객실의 인테리어와 뷰가 감탄스럽다. 모던함과 스타일리시함을 콘셉트로 한 페탈1에서는 다이내믹한 운하 뷰가 펼쳐지고, 우아함과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페탈2는 차분한 인테리어에 동그란 작은 창이 승선 느낌을 만끽하게 하며 루프톱 테라스를 갖춘 차밍&코지 테마의 페탈3, 프



라이팅한 시간을 원하는 손님에게 맞춤형 클래식한 분위기의 페탈4도 머물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참고업으로 시작해 보존·보관의 가치에 주목, 문화 예술을 접목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기업 '테라다 창고'의 야심작이다. 주변에는 현대 예술 뮤지엄 'WHAT', 예술 복합 시설 '테라다 아트 콤플렉스' 등 문화 예술 시설이 즐비하다. 호텔에 숙박하면서 운하를 산책하고 문화까지 누리는 최적의 장소다.

[www.terrada.co.jp/ja/service/space/petals-tokyo](http://www.terrada.co.jp/ja/service/space/petals-tokyo)



MUJI HOTEL GINZA  
무지 호텔 긴자

도쿄를 상징하는 상점 지역인 긴자는 오랜 역사의 화려한 백화점부터 나만 알고 싶은 작은 맛집까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곳이다. 이런 중심가에 '무인양품'이 중국 선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호텔 '무지 호텔 긴자'를 열었다. 일본에서는 첫 무지 호텔이다. 이곳은 '상표를 배제한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이름처럼 가구, 의류, 생활 소품, 식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거의 모든 제품을 내놓는 무인양품의 가치를 재현한다. 군더더기 없는 공간에 무지 제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최소한의 삶, 적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성찰하게 한다. 10층 건물의 7층에서 10층이 객실이고 그 아래는 무인양품 상점이라 쇼핑하기 편리하다. 상점과 호텔을 잇는 6층은 이 호텔의 철학을 보여 주는 공간. 로비와 함께 갤러리 두 곳, 살롱, 도서관을 운영해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비우고 채우는 경험을 하도록 기획했다. 직원이 정기적으로 각지에 여행을 떠나 생산지 음식을 음미하고 재료를 섭외하는 레스토랑 'WA' 또한 6층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호텔 내부의 나무, 흙, 돌은 대부분 이전 건물의 폐자재나 과거 긴자를 달리던 전차 철길 자재를 재활용했다. 이 거리의 추억이 호텔 건물에 녹아 있는 셈이다. 러닝웨어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니 여행 가서 현지인처럼 지내기도 좋겠다.

[hotel.muji.com/ginza](http://hotel.muji.com/ginza)

## 줄기세포로 맞이하는 두 번째 청춘

탁월한 항노화 효과를 발휘하는 줄기세포 치료로 젊음을 되찾아 보자.

"젊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는 대다수 중·노년층이 하는 말이다. 젊은 시절 튼튼한 체력과 활기가 나이 들수록 소실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화를 늦추려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서서히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럴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줄기세포를 통해 젊음을 재충전하는 것이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분화를 촉진해 체력과 활력을 동시에 증진한다. 노화 시계를 늦춰 주는 작용이다.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 원장은 "줄기세포는 체력 증진은 물론 외모 개선, 성 기능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 특화 의료기관으로 청셀·성셀·미셀·모셀·활셀 프로그램을 구축해 개인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기초 체력, 면역력 높여 주는 '청셀'

요즘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의 체력은 나이를 속이지 못한다. 외모 나이에 걸맞은 체력을 기르고 싶다면 자신의 줄기세포를 고농축해 링거로 주입하는 '청셀'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자. 고농축 줄기세포는 항노화·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 청셀 프로그램은 반나절 만에 치료가 마무리돼 부담이 적다.

### 청춘의 열정 되찾아 주는 '성셀'

중·노년층은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위축된다. 이 경우 '성셀'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성셀은 갱년기 이후 성 기능이 감소한 남성과



여성을 위한 치료다. 각각 음경 해면체와 질 내에 줄기세포를 주입,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성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남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발기력과 음경 강직도가 저하되는데,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혈관이 생성되고 혈류가 증가해 원활한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흔하게 겪는다. 조 원장은 "질 내에 줄기세포 주입 시 혈류가 개선돼 성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 시간의 흔적을 지우는 '미셀' '모셀'

줄기세포는 미용 목적 치료에도 활용된다. '미셀' 프로그램은 노화로 얇아지고 잔주름이 잡힌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개선한다. 고농축 줄기세포를 피부에 일정 간격으로 주사하면 피부 진피층에서 사이토카인 성분이 활성화되어 피부 미용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탈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줄기세포가 모발의 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모낭이 생기도록 돕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부쩍 늘어났던 것 같다면 '모셀'을 추천한다.

### 튼튼한 관절을 위한 '활셀'

'활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돕는 줄기세포 통증 관리 치료다. 통증 부위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해 약해진 연부 조직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와 자가 조직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핵심이다. 재생력을 높여 통증을 줄이고, 프롤로 치료로 문제 부위를 강화한다. 주사를 쓰기에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발목 같은 관절 부위에 적용 가능하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 게티이미지코리아



## Baekje Tile with Divine Landscape Design

The tile with divine landscape design, excavated from a site in Oe-ri, Buyeo, is said to be the origin of ancient landscape paintings for its pictorial elements such as mountains, trees, sky, water, pavilions, and people. The sky is filled with clouds, the three-peaked mountains are surrounded harmoniously by rocks in the middle, and a stream flows at the bottom. There are pine trees on the peaks, and someone is walking by the pavilion at the foot of one mountain. The tile has smooth, gentle curv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Baekje art, and stands out with its lyrical atmosphere and dimensional arrangement. As you admire the elegant landscape, you will be taken about 1,400 years back in time. The small square, measuring only 29 centimeters on each side, is in fact a door to the ideal world as imagined by the people of Baekje. 

Special Exhibition *Splendid World of Designs on Baekje Tiles* at Buyeo National Museum  
Runs through May 30, 2021  
For inquiries, contact 041-830-8478

# culture

122

욕망과 희망의 조각가 권치규

134

유튜브로 무대를 옮긴 희극인

142

혁신의 예술로 재탄생한 프랑스 낭트



권치규 'Bio-Resilience - 이수목 2020'



## 욕망과 희망 사이

조각가 권치규는 사람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안에서 발견한 욕망과 희망을 조각으로 옮겨 냈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봄이 오면 겨우내 메말랐던 가지에 하나둘 싹이 나기 시작한다. 눈 깜짝할 사이, 울창해진 나뭇가지가 산들바람에 너울거리며 안부를 건넨다.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봄이 온다. 누군가는 이런 자연의 흐름을 예사롭게 넘기지만 조각가 권치규는 그러지 않았다. 그에겐 분명 대수로운 일이었다. 그는 자연이 지닌 힘에 집중했다. 웅크렸다가도 금세 일어나는 능력,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작품에 불어넣었다.

성인 남성 평균 키를 훌쩍 넘는 약 2미터 높이의 타원형 나무 조형이 옹기종기 모여 숲을 이룬다. 권치규 작가가 지난해 12월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선보인 '숲' 시리즈의 '서정적 풍경'이란 작품이다. 미루나무를 본뜬 나무 조형을 가까이 들여다봤다가 어느 틈엔 멀리 떨어져 감상한다. 검정과 초록, 연두색이 어우러진 나무 조형은 빛과 각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두웠다가도 반짝 빛이 난다. 특히 단단한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을 닮은 어여쁜 연두색이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차가운 재질의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했음에도 온화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유다. 권 작가는 색이란 정체성이고, 연두색이야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색이라 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데다 4월생이에요. 사람도 자연처럼 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봄에 태어나서인지 이때 기운이 가장 좋아요. 봄의 전령인 새싹은 연두색이잖아요. 저를 나타내기에 이만한 색이 없어요."

#### 희망의 기운으로 완성한 조각

경북 상주의 한 시골, 소년 권치규는 일찍이 미술에 재능을 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미술부가 유명한 함창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서울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물론, 그 안에 치열한 시간이 있었음은 당연지사다.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싶던 그는 꿈을 꾸고 이루고, 또 다른 꿈을 꾸는 일을 반복했다. 끊임없이 열정하고 성취했다. 그에게 목표란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 그 결과 대학 졸업반인 1991년과 1992년엔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특선,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한 해인 1996년엔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등 굵직한 상을 받았다. 그 당시 주요 일간지 1면에 날 만큼 권위 있는 상이다.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건설한 방법으로 발산해 온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욕망을 키워드로 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다. 고무줄, 라텍스 고무판 등의 소재를 강하게 잡아당겨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주름을 만들었다. 겹겹이 쌓인 주름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들었고, 그 안에서 작가는 욕망을 찾아냈다. "식욕, 수면욕 등 기본적인 욕구를 떠올리면 쉬워요.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동기



**권치규**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6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2002년 대한민국미술축전 최우수상, 2003년 중국 상하이 아트 살롱 청년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 활동뿐 아니라 한국미술협회 조각분과위원장, 2021년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다양한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를 부여하잖아요.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마음도 욕망이니까요. 그런 면에선 세상을 발전하게 하는 긍정 어린 힘인 거죠.”

그때 작가가 가진 욕망과 지금의 욕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2014년 권치규 작가는 회복탄력성이 타이틀인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회복탄력성, 아주 재밌는 말이다. 몇 년간의 내 작업을 말하기에 아주 적당하다.” 물리학 용어인 이 단어는 물질이 어떤 힘에 의해 변형될 때 복귀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어떤 일을 원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려도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욕망과 회복탄력성은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에게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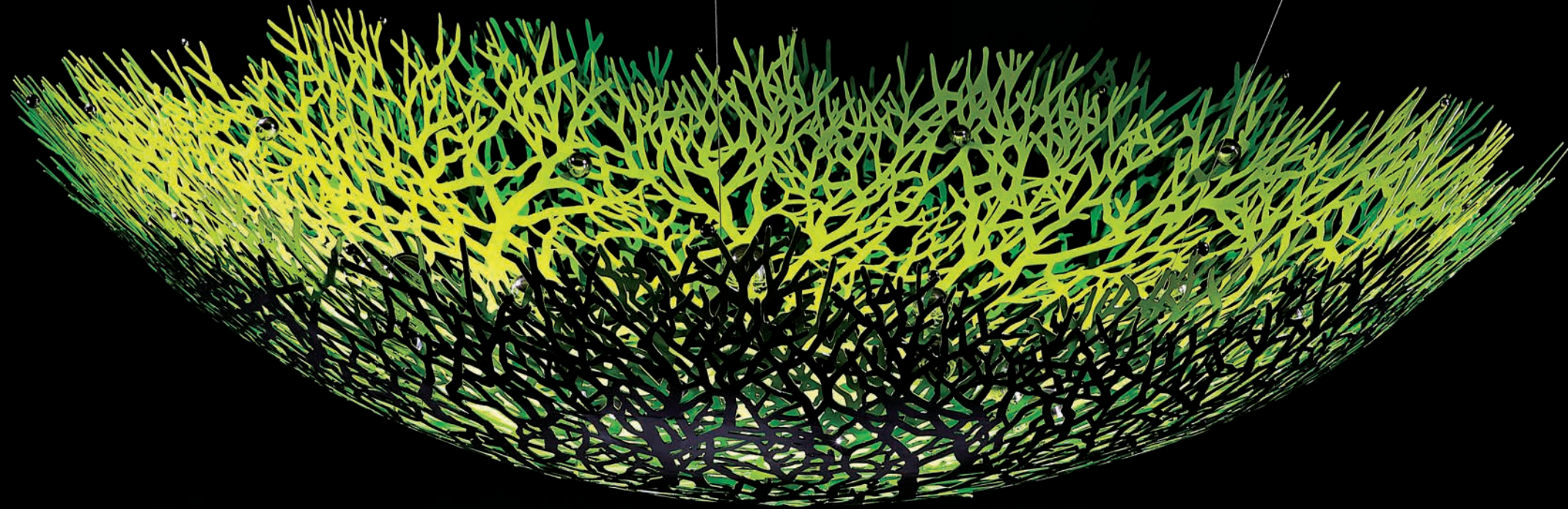
예전에 억지로 고무를 당겨 주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보다 부드럽게 표현한다. 스테인리스스틸을 갈고 닦아 생명의 빛, 연두색을 더한다. 최신작 ‘숲’ 시리즈에선 ‘인간의 삶과 연결된 회복탄력성(bio-resilience)’에 초점을 뒀다. “힐링하고 싶을 때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역시 자연이에요. 회복력을 지닌 자연처럼 사람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 시대를 보는 작가의 시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탄생한 공간은 더없이 특별하다. 1998년 동료 조각가인 김경민 작가와 결혼하면서 경기도 고양에 신혼집이자 작업실을 마련했다. 허허벌판에 놓인 창고를 말끔한 주택으로 만들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한때는 이곳을 갤러리 카페로 운영하는 등 대중에게 개방도 해 봤다.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에 금세 접었지만, 경험을 발판 삼아 다른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작업실로 이용 중인데, 전시실을 분리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해요.” 20년이 넘는 세월, 작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숲을 일궈 냈다. 그걸 증명하는 수많은 조각품이 마당과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찬찬히 둘러본다. 마당 한편엔 1996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제2의 출발선에서’ 시리즈 일부가 자리한다. 실직한 중년이 새로운 시작점에 선 모습을 다각도로 표현한 것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결을 함께한다. ‘시대 상황을 감각 있게 잘 풀어낸 작가.’ 조각가 권치규가 오래도록 품어 온 소망이다. 언제나 회복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숲’ 시리즈로 코로나19 사태에 위로를 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권치규 작가의  
작업실과 작업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 빛이 난다. 차가운 재질의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했음에도 온화한 기운이 느껴진다. 봄의 전령, 새싹을 닮은 연두색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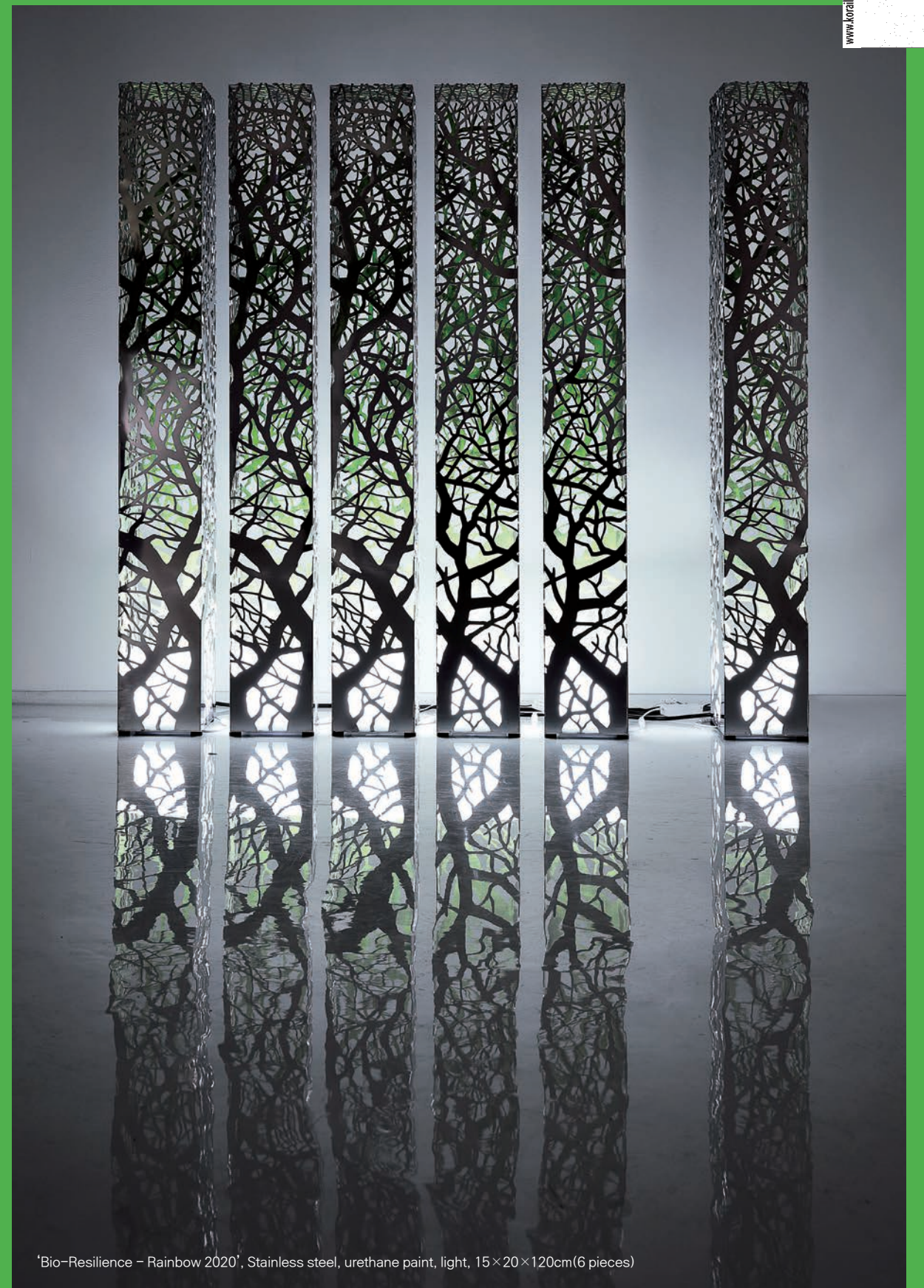
오십 대 중반의 나이, 어느새 중년이 된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 당신의 원동력이었느냐고. 작가는 그저 담담히 말한다. “하던 일이니까 계속한 거예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잖아요.” 그러고는 한 템포 쉬고서 “저는 목표한 일들을 다 이뤄 냈어요”라고 힘 있게 덧붙인다. 짙막한 행간에서 열의로 가득 찬 청년 권치규의 모습이 얼핏 스친다. 그렇다면 오늘날 작가는 어떤 내일을 그리고 있을까. 한국미술협회 조각분과위원장, 2021년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운영위원장,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교수 등 권 작가를 수식하는 단어를 나열하다 보니 그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같은 길을 걷는 가족을 비롯해 후배, 제자를 생각하면 아직은 멈출 수가 없다. 작은 날갯짓으로나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자신과 아내의 작품을 소개해 왔다.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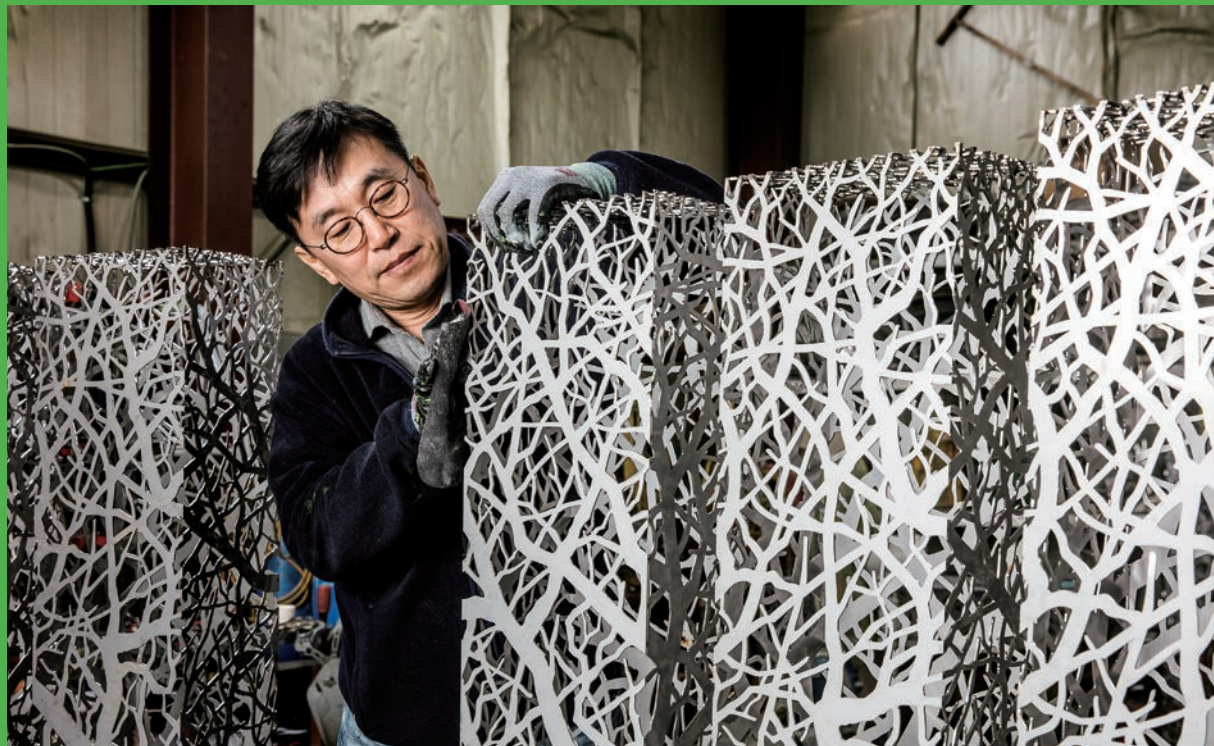
‘Bio-Resilience - Landscape 2020’,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화강석, 201×59.5×12cm

### 끝없이 확장하는 숲

조각가 권치규가 작품 활동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부지런히 활약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조각의 세계를 넓히고 싶다는 것. “조각이라고 하면 으레 겁부터 먹어요. 부피가 커서 부담스러운 데다 값비싼 장식품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무실 책상 같은 데 놓고 가볍게 장식할 만한 소품도 많고요. 조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 한국에서도 더욱 사랑받고, 세계 속으로 힘차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몸담아 온 분야의 앞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권 작가의 표정에 한층 생기가 돈다. 애정으로 빛나는 눈동자에서 그의 열정을 엿봤다. 욕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것을 내비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바라는 대로 해내고야마는 성정이 지금의 권치규를 만들었다. 그는 오늘도 눈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며 한 걸음 나아간다. 그 곁에 그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조각이 있음은 물론이다. 권치규와 조각, 조각과 권치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행이 이어진다. **K**



‘Bio-Resilience - Rainbow 2020’,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light, 15×20×120cm(6 pieces)



# Between Desire and Hope

The sculptor Kwon Chi Gyu carves human desire and hope.

Spring is back again after another round of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The passage of time is often overlooked, but the sculptor Kwon Chi Gyu pays great attention to this fact, focusing on the force of nature. His works embody the spirit of resilience, which is the capacity to quickly recover. Last December, the artist released a new installation titled “Lyrical Landscape” as part of his *Forest* series. The oval-shaped tree sculptures stand tall at a height of two meters, and are arranged to form a forest. Colored in black and various shades of green, the work gives off a different atmosphere depending on light and angle. The light green, reminiscent of the fresh buds in spring, has an especially soothing effect. Kwon uses colors to create warmth, and pulls it off quite well even with stainless steel as the main material. According to the artist, color is identity, and light green is the color that best expresses his ideas.

Kwon’s talent in art was discovered at a young age. Since grade school, he received various awards in art competitions, small and large. He gained fame as an artist, and began to



‘Bio-Resilience - Water drop 2020’,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77×77×178.5cm

have bigger dreams. His goal was to find and deliver motivation in life.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10s, he created works revolving around the theme of “desire.” He stretched out elastic materials such as rubber bands and latex, and then released them, repeating the process to form wrinkles. The layered wrinkles have their share of stories, and the artist found desires in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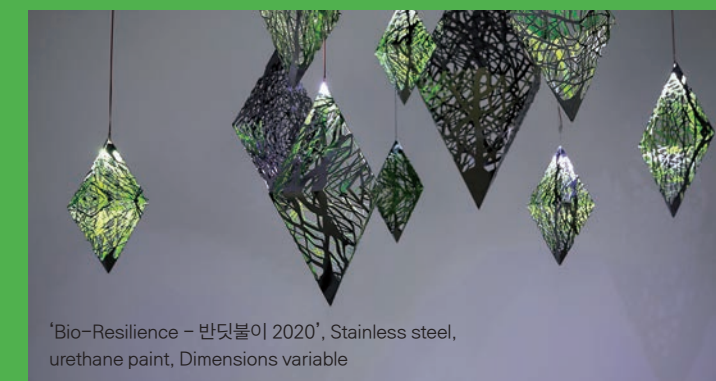
While preparing for his 2014 exhibition titled *Resilience*, Kwon wrote in his artist statement: “Resilience is an interesting word. I find it highly fitting in describing my work from the past few years.” In physics, resilience is the ability of a material to spring back to its original shape. The artist shows a strong determination to overcome adversity, no matter how bad the circumstances. He conveyed this message through the *Forest* series, which was intend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Other than being a sculptor, Kwon serves as the chair of the Sectoral Committee of Sculpture in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the 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2021, and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Art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 still has more to accomplish in sharing his experiences with junior artists and students. This is what motivates Kwon to actively engage in artistic activities and other contributions to society. His eyes burn with a passion to expand his realm of sculpture. He has come this far thanks to his unyielding spirit and courage to pursue his dreams. Even at his moment, he is taking another step forward. He is accompanied by his sculptures at each step of his journey. Kwon and sculpture, sculpture and Kwon—the two are inseparable. 📖



‘Bio-Resilience - 숲 2020’,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70×70×15cm(3 pieces)



‘Bio-Resilience - 반딧불이 2020’,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Dimensions variable

# 유튜버가 된 희극인

공중파 공개 코미디가 없어진 세상, 갈 곳 잃은 희극인은 유튜브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글. 진주영

“밥 목자.” KBS <개그콘서트>의 대표 코너 ‘대화가 필요해’에서 개그맨 김대희가 무표정한 얼굴로 내뱉는 이 한마디가 좌중을 압도하던 때가 있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곤대희’를 개설한 김대희는 이 코너 속 아버지 캐릭터를 활용해 ‘밥 목자’란 콘텐츠를 선보이며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당시 코너에서 아내로 호흡을 맞췄던 신봉선이 출연한 첫회는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고, 이후 채널 구독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그콘서트> 시절과 같은 점은 “밥 목자”란 대사가 나온다는 것, 다른 점은 대본 없이 애드리브로 승부한다는 것이다. 익숙한 코너에 새로운 한 스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한 상황극의 묘미가 바로 인기 비결이다. 이 외에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사랑받은 코너 ‘문과이과’ ‘흔한 남매’도 각각 유튜브 채널 ‘1등 미디어’ ‘흔한 남매’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공개 코미디의 호시절

1999년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등장은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폐쇄된 스튜디오 대신 오픈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형식은 사람들의 구미를 당겼고, 연기자의 사기를 진작했다. 이후 2003년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05년 MBC <코미디쇼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프로그램이 연달아 나오면서 공개 코미디 열풍이 이어졌다. 매주 다양한 유행어와 스타가 탄생했고, 방청 티켓을 구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특히 <개그콘서트>의 경우 20~3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 열기를 증명했다. 그리고 현재, 공개 코미디와 함께 웃고 울던 날들은 과거가 됐다.



2017년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폐지된 데 이어 2020년 6월 <개그콘서트> 역시 1050회를 끝으로 21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이런 형태의 코미디가 힘을 잃은 데는 여러 이유가 혼재할 것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수많은 영상 플랫폼이 등장해 TV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시청자의 관심사와 눈높이도 달라졌다. 콩트보다는 버라이어티나 관찰 예능을, 때로 논란을 일으킨 비하나 혐오 섞인 농담보다는 진솔한 웃음을 선호한다. 공개 코미디의 쇠락은 시대 변화에 따른 수순인지도 모른다.

## 유튜브,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공중파 꿈의 무대는 사라졌지만 희극인은 여전히 꿈을 꾸다. 언젠가 다시 세워질 무대를 기다리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코미디 연극, 소극장 개그 쇼, 스탠드업 코미디 쇼 등 세상에 생각보다 다양한 무대가 존재했다. 20년간 TV 속 공개 코미디에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튜브가 자리한다. 개그맨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유튜브로 진출한 사연이야 각양각색이겠지만, 이 하나는 명확하다. 웃음을 주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는 진심이다. 무대 밖에서 개그맨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관객은 구독자가 됐다. 방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소재 선택도 자유롭다. 먹방, ASMR, 게임 스트리밍, 콩트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채로운 끼를 발산한다. 이쯤에서 ‘용감한 녀석들’(박성광, 신보라, 정태호, 양선일)의 구호를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 본다.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희극인!



그림. 김성민

▶ 유튜버로 성공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목겠지. #개그맨 유튜버 ...



**엔조이커플** SBS 공채 개그맨 임라라, tvN <코미디빅리그> 손민수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리 현상을 참지 못해 실례하는 커플을 만난다면? 2017년 9월 업로드된 이 영상은 황당한 상황 설정과 주변 사람들의 재치 넘치는 리액션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덕분에 3만 명이던 구독자는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200만 구독자를 거느린 대형 채널로 성장했다. 각각 <웃음을 찾는 사람들> <코미디빅리그>에서 활약한 임라라, 손민수 커플이 운영하는 <엔조이커플> 이야기다. 두 사람은 아이디어 회의에서 탈락해 방송 무대에 올리지 못한 개그 아이템을 세상에 내놓고자 유튜브에 뛰어들었다. 촬영·편집 기술을 배워 자체 제작한 영상엔 그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일상, 먹방 외에 '여친을 웃게 하는 방법' '헤어질 각오로 하는 장난' 등 커플이라 가능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 결혼한다더니, 벌써 200만 명이 넘었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강유미의 좋아서 하는 채널** KBS 공채 개그맨 강유미



2009년 "그래, 너희가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던 '분장실의 강 선생님'은 이제 없다. 지난해 오랜만에 <개그콘서트> 나들이에 나선 강 선생님은 "이제 유튜브가 대체야. 채널 만들어"라는 '웃픈' 조언을 던지고 퇴장했다. 2017년 유튜브를 시작한 강 선생님, 아니 강유미는 채널 소개 영상에서 '소소하면서도 시시한 나만의 일상'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채널 이름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나씩 선보여 왔다. 어느덧 5년 차, 요즘엔 '롤 플레이 ASMR' 분야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중이다. 살면서 한 번쯤 만나 봤을 법한 헤어 디자이너, 바텐더, 의사 등 여러 직업인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콘텐츠로 ASMR보다는 1인 코미디 쇼에 가깝다. ASMR이 원래 이렇게 웃긴 건가요? '강유미가 하는 ASMR',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피식대학** SBS 공채 개그맨 이용주·김민수, KBS 공채 개그맨 정재형

2019년 4월 '대학교에서 이별한 후 유형'이라는 대학생 공감 콘텐츠를 공개한 이래 지금까지 250편 넘는 영상을 제작했다.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3일에 한 번꼴로 구독자를 찾아온 셈이다. <피식대학> 운영자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 세 개그맨은 공개 코미디 1회분을 만들 듯, 매일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다. 그 결과, 중년 산악회를 흥내 내는 '한사랑산악회', 헬스장 풍경을 그린 '로니앤스티브',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05학번이 돌아왔다' 등 누구에게나 친숙한 상황을 포착한 콩트로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정성 들여 마련한 소품, 구체적 상황 설정에 적절한 대사와 연기력이 더해지니 재밌을 수밖에.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영상통화로 소개팅하는 콘셉트의 'B대면데이트'를 내놨다. SBS·KBS 공채 개그맨인 세 사람은 궁중파 무대 대신 <피식대학>이라는 무대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웃음을 전하는 중이다.



**일주어터**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tvN <코미디빅리그> 김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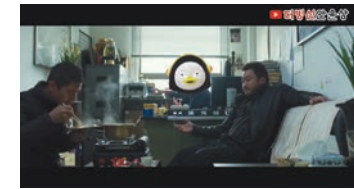
<웃음을 찾는 사람들>로 데뷔한 지 2개월 만에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무대를 잃은 김주연은 본인의 강점을 고민했다. 결론은 '세 자릿수 몸무게'였다. 그렇다고 많이 먹음 자신은 없어 살을 빼기로 결정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다이어트를 하고서 그다음 한 주는 쉬었다가 다시 일주일간 다이어트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채널명이 '일주어터'. '일주일'과 '다이어터'를 합친 말이다. 108배 하기, 홀라후프 돌리기,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죽만 먹기 등 매번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이어트를 대신 체험하는 것이다. 분홍색 헤어밴드에 편한 잠옷을 입고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한없이 예뻐 보인다. 2019년 9월부터 격주 다이어트를 이어온 결과, 현재 두 자릿수 몸무게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런 명언을 남겼다. "어떻게 다이어트까지 사랑하겠어. 유튜브를 사랑하는 거지 ♪"

**조충현** KBS 공채 개그맨 조충현

2019년 <개그콘서트> '랜덤올화통' 코너에서 '박찬호' 역할을 맡은 조충현은 야구 선수 박찬호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화법을 따라 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현재는 특기를 살려 '성대모사하는 게임 유튜버'로 발돋움했다. 박찬호 외에 배우 이정재, 이경영, 황정민, 최민식 등 다양한 인물의 말투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캐릭터에 맞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갖추고, 게임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성대모사를 하는 센스에 감탄만 나온다. 의욕 넘치는 성대모사로 게임하던 방에서 강제 퇴장당할 때도 많았는데, "강제 퇴장 하니까 생각하는 게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 낼 수 있게 해준 게이 유튜버가 아닌가 생각되고..."



**더빙신안운상** KBS 공채 개그맨 안운상



2010년대 초반 오디션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개그콘서트> '슈퍼스타 KBS' 코너에 등장한 안운상은 여러 유명인을 성대모사하며 노래 부르는 참가자로 이목을 끌었다. 2013년 JTBC <히든싱어> 박상민 편에 모창 능력자로 출연하기도 했다. 탁월한 개인기를 가진 안운상이 2017년 유튜브 채널 <더빙신안운상>에 처음 올린 영상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영화 <타짜>의 한 장면을 여러 정치인의 목소리로 더빙한 것인데, 훌륭한 성대모사 실력뿐 아니라 약간의 현실 풍자까지 더해 큰 재미를 선사했다. '성대모사의 신' 안운상이 '더빙의 신' 안운상으로 유튜브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순간이다. 영화, 드라마 더빙 말고도 혼자 수십 명의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 부르는 콘텐츠도 인기다.

**홍윤화 김민기 공냥공냥**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홍윤화, SBS 공채 개그맨 김민기

2017년 초반, 시작은 미약했다. 데이트하면서 찍은 영상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줬다.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 시절로 돌아간 듯, 저화질에 아무런 자막도 없었다. 다행히 몇 개월 후 공식 오픈한다는 공지와 함께 예쁜 자막을 넣은 고화질 영상을 업로드했다. 깜찍한 일상을 공유해 오던 홍윤화, 김민기 커플은 2018년 부부의 연을 맺고 더욱 가열차게 '공냥'거리는 중이다. 주로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서 '공냥공냥'대니 그저 부러울 뿐이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탕후루 먹방 ASMR 영상 조회 수 320만 회 중 100회 정도는 제가 올렸어요(찡긋).



▶ 전문가도 울고 갈 제 취미를 소개합니다~ #프로 취미러



**이상훈TV**  
KBS 공채 개그맨 이상훈

어릴 때부터 모은 레고와 피겨값만 1억 원이 훌쩍 넘는 진정한 '덕후'가 나타났다. 2018년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리뷰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로 <이상훈TV>를 개설했다. 세월과 지갑이 낡은 수집품을 차근차근 선보이며 킥덜트족의 사랑을 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피겨 박물관도 개관했다고 하니 완벽한 '덕업일치'의 현장이다. 성공한 '덕친'(덕후 친구) 덕분에 내 취미 생활도 풍요로워진다. 장난감과 함께 놀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재관등이**  
KBS 공채 개그맨 권재관

권재관이 제대로 '덕밍아웃'했다. 중학생 때부터 20년 넘게 즐겨 온 취미, RC카(무선조종 자동차)를 주제로 2018년 <재관등이> 채널을 시작했다. <이상훈TV> 못지않은 '덕력'으로 방 하나를 가득 채운 RC카의 향연에 입이 떡 벌어진다. 조립, 리뷰하는 콘텐츠는 물론이고 RC카로 풍선 터트리기, 드론으로 피자 배달하기 같은 다채로운 실험도 흥미롭다. 오프로드 RC카, 중장비 RC카 등 희귀한 아이템도 보여 주니 덕후 마음이 설렌다.



**홍인규 골프TV**  
KBS 공채 개그맨 홍인규

2019년 2월 홍인규와 변기수, 두 개그맨의 골프 대결 영상으로 포문을 연 <홍인규 골프TV>는 1년 반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며 인기 골프 채널로 급상승했다. 골프할 때만은 상념이 사라져 좋다는 홍인규가 골프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하다. 프로 골퍼에게 레슨을 받거나 동료와 필드에 나서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에 레슨 내용도 유익해 골프 초보도, 고수도 마음 편히 시청한다.



**김기수**  
KBS 공채 개그맨 김기수

우연히 화장품의 매력에 빠져든 소년은 화장하는 남자이자 '코덕'(화장품 마니아)으로 성장한다.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서 댄서 김 캐릭터로 무대를 누볐던 김기수의 이야기다. 몇 해 전, 성형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올린 메이크업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어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했다. 뛰어난 입담으로 전수하는 화장 '꿀팁'이 귀에 쏙쏙 박힌다. "쌤~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를 외치던 댄서 김에게 "제가 구독하러 가겠어요~".



## 소년과 함께한 1년, 그 특별한 기록

소년원에서 1년 동안 국어 수업을 진행한 기록을 모은 에세이집 <소년을 읽다> 저자 서현숙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리. 진주영

- 20년 넘게 국어 교사로 일했어도 소년원에서 하는 수업은 낯설었을 것 같아요. 많이 긴장했죠. 첫 수업 전날엔 악몽도 꿴답니다. 덩치 큰 아이들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책장을 아무리 넘겨도 백지만 나오는 꿈이었어요. 막상 만나니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학생들이었지만요. 학교와 다른 공간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수업했어요.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 중 하나예요.
- 아이들과 시 외우기, 소설 낭독하기 같은 수업을 하셨어요. 독서 수업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자신을 연결해 보는 종합적인 활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첫날 책 열 장을 각자 읽게 하니깐 2분 만에 다 봤다는 거예요.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방식을 바꿨어요. 시 한 편 외우기, 사자성어 두 개 익히기, 글 세 줄 쓰기, 책 낭독하고 소감 나누기 같은 일을 하루에 했어요. 시간을 쪼개야 지루해하지 않으니까요. 다행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제자들에게 "국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라는 말도 종종 들었습니다.

- 어떤 시와 책을 다뤘는지 궁금해요. 시는 대체로 간결하고 쉬운 걸로 골랐어요. '다 외웠다'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함께 읽을 책은 10대 후반 청소년에게 적절한 내용인지 살폈어요. 물론, 기쁨은 다른 선택도 했습니다. 탁경은 작가의 소설 <사랑에 빠질 때 나누는 말들>을 선정할 땐 조금 망설였는데, 주인공이 소년원에 있기에 오히려 감정이입을 잘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일상을 그린 이종철 작가의 만화 <까대기>도 호응이 뜨거웠어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라 본인 이야기인 양 신나 했죠. 이종철 작가를 초청한 날엔 인생 선배, 아는 형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 이종철 작가 외에도 <회색 인간>을 쓴 김동식 소설가,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의 박찬일 요리사 등 다양한 분을 모셨지요. 애초에 계획한 일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해서 시도해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일곱 명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학생도, 초대에 응해 준 작가도 만족스러웠어요.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지요.
-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엔 독서 교육 사례를 남겨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엔 수업 내용을 상세히 써 내려갔죠. 그렇게 쌓인 일기를 한꺼번에 읽어 보니 큰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책이나 수업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결국 책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구나, 책으로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읽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 <소년을 읽다>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감동적인 이야기나 극적인 변화를 담은 책은 아니에요. 그날그날 수업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하죠. 교실 밖 학생들의 일상은 모르니까요. 다만 제가 본 아이들 얼굴을 자세히 알려 줘요. 재미있는 소설을 집중해서 읽고, 동경하는 작가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고, 시를 외울 땐 틀릴까 봐 긴장하는 모습으로. 소년원 하면 떠오르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제 책이 출간된 이유 아닐까요? ☑

**INFORMATION**

서현숙 2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쳤다. 2019년 1년간 교육청 파견 교사로 소년원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한 기록을 모아 에세이집 <소년을 읽다>를 펴냈다.



### 호수 민박

박준

민박에서는 며칠째  
탕과 조림과 찜으로  
민물고기를 내어 놓았습니다

주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제 점심부터는 밥상을 물렸고요

밥을 먹는 대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물에서든 물에서든  
마음을 웅크리고 있어야 좋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동네의 개들이 어제처럼 긴 울음을 내고  
안개 걷힌 하늘에  
별들이 비늘 같은 빛을 남기고

역으로 가는 철차를 잡아타면  
돼지볶음 같은 것을  
맷게 내오는 식당도 있을 것입니다

이승이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곳은  
공간보다는 시간 같은 것이었고

무엇을 기다리는 일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 우주의 아이

박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라고 하니 내가 엄청 어른 같은데, 사실 나랑 세 살 차이다. 뭐 그렇다고. 근데 왜 아이라고 했느냐면, 음... 추억 하나를 꺼내야겠다.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정

2012년 가을이다. 내 시집이 여름에 출간됐고, 얼마 후 서울 합정동 어딘가에서 준이를 만났다. 준이에게 물었다. “야, 너는 시집이 왜 안 나와?” 멍청한 질문이었지. 준이가 나보다 1년 먼저 등단했다. 시집은 내가 먼저 출간했다. 오만했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 그런 질문을 했지. 마음속으로 응원했으면 될 일인데.

“음, 저는 사는 동안에는 못 낼 거 같아요.” 준이가 웃었다. 시집은 훌륭한 형이나 누나 혹은 어른들만 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았다. 아이는, 어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 안다. 준이도 그랬다고 내가 생각한 거지. 멍청했던 것이다. 훌륭한 형인 내가. ‘사는 동안에는’이라는 말, 아이들이나 할 법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준이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었고 부족한 대로 뭐든 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인 거지.

그해 12월 박준 시인의 첫 시집이 출간되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이다. 이 시집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굳이 적을 필요 없을 듯하다. ‘사는 동안에는’이라는 말에 담긴 진지함이 독자들에게 전해졌을 테다. 나는 그 시집을 보자마자 울었는데, 스스로가 바보 같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시집 한 권 먼저 낸 거 가지고 품을 잡고 살았더니. 준이가 시를 쓰기 위해 가까이 감내한 시간은 내가 오만하고 방자하게 보낸 나날이었다.

준이의 두 번째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는 2018년 12월에 출간됐다. ‘호수 민박’이라는 시는 이 시집에 실렸다. 평범한 단어로 덩덤하게 썼다. 이 시집엔 몸이 가거나

마음이 간 ‘여행’의 기록이 꽤 있다. 그의 여행은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쓸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알 수 없다. 준이는 무엇인가 찾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막연하고 당연히 기대만 하지 못하다. 어떤 시인은 그 막연한 것의 실체를 빨리 찾아내서,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기대다. 하지만 그런 진짜가 아닐 수도다. 준이는 그 막연한 것을 마음에 품고, 진지하게, 혼자 간다. 천천히 걷는다. ‘사는 동안에는’ 결코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에 아직 시라는 걸 쓰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준이를 보며 나도 시인이면서 생각한다. 두 권의 시집으로 준이가 얻은 걸 굳이 ‘명성’이라고 적는다면, 명성이 너무 커서 이제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게 준이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 한 문장과 한 문장 속에, 그리고 그 사이에 준이가 담고 싶어 한 것은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이고... 솔직히 이 부분부터 나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시를 쓰느라 밤을 새고 서서히 세계가 밝아지는 것을 볼 때의 몽롱한 희열. 사실은 그런 밤일수록 한 줄도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적히지 않은 문장은 반드시 손끝을 통해 드러난다. 기다리는 자가 그것을 받아 적는다. 끝끝내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쓰며 나는 시를 읽는 것이 시인을 응원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자에게 서운한 이야기거나. 하지만 누군들 더듬더듬 나아가는 ‘아이’의 순수한 여행을 응원하고 싶지 않을까. 한 ‘아이’가 ‘마음을 웅크리고 바라본’ 호숫가에 서면, 우리가 바로 우주의 아이니까. ☑



# 혁신의 예술로 재탄생한 낭트

쇠락해 가던 프랑스 낭트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도시로 거듭났다.

글. 이슬지(프랑스 관광청) 진행. 이내경

브르타뉴공국의 옛 수도 낭트는 내륙 교통의 중심을 이루는 항만도시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중세에 번영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조선업이 발달해 호황을 누린다.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던 번영은 동아시아 조선업계가 성장하면서 주춤해졌지만 낭트는 다시 일어난다. 폐업한 조선소와 버려진 건물이 놀이공원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 → 마신드릴(LES MACHINES DE L'ÎLE)

2007년 개장과 동시에 낭트 제일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폐업한 조선소가 밀집한 일드낭트에 공상과학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질 베른이 꿈꾼 환상의 세계를 재현했다. 기계 테마파크인 이곳엔 선박 건조 시 필요한 철, 가죽, 나무 등을 재활용해 만든 바다 생물, 곤충, 동물 등 갖가지 기계 조형물이 가득하다. 가장 유명한 기계는 질 베른의 소설 <해저 2만 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바다 세계 회전목마'와 50명을 등에 태우고 걷는 높이 12미터의 '자이언트 코끼리'.

## ↓ 에스튀에르(ESTUAIRE) 예술 프로젝트

낭트에서 이웃 도시 생나제르까지 루아르강 하구가 장 뤼크 쿠르클, 황웅핑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예술가의 현대 예술 전시장이 되었다. 작품은 총 33점. 낭트의 앤틸리스 감독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다니엘 뷔랑의 작품 '원고리'를 감상할 수 있다. 고리를 통과해 들여다보는 도시 풍광이 다채롭다. 밤에는 고리마다 색색의 조명이 들어와 사진에 담으려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 Patrick Messing\_L'VAN



© Franck Tomps\_L'VAN

## → 르 리외 유니크(LE LIEU UNIQUE)

낭트 특산품이자 프랑스 국민 과자 '뤼'를 생산하던 공장이 국립현대예술센터로 변모했다. 1980년대에 타지로 이전한 과자 회사 르페브르 유틸(Lefèvre-Utile) 공장 건물 외관은 그대로 살리면서 과자 회사 머리글자도 보존해 센터 이름을 독특한 장소라는 뜻의 '르 리외 유니크(Le Lieu Unique)'라고 지었다. 비주얼 아트, 연극, 서커스, 음악, 문학, 철학, 건축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지는 장이다.



<너에게 가는 열차>, 오잔 아치탄 연출, 2020

#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성장의 로맨스 열차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남매가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치유한다. 터키 영화 <너에게 가는 열차> 이야기다.

글. 전찬일(영화 평론가) 진행. 김규보

신학이다. '코로나 시대'의 울적함, 위축감을 다소나마 상쇄해 줄 기회, 희망의 공간으로서 기차를 그린 영화를 불러내 보면 어떨까. 기차는 이동에 내포된 변화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기적의 공간이기도 하지 않은가. 당장 떠오르는 영화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한 에단 호크, 줄리 델피 주연의 1995년 작 <비포 선라이즈>다. 이 영화에서 기차의 비중은, 사실 회자돼 온 만큼 크고 깊지는 않다. 총 20분도 되지 않는다. 질적으로도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지 기차가 아니다.

여기저기 검색하다, 이 범주에 제격인 영화를 발견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업계의 선두 주자 넷플릭스에서다. 우리말 제목부터 영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오잔 아치탄 감독의 2020년 작 <너에게 가는 열차>다. 한데 이 영화, 넷플릭스가 투자해 제작한 최초의 터키 영화란다. 영화에서 두 주인공은 4인용 객실에서 만나 무려 14시간을 함께 가야 한다.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제3의 도시 이즈미르까지다.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여자는 표를 구하지 못해 일단 탑승부터 했다. 남자는 동행하기로 한 세 친구가 비행기로 가는 바람에 좌석이 비어 있던 참이다. 서로 만나 가까워질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비포 선라이즈>처럼 보자마자 호감이 오간 것은 아니다. 경사에 참석하는 이들과는 어딘지 그들이 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 사이에 '밀당'이 오간다. 서서히 상대를 향한 호기심이 일고, 마침내 호감이 형성된다. 스포일을 하게 될 터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으나, 사사로우 보이는 그들의 사연을 엿듣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영화는 결국 각자의 상처, 슬픔 어린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치유하는 성장 드라마로 나아간다. 그 과정과 결말이 다소 도식적이긴 해도, 대중 취향적 멜로물로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성장은 변화의 또 다른 표현일진대, 열차라는 무대는 그야말로 딱이다. 시간도 충분하다. 영화 상영 시간 90분 중 3분의 2쯤은 열차 안에서 펼쳐진다. 터키에선 법에 저촉된다는데, 미혼 남녀 단둘이 차지한 공간은 이슬이슬하면서도 매혹적이다. 공간의 그 아슬함과 매혹은 캐릭터 간 그것들과 멋지게 결합된다. 여주인공 레일라 역의 딜란 치체크 데니즈는 2014년 미스 유니버스 터키 대표였다. 터키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남주인공 알리 역의 메틴 아크릴게르르는 웃는 모습 등이 1999년 작 <노팅 힐>, 2001년 작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그 남자, 휴 그랜트를 닮았다. 눈길에 갇혔다.



Film x Train



〈너에게 가는 열차〉, 오잔 아치탄 연출, 2020

##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성장의 로맨스 열차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가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치유한다. 터키 영화 〈너에게 가는 열차〉 이야기다.

글. 전관일(영화 평론가) 진행. 김규보

신학이다. '코로나 시대'의 울적함, 위축감을 다소나마 상쇄해 줄 기회, 희망의 공간으로서 기차를 그린 영화를 불러내 보면 어떨까. 기차는 이동에 내포된 변화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기적의 공간이기도 하지 않은가. 당장 떠오르는 영화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한 에단 호크, 줄리 델피 주연의 1995년작 〈비포 선라이즈〉다. 이 영화에서 기차의 비중은, 사실 회자돼 온 만큼 크고 깊지는 않다. 총 20분도 되지 않는다. 질적으로도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지 기차가 아니다.

여기저기 검색하다, 이 범주에 제격인 영화를 발견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업계의 선두 주자 넷플릭스에서다. 우리말 제목부터 영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오잔 아치탄 감독의 2020년작 〈너에게 가는 열차〉다. 한데 이 영화, 넷플릭스가 투자해 제작한 최초의 터키 영화란다. 영화에서 두 주인공은 4인용 객실에서 만나 무려 14시간을 함께 가야 한다.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제3의 도시 이즈미르까지다.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여자는 표를 구하지 못해 일단 탑승부터 했다. 남자는 동행하기로 한 세 친구가 비행기로 가는 바람에 좌석이 비어 있던 참이다. 서로 만나 가까워질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비포 선라이즈〉처럼 보자마자 호감이 오간 것은 아니다. 경사에 참석하는 이들과는 어딘지 그늘이 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 사이에 '밀당'이 오간다. 서서히 상대를 향한 호기심이 일고, 마침내 호감이 형성된다. 스포일을 하게 될 터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으나, 사사로워 보이는 그들의 사연을 엿듣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영화는 결국 각자의 상처, 슬픔 어린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치유하는 성장 드라마로 나아간다. 그 과정과 결말이 다소 도식적이긴 해도, 대중 취향적 멜로물로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성장은 변화의 또 다른 표현일진대, 열차라는 무대는 그야말로 딱이다. 시간도 충분하다. 영화 상영 시간 90분 중 3분의 2쯤은 열차 안에서 펼쳐진다. 터키에선 법에 저촉된다는데, 미혼 남녀 단둘이 차지한 공간은 이슬이슬하면서도 매혹적이다. 공간의 그 이슬함과 매혹은 캐릭터 간 그것들과 멋지게 결합된다. 여주인공 레일라 역의 딜란 치체크 데니즈는 2014년 미스 유니버스 터키 대표였다. 터키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남주인공 알리 역의 메틴 아크윈게르리는 웃는 모습 등이 1999년작 〈노팅 힐〉, 2001년작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그 남자, 휴 그랜트를 닮았다. 눈길에 갇힌다.



그런데 레일라와 알리의 드라마는 그들만의 별난 것일까? 아니면 요즘 터키 청춘들의 일상적 모습일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로, 한때는 아시아로 분류됐으나 언제부터인가 유럽으로 간주되는 그 이슬람 국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으니 잘은 모르겠다. 넷플릭스 같은 굴지의 투자사가 제작비를 댔더니 후자이지 않을까 짐작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영화적 수준을 넘어 〈너에게 가는 열차〉는 터키에 대한 편견을 뒤흔드는 영화로 손색없다. 그 문제의식이 기차라는 매개체에 완벽히 부합한다. 그리고 보니 50년 이상 영화를 봐 왔고 30년 이상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평론가인 내가 경험한 터키 관련 영화는 몇 편 되지 않는다. 일찍이 1982년 〈의문의 실종〉과 나란히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이을마즈 귀네이와 셰리프 괴렌이 공동으로 감독한 〈울〉이나 〈윈터 슬립〉으로 2014년 그 상을 다시 거머쥔 터키 (예술) 영화의 간판 누리 빌게 제일란의 일련의 영화들, 그리고 터키계 독일 감독 파티흐 아킨의 2014년 〈미치고 싶을 때〉 같은 수작 정도가 고작이다.

워낙 다채로운 기획에 관심이 많은지라, 문득 이런 아이디어가 찾아든다. 이 영화, 스웨덴 드라마센 콜리아닌의 2014년작 〈결혼식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리메이크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든다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그럴 수만 있다면 꽤 그럴듯한 '열차 청춘 로맨스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여주'는 김고은이나 김태리가, '남주'는 류준열이나 박정민이 어떨까... ✉





**<어른의 맞춤법>**

명예회손, 폐륜아, 호위호식, 금새, 삼가하다, 천정, 설것이, 습상, 오랏만, 유도 심문, 철썩같이, 김치찌개... 어떤 단어에는 혀를 찼겠으나, 어떤 단어는 뭐가 문제인지 어디동접할 수도 있다. 일부러 틀리게 쓸 사람은 없어도,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성스레 작성한 글이 단어 하나 때문에 나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결제와 결재처럼 헷갈리는 단어, 흔히 틀리는 단어를 딱 100개 꼽아 설명한다. 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한다. **신선해**, **정지영** 지음 **앤의서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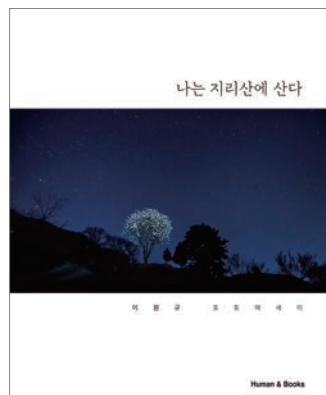
**<사람의 씨앗>**

오래 살아남은 글은 오래 살아남은 건물이나 예술 작품만큼 가치가 높다. 선뜻 손이 가지 않아 아쉬울 뿐.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학자인 저자는 고전을 꼭꼭 씹어 음미해 건져 올린 지식과 지혜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해 왔다. 사람다운 삶이 그의 평생 주제. 책 제목 '사람의 씨앗'은 공자의 '인(어짊)'을 뜻하는데 인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라 그가 해석해 준다. 따뜻한 시선, 깊은 통찰이 책을 관통한다. 잘 살고 싶어진다. **전호근** 지음 **메멘토** 펴냄



**<악의 평범성>**

시가 사정없이 내리꽂힌다. 1987년, 스물일곱에 제주 4·3을 다룬 서사시 '한라산'을 발표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시인이 22년 만에 시집을 냈다. 사회를, 사람을, 역사를 푸르게 직시하는 시다. "친구가 감옥에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한 질을 보냈다./ 책을 전부 바닥에 펼쳐 놓자 작은 독방이 토지로 변했다."('멀리 있는 빛' 중) 시로 뻗어 낸 과거의 자락도 가슴을 활판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의 시가 필요하다. 참고로 저 시 속 친구는 고 기형도 시인이다. **이산하** 지음 **창비** 펴냄



**<나는 지리산에 산다>**

1998년 시인은 멀쩡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지리산에 들어갔다. 올해로 23년째. 그동안 빈집을 찾아 여덟 번 이사했다. 1000년 전에도 더울 땀 났고 추울 땀 추웠으리라 생각하며 나그네의 초심을 유지하려 애쓴 시인은 지리산에, 섬진강에, 자연에 매달려 잘 놀고 잘 먹고 잘 웃고 잘 잤다고 말한다. 그 사이사이에 야생화를 애뜻해하고 벌을 올려 다보고 사진을 찍고 시를 썼다. 이쯤이면 어떤 사진일지, 어떤 글일지 감이 올 것이다. 정말 그런 책이다. **이원규** 지음 **휴먼앤북스** 펴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

대표작 소개 중심이 아닌, 미술관 내외의 다양한 주체가 미술관 소장 컬렉션을 오픈, 해킹, 채굴한다는 독특한 콘셉트의 전시다.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해킹-배움 프로젝트', 전문 연구자를 초빙해 만든 '채굴-연구 비평 프로젝트', 미술관 내부용 소장 작품 관리 시스템을 전시장에서 소개하는 '오픈-소장 작품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로 구성했다. 미술관 관계자만 접근 가능하던 프랭크 스텔라의 '경계의 확장' 등도 공개한다. **기간** 4월 11일까지 **문의** 02-2124-8800(서울시립미술관)



**<제3의 화법>**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생해 한국 현대미술을 새 방향으로 이끄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펼쳤다. 참여 작가는 노보, 유지인, 이희준, 추미림, 과야 등 5명. 유지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선동 텍스트를 삽입해 정치 이슈를 암시한다. 풍경에 투영된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는 이희준은 도시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편집한 수직-수평선을 캔버스에 구현했으며, 추미림은 현대인의 일상을 평면 작업으로 재해석했다. **기간** 3월 27일까지 **문의** 02-464-7710(서울 아틀리에 아키)



**<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작가 11인(팀)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작품 62점을 통해 현대 속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1부 '익숙하고 낯선'에서 주재환은 라면 봉지나 치약 같은 평범한 요소를 드로잉, 만화, 사진으로 콜라주한 설치 작품 '나의 푸른 꿈'으로 소비사회를 풍자한다. 2부 '낯설지만 익숙한'의 최제현 또한 목재 등을 절단하고 조합한 설치 작품 '여기에 없는 것'에서 익숙함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기간** 6월 20일까지 **문의** 031-228-3800(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GS칼텍스 예술마루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 작가 결과발표전>**

지난해 6월에 1기 입주 작가를 선정한 GS칼텍스 예술마루가 그 성과를 모은 전시를 열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술인 연합 AAA는 1월에 전시를 마무리했다. 이지연과 성정원은 달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 변하는 물때와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람을 표현한 '긴 섬, 드문 바람 오롯한 그림자'를 3월 7일까지, 이민하는 장도에서 관찰한 주변 환경에 영감을 받아 그린 풍경화 '장도에서'를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선보인다. **기간** 4월 4일까지 **문의** 1544-7669(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장도 전시관)

#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 통영국제음악제>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 찬사받는 음악제가 매년 봄 찾아온다. 통영 출신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다. 올해는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봉을 잡아 윤이상의 '서주와 추상'으로 축제 시작을 알린다. 정경화가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티타' 전곡을 들려 주고, 윤홍천 등 네 피아니스트가 릴레이로 연주하는 '마라톤 콘서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다.

기간 3월 26일~4월 4일 장소 통영국제음악당 문의 055-650-0400



© 알앤디웍스

### <검은 사제들>

2015년 개봉한 김윤석·강동원 주연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악령에 썩었지만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하며 마귀를 붙잡고 있는 소녀 이영신을 구하기 위해 최 부제와 김 신부가 행하는 구마 의식이 관람객에게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지난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8관왕을 차지한 <호프> 창작진이 의기투합해 두 사제의 치열한 심리전을 생생하게 구현한다.

기간 5월 30일까지 장소 서울 유니플렉스 문의 1577-3363



### <위키드>

세계 16개국에서 약 6000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이 5년 만에 돌아온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재해석한 이 공연은 나쁜 마녀 엘파바가 사실 초록 피부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차별받는 착한 마녀이며, 아름다운 금발 마녀 글린다는 공주병에 내성 덩어리였다는 상상에서 출발해 재미를 선사한다. 한국어 초연을 성공리에 이끈 옥주현과 정선아가 다시 한번 엘파바와 글린다로 무대에 선다.

기간 5월 1일까지 장소 서울 블루스퀘어 문의 157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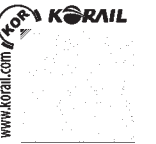
### <태일>

열여섯 살 태일은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보조로 취직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재봉사가 되었지만, 일상은 지옥이다. 불합리와 불공정으로 가득한 현장에서 태일은 노동자를 대표해 나선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온몸을 불사르며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자 외친다.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음악극이다. 진선규, 박정원, 강기동, 이봉준이 태일의 소리를 낸다.

기간 5월 2일까지 장소 서울 대학로TOM 문의 02-6954-0772

# MOVI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이터>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새터민 진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무리 일해도 빠듯한 벌이에 제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중국에 체류하는 아버지에게 생활비도 보내야 한다. 그러던 중 청소 일을 하러 간 도장에서 뜻밖에 복싱을 배우게 된다. 프로 복서로 데뷔하면 지금보다 수입도 좋아진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청춘의 성장기가 눈물겹다.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과 올해의 배우상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3월 개봉. 감독 윤재호 출연 임성미, 백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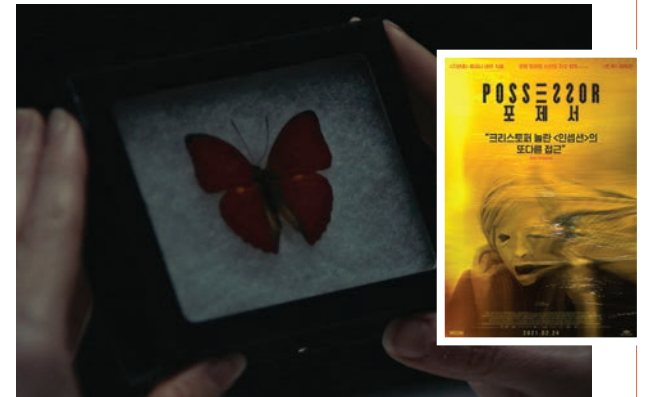
### <톰과 제리>

194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 온 세기의 애니메이션 콤비, 톰과 제리를 스크린에서 만난다.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던 이벤트 플래너 카일라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진다. 호텔 한편에 살림을 차린 쥐 제리를 하루빨리 내보내는 것. 손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수습하고자 고양이 톰을 고용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지만 한다. 쫓고 쫓기는 두 앙숙을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실사 애니메이션이다. 2월 24일 개봉. 감독 팀 스토리 출연 클로이 모레츠, 마이클 페나



### <타인의 친절>

<원 데이>의 론 웨르픽 감독이 이번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택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두 아들과 도망친 클라라가 믿을 거라곤 차한 대뿐이다. 그마저 견인된 후에는 길거리를 전전한다. 우연히 만난 간호사 앨리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잠잘 곳을 구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 그런 클라라와 앨리스 주변에 모인 취업 준비생 제프, 러시아 식당 대표 티모프와 매니저 마크, 변호사 존 피터 등은 서로 상처를 다독이며 온기를 나눈다. 3월 개봉. 감독 론 웨르픽 출연 조카잔, 타하르 라힘



### <포제서>

암살 조직 포제서는 은밀히 작전을 수행한다. 특수 기술로 타깃의 가족이나 친구의 의식에 침투한 후, 그들의 몸을 조종해 작전을 완료한다. 3일 안에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 베테랑 요원 타사는 콜린으로 분해 약혼자 에이바와 그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는데, 자꾸만 계획이 틀어진다. 세계적 판타스틱 영화제인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2020년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 2월 24일 개봉. 감독 브랜든 크로넨버그 출연 안드레아 라이즈보로, 크리스토포 애벗

# Jeonju: The Food and Culture of Traditional Korea

Article and photos by **Atembe Giles** (Korea Travel Grator, USA)



South Korea is known as a technologically advanced, modern country, characterized by skyscrapers and a fast-paced lifestyle in most cities. However, there is a city that offers an authentic, enriching, traditional experience unlike any other in Korea. It is Jeonju, a medium-sized city in the southwest province of Jeollabuk-do. History and culture buffs will enjoy Jeonju's Hanok Village. Hanok means this neighborhood is in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with exquisitely carved architecture, cobblestone streets, and the signature *giwa* style rooftops with layered, curved tiles. Attractions like the Hanok Village History Museum, Gyeonggijeon Shrine, and Jeonju Hyanggyo (Confucian School) give tourists a dynamic overview of Korea's long,

interesting history. Are you a big foodie? Then Jeonju is the perfect place to satisfy your appetite! It's called the *Bibimbap* Capital for a good reason: not only is Jeonju the birthplace of this famous rice and vegetable dish, but it also boasts some of the most delicious and famous bibimbap restaurants in Korea, which can be found in almost every neighborhood. Jeonju is also known for its smooth-tasting rice wine, called makgeolli, and Korean pancakes, called *jeon*. You can even take a class to learn how to make these yourself! Jeonju may not be the largest city in Korea, but it definitely offers the greatest amount of fulfillment for anyone who wants to experience the true beauty and culture of traditional Korea. ☑

## Traveler's Room

**In-Yeon Hanok Guesthouse** As soon as guests enter the guesthouse, they will be greeted by a lush, green garden and the smiling faces of the helpful couple who owns the guesthouse. The hanok guesthouse is built in the style of a traditional Korean home. The roofs are carved in the signature *giwa* style with curved, layered tiles. Inside, guests can experience *ondol*, which is the traditional method of underfloor heating. Even with its traditional look and atmosphere, In-Yeon offers many modern amenities, such as a spacious bathroom, cable TV, air conditioning, and free Wi-Fi. **070-4686-8407 [www.전주한옥숙박.kr](http://www.전주한옥숙박.kr)**



\* Korea Quality, certifi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a certified designation system that helps tourists select high-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모두의  
희망을  
모아서



삶터와 일터를 넘어 더 희망찬 꿈터를 내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료 함조. 어스본코리아

\*다음 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봐주세요.



\*정답

INFORMATION

<숲속에서 너도 찾았니? 머리가 좋아지는 숨은그림찾기>

“허리띠를 잃어버렸어. 찾아 줄래?” 귀여운 동물이 건네는 물음에 답하며 숨은 그림을 찾는다. 나무에 등지를 튼 새, 육지와 호수를 오가는 수달 등 동물마다 특징을 살린 일러스트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두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커스틴 롭슨 지음 가레르 루카스 그림 어스본코리아 펴냄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언택트 베리와 메가베리 굿, 딸기 디저트 패키지 2종

호텔 서울드래곤시티의 딸기 디저트를 맛보며 오붓한 봄날을 보낸다. 이번에 선보이는 딸기 디저트 패키지는 객실에서 즐기는 ‘언택트 베리(Untact Berry)’와 테이크아웃 세트 ‘메가 베리 굿(Mega Berry Good)’으로 나뉜다. 두 패키지 모두 10종의 프리미엄 딸기 디저트로 채운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가 기본이며 언택트 베리는 객실 1박 이용권과 글로벌 티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버라이어티 기프트 박스를, 메가베리 굿은 스페셜 딸기 드링크 두 잔을 포함한다. 언택트 베리는 4월 30일, 메가베리 굿은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 02-2223-7000 www.seouldragoncity.com



롯데호텔 제주

봄 패키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봄맞이 호캉스 손님을 위한 패키지 ‘봄(B.O.M, Bloom Our Moment)’을 내놨다. 객실 1박을 비롯해 조식 이용권, 카페 ‘해운’ 스페셜 메뉴, 사진 인화 서비스 같은 기본 혜택과 더불어 커플, 키즈, 패밀리 등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전을 마련했다. 커플형은 이색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라운지 이용권을, 패밀리형은 아웃도어 프로그램 체험권과 패밀리 락 볼링장 입장권을 제공하니 색다른 추억을 남기기 좋다. 키즈형 이용객에게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컬러링 키트, 키즈 어메니티 등을 세심하게 챙겨준다. 기간은 5월 31일까지.

☎ 1577-0360 www.lottehotel.com/jeju-hotel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제주도 ‘봄캉스’

푸른 바다, 샛노란 유채꽃밭 등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가 싱그러운 ‘봄캉스’(봄+호캉스)를 만끽할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째로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인생샷 버스 투어’를 추천한다. 유채꽃밭부터 바람의 언덕까지 버스로 돌아보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영상도 찍는 코스로, 40분간 진행된다. 보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유원지 레포츠’를 체험하는 것도 좋겠다. 복합 라운지 ‘모들’에서 대여해 주는 전동 카트와 전동 바이크를 타고 섭지코지 드라이브를 떠나니 제주의 봄바람과 꽃향기가 온몸 가득 들어찬다.

☎ 1577-0069 www.phoenixhnr.co.kr



<KTX매거진> 2월호를 보고 나서



온고지신, 안동 안동에서 최초로 노비를 해방하고 고택을 팔아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한 이상룡 선생에 대해 알아 가면서 '시대를 탓하고 현실을 핑계 삼아 냉소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박수연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더 깊고 풍요로운 여행, 관광두레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을 좋아하는 제 취향에 딱 맞는 기사였어요. 두 감독님이 체험한 스토리도 특별했고요. 관광두레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장갑에 어린 우주 이삿짐 나를 때 쓰는 면장갑이, 정육점을 운영하신 부모님이 꺼던 면장갑이 예술의 재료가 되고 우주를 담아내다니... 경이롭습니다. 정경연 작가의 작품은 감동이고요. 이아현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중학생이 된 조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자주 빠져서 강원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KTX매거진> 보면서 행복을 주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다음 여행지로 안동을 정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기미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02 부모님과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좋아하실 모습이 그려지네요. 코로나19로 우울했는데, 사랑 듬뿍 받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힘차게 잘 지내겠다 다짐합니다. 정소희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03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할머니를 뵙지 못해 아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기차에 앉은 순간 환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KTX매거진> 읽을 때 건너편에 앉은 아이는 블록으로 상여한 마리를 완성했어요.



이경화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 02 독자 평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05 마감은 3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를 뜻하는 문구 브랜드 모나미의 '153 네오 만년필 EF'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볍고 깨끗한 필기가 가능한 EF 펜촉을 탑재한 153 네오 만년필 EF는 모나미를 상징하는 육각 모양 보디에 '제트 블랙'과 '파스텔 톤의 클래식 베이지' '엔틱 카키' '코럴 핑크' 같은 트렌디한 색을 입혔습니다. 만년필 컨버터 1개와 블랙 잉크 카트리지 2개로 구성된 선물을 3월 중 일괄 배송합니다.

\* 네 가지 색상 중 랜덤 배송



제8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시작하는 연인'

- 156 한국철도 소식
- 162 시간표
- 172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74 열차이용안내
- 176 비상시 행동 매뉴얼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 한국철도 소식 KORAI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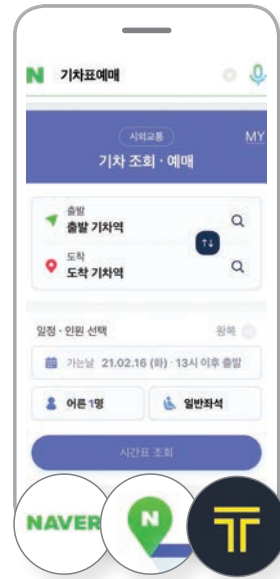


## 한국철도, 전국에서 '설맞이 릴레이 사랑 나눔' 활동

지난 2월 한국철도는 전국 127개 사회복지 기관과 취약 아동·홀몸 어르신 가구에 명절 선물 세트, 새 학기 용품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모두가 따뜻한 설날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설 연휴 전에는 '설맞이 나눔 활동 기간'을 정해 본사와 지역본부 등 전국 17개 봉사단 직원들이 연탄 배달, 어린이용품 전달 같은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대전 본사 봉사단은 대전 5개 구의 노인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360가구를 방문해 떡국 키트와 설 선물 키트를 증정했다. 한국철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이 외에도 지난해 봄에는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했고, 여름과 겨울에는 선풍기와 방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꾸준히 온정을 나누고 있다.



## 네이버,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열차 승차권 예약 가능



2월 1일부터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열차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나 카카오T 회원은 한국철도 회원이 아니거나 '코레일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앱에서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네이버 앱 검색창에 열차 승차권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승차권 예약 화면이 나타난다. 네이버 지도 앱에는 '기차 조회·예매' 메뉴를 신설했다. 카카오T의 경우 첫 화면에 보이는 '기차' 메뉴에 접속해 승차권을 예약하면 된다. '카카오톡'의 '코레일 알림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T 앱의 승차권 예약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직접 승차권을 예매하는 서비스 또한 준비 중이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도우미 신청도 '코레일톡'으로

이제 '코레일톡' 앱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철도는 2월 3일 해당 서비스를 개시했다. 앱에서 전동 휠체어석을 포함해 휠체어석 승차권을 구입한 후, '승차권 확인' 화면에서 '승하차 도우미 신청'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단, 열차 출발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발역, 열차번호, 미팅 장소, 시간 등의 정보는 문자 메시지나 '코레일 알림톡'(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신청 직후와 열차 출발 2시간 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해 준다. 그동안 전화 또는 철도역 방문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던 것으로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신설했다.



#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고객의 소리' 귀 쫑긋, 서비스 개선에 나선 한국철도

#### '고객의 소리' 듣고 이렇게 개선했어요!

- 1 환승역에서 타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 확충
- 2 전동열차 간편지연증명서, 고객 이용 패턴에 맞게 발급 횟수 확대
- 3 지연할인증 1회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유효기간에 재사용 가능
- 4 열차 내 도움 요청을 간편하게, 코레일톡 '서비스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고하세요.

한국철도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에는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34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 복잡한 환승 동선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로고 라이트, 바닥 안내표지 같은 보조 안내표지를 주요 환승역에 추가로 설치했고, 전동열차 간편지연증명서의 일일 업데이트 횟수를 5회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열차 지연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연할인증의 경우, 1회 사용 후 남은 금액을 유효기간에 재사용하는 '지연할인증 분할 사용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8월에는 '코레일톡' 앱에 '서비스콜' 메뉴를 추가했다. 열차 이용 중 승무원에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ll that KORAIL Service'는 매일 한국철도의 CS 정책과 고객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한국철도는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철도 디오라마(Diorama) 문화를 만들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철도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축소 열차모형과 선로를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를 배치해 자신만의 도시를 만드는 철도 디오라마(Diorama)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열차 정식 도착을 세계 1위인 철도 강국인 만큼 우리 철도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밀 열차모형을 이용한 철도 디오라마 문화를 보급하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KTX-산천 정밀모형이란?** 실제 기차의 축소판인 정밀모형 기차로 전 세계 유일하게 실제 KTX-산천 핵심부품을 녹여 열차 모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KTX-산천 모형은 국제 표준 규격인 HO 스케일(1/87)로 제작되어 다른 열차모형이나 건축 구조물과 함께 보다 현실감 넘치는 디오라마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 2,009대 한정 생산**  
코레일에서 KTX-산천을 2009년에 100량(10편성) 인수하여 운행 개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직 2,009편성만 한정 생산합니다.
- 실제 KTX-산천 설계도 활용**  
현대로템(주)에서 KTX-산천을 제작한 도면으로 실제 열차와 동일하게 정밀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실내 좌석 배치, 화장실은 물론 열차의 하부 요철도 도면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 열차모형 40년 장인 제작**  
KTX-산천 정밀모형을 제작하는 한국부라스(주)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유명 모형 회사에 OEM방식으로 최고급 정밀모형을 제작 납품해온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 모형은 특별히 더욱 정성을 다해 제작하였습니다.
- 실제 KTX-산천 부품 사용**  
실제 KTX-산천 핵심 부품인 파워스텍(고속철도 차량 모터블록 전력 변환장치)의 부속을 녹여 열차모형에 포함하였습니다. 실제 고속열차의 부속이 포함된 열차모형은 전 세계에서 KTX-산천 모형이 유일합니다.
- 라이트 및 사운드 재생**  
전방 라이트, 실내등 점등 조작이 가능하며 모터 발진음, 경적소리도 실제 열차의 사운드가 재생됩니다.
- 제품인증서 제공**  
사피아노 재질의 소가죽 케이스에 위조 방지 기술이 포함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제품인증서를 KTX-산천 모형과 함께 제공합니다.

### 제품 안내 2,009편성 한정제작

- 1 KTX-산천 풀편성(10량)  
동력차 x 2량, 객실 x 8량 (약 2.3m)
- 2 KTX-산천 하프편성(5량)  
동력차 x 2량, 객실 x 3량 (약 1.2m)
- 3 KTX-산천 동력차(1량)  
동력차 x 1량 (약 0.25m) ※ 동력차(1량)는 한정생산 제외

한국철도 사내벤처(K-모형팀)  
T. 042-606-5349 E-mail. 8778@korail.com

"작동 영상과 사운드를  
감상해 보세요"



## 위대하고 경이로운 도시 익산 문화 여행



**관광택시 금강부릉이** | KTX를 타고 익산역에 도착한 후, 관광택시 금강부릉이를 이용해 익산 곳곳을 편안하게 누빈다. 운전 경력 평균 20년인 모범 기사가 운전해 주니 믿음이 간다. 유네스코 루트, SNS 핫플레이스,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테마의 여덟 코스로 나뉘는데, 해당 코스 외에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관광택시 금강부릉이 홈페이지(www.ggtaxi.kr)에서 출발 전 예약해야 한다.

### 백제로 떠나는 시간 여행, 익산 미륵사지

639년에 지은 백제 사찰 미륵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제처럼 흔적만 남겼다. 본래 세 기의 탑과 법당 세 채가 자리했다고 하지만, 석탑 1기만이 1000년 세월을 견뎌 냈다. 2019년 4월,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장장 20년에 걸친 복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1992년 복원한 동탑과 마주 보고 선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넓은 터와 탑 주변을 산책하며 거대한 사찰 규모를 가능해 본다. 2015년 익산 왕궁리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언제 방문해도 좋지만, 특히 해 질 무렵 더욱 아름다워 사진 촬영 명소로도 사랑받는다.

#국보제11호 #백제역사 #유네스코세계유산



### 이 세상 모든 보석을 한자리에, 보석박물관

우수한 귀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한 보석의 도시 익산에 2002년 보석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11만 8000여 점의 진귀한 보석과 화석을 소장한 박물관에서 보석의 모든 것을 망라했다. 다양한 원석과 보석을 전시한 것은 물론, 채굴부터 선별, 가공 과정까지 한눈에 보여 준다. 특히 이곳엔 두 종류의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하나는 순금 2060돈을 사용해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탈, 아크릴, 금 도장 등으로 재현해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외에 백제 복제 유물인 입점리 금동 신발, 금동 허리띠도 눈길을 끈다. 은 목걸이, 천연 보석 브로치 등 너만의 장신구 만들기 프로그램도 인기다.

#보석도시 #백제유물 #장신구만들기



### 드라마·영화 속 배경을 찾아서, 교도소 세트장

폐교 부지에 교도소가 들어섰다. 정확하게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다. 실제와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덕분에 교도소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낀다. 영화 <7번방의 선물>처럼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떠올리며 본격적인 투어에 나선다. 1층과 2층으로 나뉜 이곳은 유치장, 독방, 단체방 등 다양한 구성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벽에 붙은 '양보는 미덕을 낳고 주먹은 후회를 낳을 뿐이다' 같은 교화 문구를 살피는 재미도 있다. 다소 쓸쓸스러운 분위기에 겁먹지 않도록 날개 벽화, 배식 식판을 활용한 트릭 아트 등의 포토 존도 마련해 두었다.

#드라마세트장 #이색명소 #착하게살자



### 세월이 만드는 전통 방식의 장맛, 고스락

순우리말로 최고라는 뜻을 지닌 '고스락'은 국내산 유기농 재료를 엄선해 전통 향아리에서 자연 발효한 장을 만드는 곳이다. 약 9만 9000제곱미터(3만 평) 규모의 향아리 정원엔 4000여 개의 장독이 늘어서 장관을 이룬다. 장이 익어 가는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산책하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총 맞은 향아리, 예쁜 꽃을 그려 넣은 향아리 같은 특색 있는 볼거리도 만난다. 고스락 카페에선 솔잎차·모과차 등 건강한 차를 맛보고, 전통 장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 단체 관람객의 경우 청국장 쿠키, 발효 식초 비누, 고추장 피자 등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전통장맛 #자연발효유기농 #장독대부



기차 예약문의 063-855-7715(익산역 여행센터)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爾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35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3	15:00	15:22	15:35	15:52		16:35	16:53		17:21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서울 首爾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33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월화수목 KTX-산천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밀양 16:15	16:48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1	08:08	08:32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KTX-산천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KTX-산천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KTX-산천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KTX-산천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KTX-산천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KTX-산천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KTX-산천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KTX-산천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KTX-산천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KTX-산천
843	11:01	11:22	11:28	11:51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KTX-산천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KTX-산천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KTX-산천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45		15:02			KTX-산천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KTX-산천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KTX-산천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KTX-산천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KTX-산천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KTX-산천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KTX-산천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KTX-산천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KTX-산천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KTX-산천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KTX-산천
863		19:55		20:22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 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37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49	15:04	15:27	15:39 공주 15:56		16:14	16:30	16:49		17:20	
423			15:36	15:51		16:21		16:49		17:18	17:28	17:53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3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05		13:23 계룡 13:38	논산 13:56 14:21	14:37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45 계룡 16:00	논산 16:18 16:43	16:59	17:26		17:45	18:00	18:14	18:22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3:0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54		금토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풍기 豊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54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7	06:04	06:14 장성 06:29	06:47 김제 07:02	07:16 논산 07:41	계룡 07:59 08:15		08:40	09:06	09:22	09:27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2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33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6:00	16:27	16:37	16:56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월화수목 KTX-산천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금토일 KTX-산천
482	16:51	17:18	17:28 장성 17:43	18:01 김제 18:16	18:30 논산 18:55	계룡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	----------------	----------	----------	------------	----------	----------	----------	----------	------------	----------	----------	--------------	----------	----------	----------	----------	----------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영동 永同 Yeongdong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ITX-새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ITX-새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4	13:05			13:52	ITX-새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ITX-새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ITX-새	
1023	12:53	13:02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ITX-새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ITX-새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ITX-새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영동 永同 Yeongdong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ITX-새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ITX-새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ITX-새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ITX-새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ITX-새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ITX-새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ITX-새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ITX-새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eup	장성 長城 Jang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ITX-새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대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ITX-새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ITX-새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대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ITX-새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대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ITX-새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장성 長城 Jangseong	정읍 井邑 Jeong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ITX-새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ITX-새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ITX-새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대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ITX-새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대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ITX-새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대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cheon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05	08:12	08:34	08:53	09:06	09:50		10:21	10:47	11:03	11:30	11:41	11:53	12:09	12:24	12:32	ITX-새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12:12	ITX-새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ITX-새
1084	15:55	16:03	16:18	16:34	16:46	16:56	17:24	17:42		18:08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창원 昌原 Chang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09:52	10:13	10:37	11:28	11:44		12:13	12:19 경산 12:28	12:53	13:11	13:21	13:30	13:36	13:48	14:06	ITX-새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진영 進永 Jin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30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ITX-새
1034	15:47	16:09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ITX-새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owon	예산 禮山 Eyesan	삼교 插橋 Sapgyo	홍성 洪城 Hongseong	광천 廣川 Gwangcheon	대천 大川 Daechon	웅천 熊川 Ungcheon	서천 舒川 Seochon	장항 長項 Janghang	군산 群山 Gun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새마을호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새마을호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ITX-청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ITX-청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ITX-청
2007	08:51	09:01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ITX-청
2101	09:57			10:14							10:51		11:06	11:09	ITX-청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ITX-청
2015	12:00	12:10		12:18				12:39			12:57		13:12	13:15	ITX-청
2019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ITX-청
2021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ITX-청
2025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ITX-청
2029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ITX-청
203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ITX-청
203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ITX-청
203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ITX-청
203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ITX-청
2079	20:32			20:49				21:10		21:23	21:31	21:40	21:49	21:52	ITX-청
2041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ITX-청
2047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ITX-청
200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ITX-청
200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ITX-청
200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ITX-청
200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ITX-청
207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ITX-청
2101	09:49			10:06			10:43		10:58	11:01	ITX-청
201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ITX-청
2017	10:59	11:09	11:13	11:17		11:49	11:57		12:12	12:15	ITX-청
2073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ITX-청
2021	11:57	12:07	12:12	12:17		12:49	12:58		13:12	13:15	ITX-청
2075	12:30			12:47	13:09		13:27	13:36	13:44	13:47	토 ITX-청
2025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ITX-청
2077	13:30			13:47	14:08		14:27	14:37	14:46	14:49	토 ITX-청
2029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ITX-청
2079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ITX-청
2033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ITX-청
2035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ITX-청
2081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ITX-청
2039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ITX-청
2083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ITX-청
2043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ITX-청
2045	18:26			18:44		19:16	19:24		19:39	19:42	ITX-청
2047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ITX-청
2085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ITX-청
2051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ITX-청
2053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ITX-청
2055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ITX-청
2087	21:50			22:07		22:39	22:47		23:02	23:05	토 ITX-청
2059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2021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ITX-청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ITX-청
2074	07:24	07:28	07:37	07:46	07:54		08:07				08:30			08:48	ITX-청
2006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ITX-청
210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ITX-청
2014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ITX-청
2018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ITX-청
2020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ITX-청
2024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ITX-청
2028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ITX-청
203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ITX-청
203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ITX-청
2102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ITX-청
203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ITX-청
2040	18:54	18:58		19:13		19:31	20:22				19:53	19:58		20:12	ITX-청
2078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ITX-청
2046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ITX-청
2048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ITX-청
200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ITX-청
2072	07:44	07:48	07:57	08:06		08:24	08:48			09:05	토 ITX-청
200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ITX-청
2008	08:47	08:51	9:00	09:09		09:27	09:50			10:07	ITX-청
210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ITX-청
2074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ITX-청
201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ITX-청
2076	10:49	10:53	11:02	11:11		11:29	11:51			12:08	토 ITX-청
2018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ITX-청
2078	11:53	11:57	12:06	12:14		12:32	12:53			13:10	토 ITX-청
2022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ITX-청
208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ITX-청
2026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ITX-청
2028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ITX-청
2082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ITX-청
2032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ITX-청
2084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ITX-청
2036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ITX-청
2102	16:55	16:59		17:14			17:52			18:08	ITX-청
2040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ITX-청
2086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ITX-청
2044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ITX-청
2046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ITX-청
2048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ITX-청
2088	20:00	20:04	20:12	20:21		20:39	21:02			21:19	ITX-청
2052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ITX-청
2054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KTX 93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마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전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112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마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Optional Services

**KTX 서늘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전용 라운지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타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 ※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 ※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밤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선불 전국 호환 교통카드**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 등
- ※ **구입 및 충전** 역 매표 창구, 지하철 무인 기기,  
스토리웨이 매장, 이마트24 등
- ※ **청소년·어린이 할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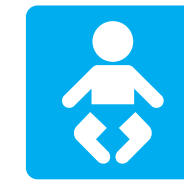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3,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이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I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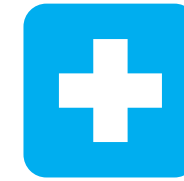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  
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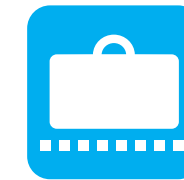
부가 서비스 Optional Services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여행사, 인천공항 철도 안내데스크  
**승차장** 서울역 서편 전용 정류장,  
용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환승 정류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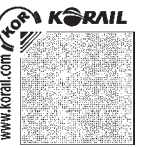
**주차 대행 서비스 위치**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맞은편  
A주차장



**수하물 택배 서비스**  
열차 이용 시 휴대하기 불편한  
짐을 할인된 택배 요금으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신청 및 접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여수엑스포, 포함  
문의 1588-0011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울산,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함  
문의 1544-7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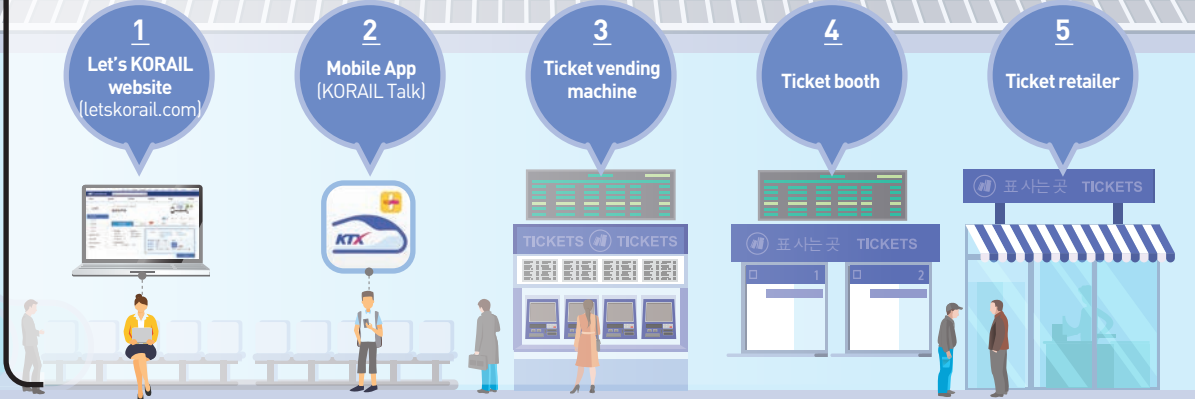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가능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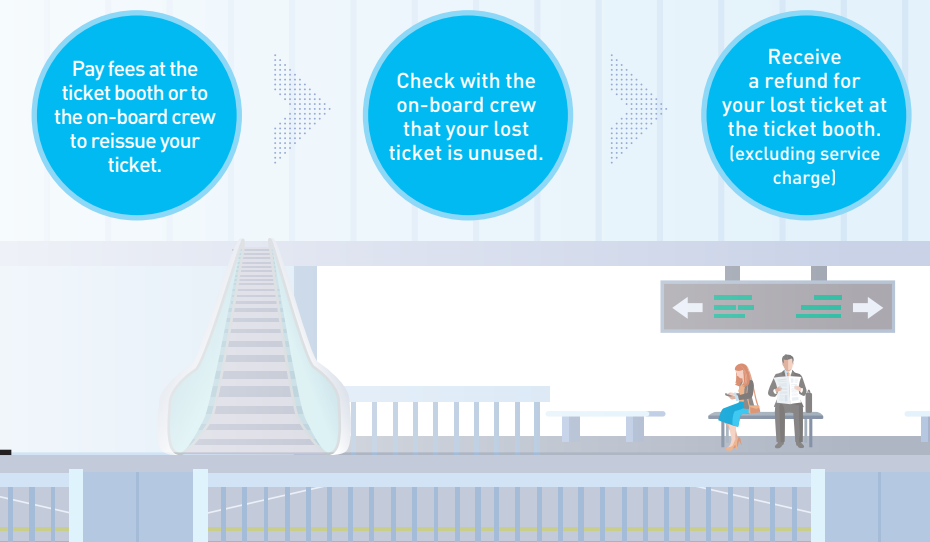
승차권 실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



TICKET LOSS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승차권 환

구분	출발 전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출발 시간 전		20분까지	20~60분	60분~도착
월~목요일	무료		5%	월~목요일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금~일요일, 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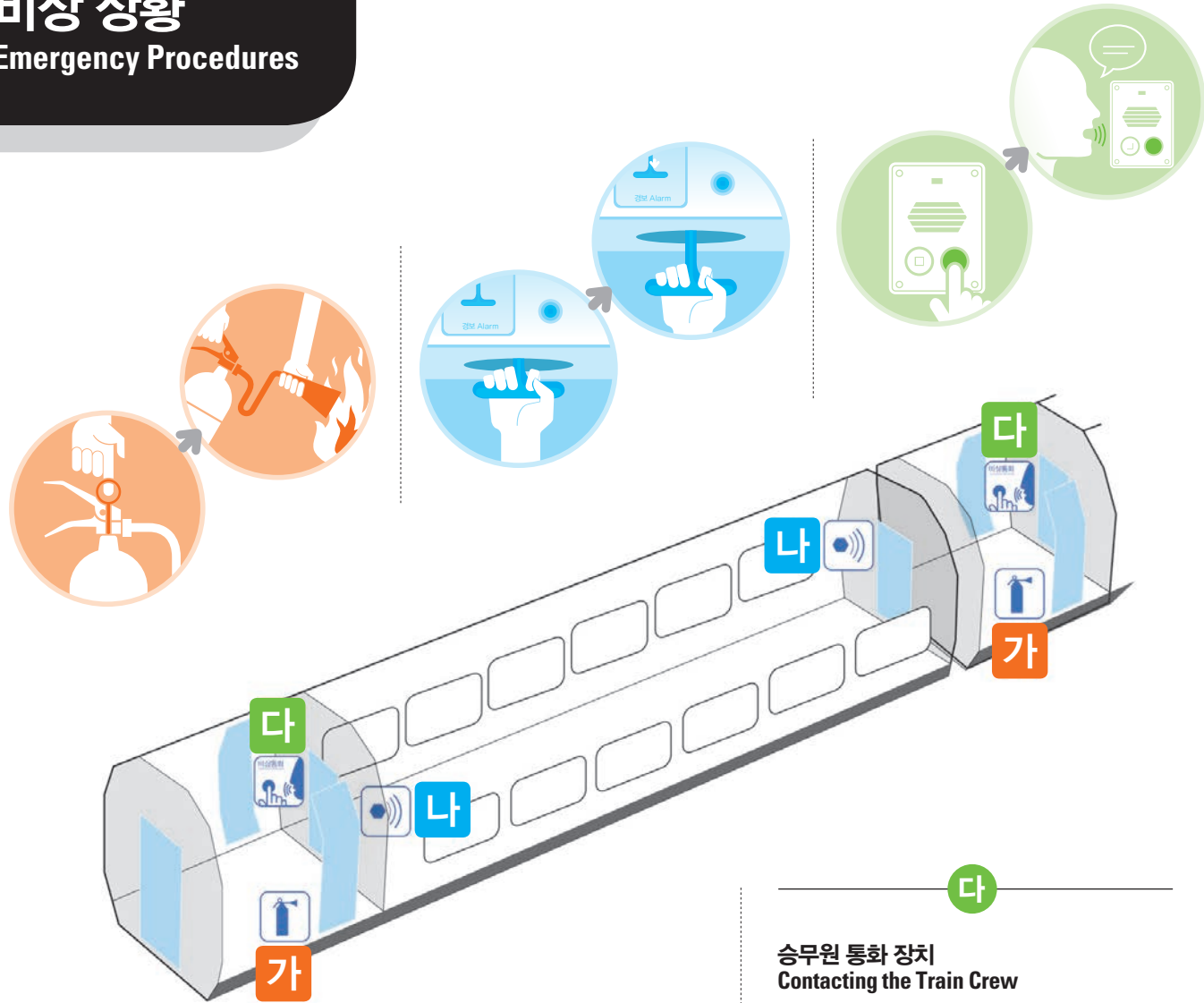
\* ARS 반환은 자동 응답 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 반환 신청)과 다름.

TICKET REFUND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ee		5%	Mon-Thu	15%	40%	70%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Fri-Sun, holidays			

\* A refund made via the ARS number (1544-1188) is not the same as one processed by the KORAIL Customer Service Center.

#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 가

###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허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 나

###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 다

###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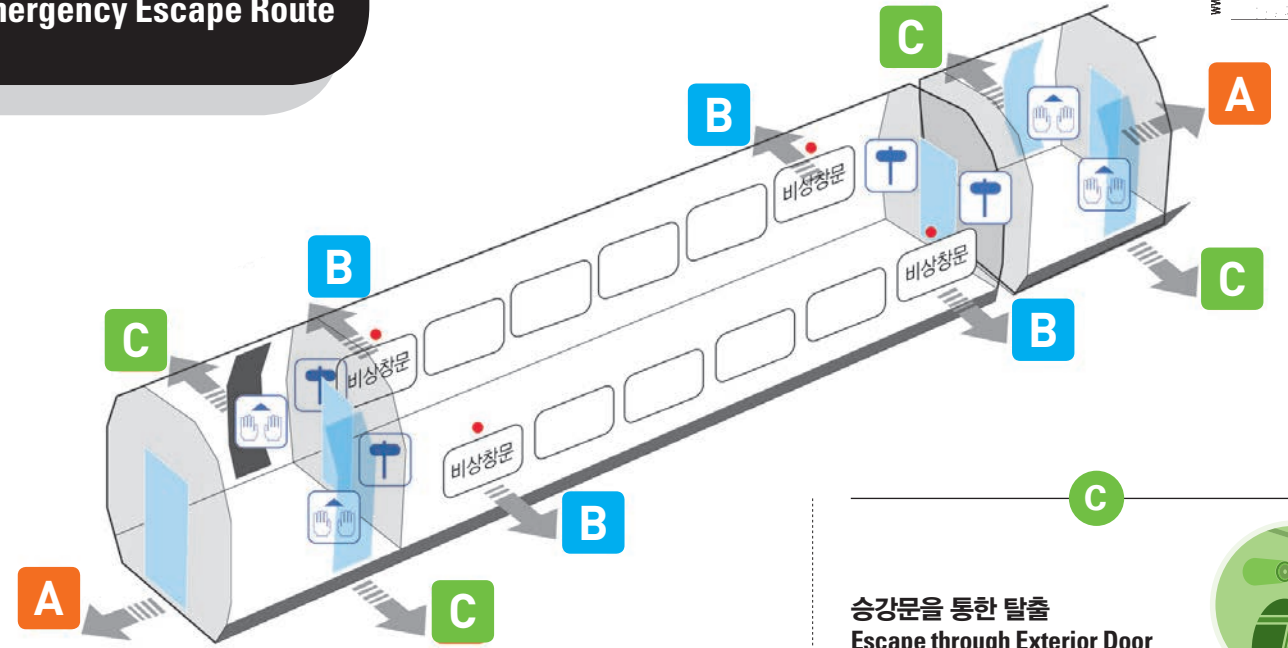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 A

###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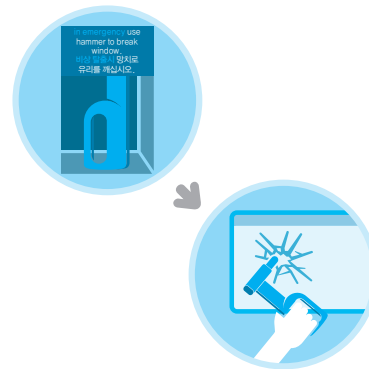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ITX-새마을: 4호차

###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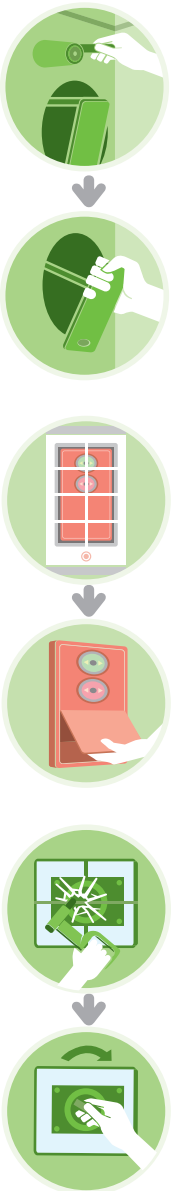
1. 각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1. 각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 베텔게우스, 베텔게우스, 베텔게우스

'테마 여행' 전복 완주 취재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갔다. 낙조를 촬영한 뒤였기에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세상에나 정말 많은 별이 떠 있었다. 짐을 풀고 방에서 나와 조명이 없는 곳으로 향했다. 조금 전보다 더 빼곡한 별이 빛을 쏟아 냈다. 구석구석 살피다 오리온자리를 찾았다. 오리온자리 어깨의 별 베텔게우스가 어두워졌고, 이게 초신성 폭발의 징후라는 기사가 기억나서다. 지구와 베텔게우스 사이엔 500광년 거리가 놓였다. 500년 전에 폭발했다면 오늘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밤이 없어질 만큼 밝은 하늘이 2주간 계속된다고 했다. 1년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일까? 베텔게우스가 폭발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바보 같지만 마을을 서성이며 기다려 보기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젠가 태양처럼 밝은 폭발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베텔게우스는 2021년 <KTX매거진> 3월호 편집 후기에 자기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텔게우스를 봤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김규보**

### 오늘의 분위기

매달 취재하고 마감한다. 말는 칼럼도 주제도 그때그때 다르지만, 마감의 마지막은 항상 똑같다. 편집 후기를 쓰는 것. 먼저 휴대전화 속 사진첩을 훑 살피며 기억을 되짚는다. '아, 여기를 갔지, 좋았어.' 그때그때의 감정이 떠오른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나긴 마감이라는 터널을 지나니 아득하게 느껴진다. 이번에 내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은 바로 이것! 이번 호 '이 계절 이 여행' 칼럼의 마지막 촬영지인 포항 구룡포 주상절리다. 취재 다니면서 만난 바다 중 가장 파랬다. 바다는 청아했고 파도가 치는 듯한 모양의 칠흑빛 주상절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마침 대개 경매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인 터라 서울행 기차를 타기 전에 10분의 여유 시간도 생겼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구철 실장님 커피와 내 커피를 여행을 떠나는 양 사진에 담았다. 바닷바람은 차가워도 햇볕은 따스했다. 봄기운이 포항을 물들이고 있었다. 다시 편집 후기를 쓰는 지금. 사무실에 마감 막바지를 향하는 기운이 감돈다. 2021년 3월(호도 이제) 안녕. **이내경**



### 주영 존, 후기 나뉘오

이번 호를 마감하기에 앞서 책을 읽었다. 매거진 <B>에서 발간한 <잡스(JOBS) 소설가 편>, 이다혜 기자의 <내일을 위한 내일>,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 등 세 권이다. 세 책의 공통분모로는 소설가 정세랑이 꼽힌다. 앞 두 권엔 정세랑 인터뷰가 실렸고, 마지막 책은 정세랑(+김금희) 덕후 'A'가 추천해 준 책이다. 편집 후기에 뜬금없이 정세랑 작가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 저도 정세랑 작가님 좋아하고요♥ 둘, 같은 책을 읽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친구 A에게 언제든 "그때 <복자에게>에서..."라고 시작하는 말을 건넬 수 있다. 이달 '미니 인터뷰' 칼럼에서는 에세이집 <소년을 읽다>를 펴낸 서현숙 작가를 인터뷰했다. 작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은 소년들의 이야기다. 어떤 분야든 '덕친'의 존재는 소중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이달 '문화 돋보기' 기사를 쓰기 위해 유튜브 속 수많은 희극인 채널을 섭렵했다. 자, 구독자들! 모두 모이세요. 같이 수다 떨어요! ps. 122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주영 존' 완성. **진주영**

### 봄이 조금만 천천히 오면 좋겠다

날이 많이 풀렸다. 눈이 오고, 또 오고 그러더니. 바람이 불어도 햇볕이 따뜻해서 추위가 덜하다. 그래서 걱정이고,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했다. 발가락을 다쳤다. 1월 26일에(생일 다음 날이다. 매년 회자될 거 같은 기분이 벌써 든다). 낫는 줄 알았다. 톱핑 부은 발가락이 가라 앉고, 걷기가 점점 편해졌으니까. 그사이 발가락뼈는 부러졌다. 아무튼, 그런 다리로 취재 다녔다. 앞으로도 취재하러 다녀야 한다. 또 걱정이다. '도움 주신 분'에 썼듯이 황보경 매니저님처럼, 나도 거제 근포마을에서 문어버거를 만들려고 했다. 재료를 다 구매했지만, 거제에 빈손으로 갔다. 그 덕에 집에 한동안 먹물 번이 많았다. 고성엔 정말 좋았다. 다리가 괜찮았으면 고성에서 하루 머물렀을 거 같다. 취재 날은 금요일이었고, 공룡나라투어 디노조아 팀원들이 지역을 정말 사랑했기에, 처음 온 고성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김스를 풀면 고성부터 갈 테다. 사람들이 "(맘 안 나는) 겨울에 김스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봄이 온다. 봄이 조금만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나는. **표다정**

#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 드라마촬영지 각광! 언택트 힐링명소

'해양관광 1번지' 포항시에 각종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들이 문전성시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TX**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 영주

KTX-이음으로 한 시간대에 만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고장





#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이다 경남관광두레

지역을 살뜰히 살피는 주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여행 프로그램, 경남관광두레 여덟 곳을 소개한다.

글. 표다정 사진. 신규철 자료 제공. 경남관광재단 경남관광두레협력센터

고성  
공룡나라투어 디노조아

거제  
근포마을회





## 지속 가능한 여행을 추구하다, 관광두레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뭉쳤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이 공생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집을 가꾸듯 내가 사는 지역을 쓸고 닦으며 손님을 맞이하기에 주민에게도, 여행자에게도 의미 있는 여행, 바로 관광두레다. 정부 사업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여행'을 제안한 관광두레를 경남에서도 발굴, 지원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경남 내 11개 시군의 22개 사업체, 204명의 주민사업체 구성원과 9명의 경남관광두레 협력 PD가 활동 중이다.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면 관광두레 협력 PD가 브랜드 기획, 체험 행사 개발 등 전문 멘토를 연결하는 것부터 선진 관광두레 견학, 여행 상품 평가와 개선에 필요한 파일럿 사업까지 추진한다.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유람'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선사하는 경남관광두레가 이제 여행자를 기다린다. 기존 여행지를 더욱 널리 홍보하는 데 집중한 고성 공룡나라투어 디노조아, 지역 축제에서 출발한 진주 예나시티협동조합, 취미로 시작해 지역을 후원하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거창 바느질보따리 등 지역민이기에 가능한 여행 플랫폼이 가득한 경남관광두레가 궁금하다.



# 고성 공룡나라투어 • 디노조아



📍 고성군 개천면 나선길 73-10  
☎ 010-8772-0152

고성 관광두레를 이끄는 박격원 협력 PD와 공룡나라투어 디노조아 팀은 새로운 여행지를 모색하기보다 기존 고성 여행지에 초점을 두었다. 팀 구성원 대부분이 아이를 키우는 티라 여행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했다. 시작부터 만들거라니, 마음이 두둑해지는 기분이다. 폐교를 단장해 1987년 문을 연 도자기 체험장 '수료요, 보천도 예창초학교'에서 나만의 공룡 머그잔을 만든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디자인으로 녹인 머그잔에 물감을 칠한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색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공룡에게 새 옷을 입힌다는 마음으로 색칠하도록 하죠." 공룡 머그잔 디자인을 기획한 땡스클레이 이재림 디자이너의 설명이다.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제안에 아이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기량을 맘껏 뽐낸다. 뽀뽀뽀, 조금 서툰들 어떠랴. 씩씩하게 만든 머그잔은 가마에서 견고해진다.

한반도를 활보했던 공룡을 만나러 가는 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은 엑스포 기간에만 반짝 빛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기존 여행지가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어요." 공룡나라투어 디노조아 허수연 대표의 진심 어린 설명에 이곳이 더 궁금해진다. 당항포관광지 내에 4D영상관, XR공룡라이브파크, 사파리영상관 등 다양한 IT 기술로 복원한 공룡을 만나는 주제관과 공룡화석전시관 등에 공룡과 서식지를 구현했다. 모래 속에 묻힌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과 240여 점의 진품 공룡 화석을 구경하는 시간이 흥미진진하다. 독수리 탐조 프로그램도 놓칠 수 없다.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 500여 마리가 고성의 들녘과 산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죽어가던 독수리 한 마리를 보살핀 김덕성 선생님과 독수리의 끈끈한 우정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공수한 게르 안에서 독수리 떼가 고성을 찾은 사연을 듣고, 먹이를 먹는 독수리를 관찰한다. 이곳에서는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쇄해 독수리 모양 액자에 넣어 선물한다. "다음에 방문하시면 요즘 핫한 고성송학동고분군도 안내해 드릴게요. 못 보고 가신 곳이 많은데 어쨌죠?" 지역을 살뜰히 살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역을 사랑하는 방법을 고성에서 엿보았다.



# 거제 근포마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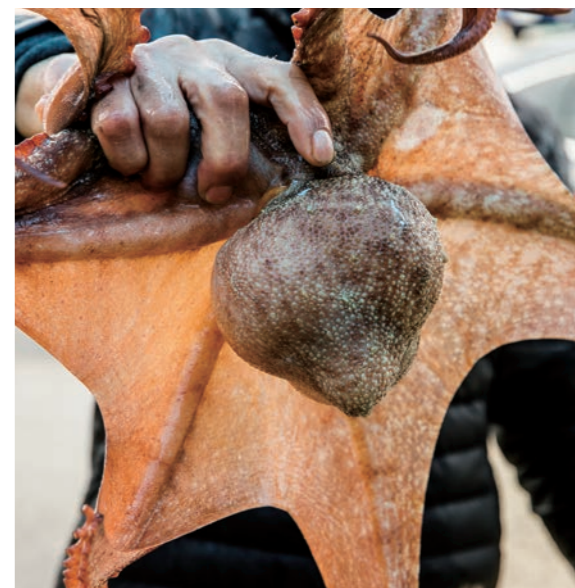
📍 거제시 남부면 근포1길 58  
☎ 010-3848-0572

거제도 남단에 위치한 근포마을은 몇 년 전만 해도 '여행지'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다. 물질하고 밭을 가는 게 일상인 평범한 어촌이었다. 그러다 2017년에 한 주민이 마을의 옛 모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발견했는데, 입구를 막은 흙을 치우고 보니 길이가 30~50미터나 되었다. 훗날 그 주민의 아들이 동굴 안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바다 풍경이 화제가 되었고, 여행객이 알음알음 찾아왔다.

주민들은 땅굴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아흔 넘은 어르신이 말하길 일본군이 포진지를 지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해방되고 그들은 포와 목재를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주말이면 땅굴 앞 대기 줄이 100미터를 넘었다. "땅굴 찾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곳이라 길 묻는 이가 늘었다. '각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는구나!' 주민 스스로 여행지의 가능성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즈음 거제시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모집했다. "현장 평가 당시 근포마을 주민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그날을 회상하는 관광두레 공상원 협력 PD의 말이다. 주민들은 근포마을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볼거리는 있으니 이제 로컬 푸드를 만들자는 소리에 쪽파, 시금치, 문어 등 거제도 특산물이 우르르 쏟아졌다. 어촌이니까 해산물도 좋겠고, '주민이 직접 잡은 문어로 요리하다'라는 스토리를 더했다. 입맛 도는 여러 메뉴가 후보에 올랐고, 논의 끝에 문어버거를 선정했다. 문제는 버거를 만들어 본 주민이 없다는 것. 공상원 협력 PD는 요리 연구가를 멘토로 초청했다. 송덩송덩 썬 문어를 넣은 근포마을표 문어버거가 세상에 나왔다. "우리끼리 맛있다 할 게 아니더라고요." 문어버거를 가지고 2020 경기관광박람회에 참여해 반응을 살폈다. 가격, 맛, 선호도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패티가 더 담백하면 좋겠어요" "문어를 좀 더 잘게 썰어 넣으면 어떨까요?"라는 의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었다. 먹을 번에 문어로 속을 채운 패티, 특제 소스로 맛을 낸 문어버거가 완성되었다.

"문어버거 패키지 디자인도 끝났고요. 참, 땅굴크로켓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포마을은 여행지로 거듭나는 중이다. 찰랑이는 바다처럼 마음에 스며드는 여행지가 되겠다.







## 합천 합천여행플랫폼 땡김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83  
010-9011-5611

경상도 사투리로 '땡기다'는 돌아다니다, '땡기다'는 당기다를 의미한다. '외지 사람을 당겨 합천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합천여행플랫폼 땡김'은 당일 코스 두 가지와 1박 2일 코스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황매산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합 프로그램'은 경비행기장·황계폭포·합천영상테마파크를, 해인사를 메인으로 여행하는 '천 프로그램'은 대장경테마파크·오도산자연휴양림 등을 투어한다. 밤하늘 별 보기, 오도산에서 일출 보며 에스프레소 마시기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다.

## 양산 문화나루터 물고美

양산시 물금읍 화산길 47  
010-4229-0110



물금역 철길 근처 조롱조롱꿈터널길을 통과한다.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인 조롱박 사이에서 서부마을 주민의 캐리커처와 손석고 작품도 마주한다. 이름 대신에 부잣집 마나님, 백설 공주라는 귀여운 애칭을 붙였다. 벽화 작가로 활동 중인 김민구 대표를 주축으로 한 사람들이 서부마을에 문화 예술을 입히려 노력한 결과물이다. '문화나루터 물고美'는 서부마을이 벽화마을로 거듭나도록 한다. 벽화를 채울 사람은 이곳을 찾는 여행자. 몸만 가도 주민과 김민구 대표의 도움을 받아 벽화를 그릴 수 있다.



## 진주 에나시티 협동조합

진주시 진주대로 970  
010-9713-0008

2017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한복 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출발한 '에나시티협동조합'은 한복의 일상화를 꿈꾼다. 그 일환으로 한복이 필요한 전국 행사에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한복 카페도 운영하는데 전통 한복을 비롯해 장군복, 선비복 등 테마 한복과 화관, 노리개 등 다채로운 장신구를 보유했다. 2017년 설립 이후 차곡차곡 모은 아이টে마. 한복을 입고 진주를 거닐 차례다. '어딜 가야 좋을까?' 고민된다면 카페 직원에게 문의할 것. 경상남도 수목원 등 인생 사진 남기기 좋은 진주의 명소를 안내해 준다.



## 하동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동조합

**i** 하동군 약양면 약양동로 176 2층  
☎ 010-4887-7792

지역과 여행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활성화를 꿈꾸는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봄날에 어울린다. 다원 대표와 차담을 즐기는 '다담이다실'이 그렇다. 하동 차의 특징 등 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녹차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차 마실'은 하동 녹차나 홍차, 다기로 구성한 피크닉 세트를 대어해 주고, '달 마중'은 평사리백사장을 산책한 후 백사장에 누워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월광'을 듣는 휴식형 프로그램이다. '살아봄 시골'은 하동 할머니와 함께하는 쿠키 클래스를 포함한다.



## 남해 섬팜 1973

**i**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202번길 56  
☎ 010-7788-6040

블랙베리의 달콤한 향이 바닷바람에 밀려온다. '농촌과 섬 타다'라는 뜻의 '섬팜 1973'은 블랙베리를 주요 아이템 삼아 남해의 농촌 즐기기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남해가 좋아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귀농한 이근환 대표가 직접 블랙베리 농사를 짓는다. 수확 체험은 물론 잼, 와인이나 즙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는 과정을 배우는 셈이다. 섬팜 1973 구성원은 현재 해남 로컬 푸드를 활용해 블랙베리 와인에 곁들일 사이드 메뉴 개발에 한창이다.

## 거창 바느질보따리

**i**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31-5  
☎ 010-2542-2162

거창군평생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 동아리에 바느질이 취미인 6명이 모였다. 바느질하며 수다를 떨 요량으로 시작한 모임이 20년을 바라본다. 이제는 초등학교에 면 생리대와 팔 짚질 팩을, 요양원 같은 복지 시설에 면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바느질로 지역을 후원한다. "바느질 솜씨가 없어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자수가 들어간 예코백을 똑딱 완성하게 됩니다." 공방을 이끄는 강선여 대표의 말에 없던 자신감이 생긴다. 30분 만에 텀블러 케이스, 팔 짚질팩을 완성하는 진기한 경험을 한다.



## 이 계절에 추천하는 경남관광두레

이름	주요 사업 내용	주소	전화번호
공룡나라투어 디노조아	고성 투어	고성군 개천면 나선길 73-10	010-8772-0152
근포마을회	마을 체험 및 로컬 음식(문어버거) 개발 단계	거제시 남부면 근포1길 58	010-3848-0572
합천여행플랫폼 댕깁	합천 투어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83	010-9011-5611
문화나루터 물고美	조롱박 관련 예술 체험, 벽화 그리기	양산시 물금읍 화산길 47	010-4229-0110
에나시티협동조합	한복 체험	진주시 진주대로 970	010-9713-0008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동조합	하동 투어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2층	010-4887-7792
쌈팜 1973	블랙베리 농장 체험, 블랙베리 와인 시음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202번길 56	010-7788-6040
바느질보따리	여행 굿즈 제작 체험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31-5	010-2542-2162